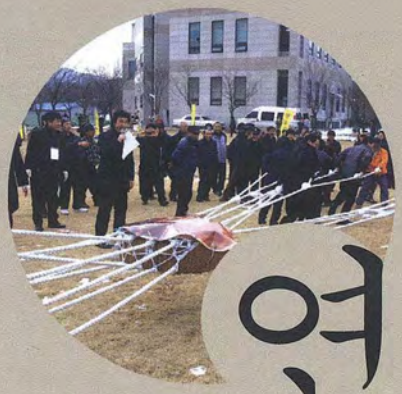
연천문화 제17호

문화융성 행복한 대한민국



연천 문화

지역문화 역량의 척도

특집 · 전설과 설화로 보는 연천의 지명유래
특집 · 연천의 민속놀이
특집 · 화제의 인물

연천문화원

「연천문화」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
이 책은 비매품이며 국비와 군비 보조금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연천문화 제17호

문화융성 행복한 대한민국

연천 문화

지역문화 역량의 척도

연천문화원

CONTENTS

2013 Vol.17

연천문화 2013년 (통권 제17호)
발 행 일 | 2013년 10월 25일
발 행 처 | 연천문화원(031-834-2350)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현가리 71-1번지
펴 낸 이 | 이경순 **기획·사진** | 이준용
편집·인쇄 | 한원그래픽스 (02)2164-3181

06 발간사_ 이경순 원장
07 축간사_ 김규선 군수
08 축간사_ 왕영관 의회의장
09 사진으로 보는 연천문화원 행사 및 활동

· 제22회 정월대보름 대축제 및 풍년기원제
· 연천문화원 문화학교(아카데미)
· 제1회 미수 문화제 개최
· 제1회 미수문화제 서예대전
· 역사문화유적 답사
· 문화 바우처 사업
· 제19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 '신탄리역' 철도중단점의 시대 막을 내리다.

특집 I . 화제의 지명

26 왕림리(旺林里) 본래의 지명은 왕림리(王臨里)
29 불견이 고개의 전설
33 웅연(熊淵)의 신서(神書)
35 열묘 각시 꽃봉
37 대전리 산성(매초성)

특집Ⅱ. 연천의 민속놀이

44 수레울 길놀이 한마당
46 향토문화재 제11호 미산성주걸이
49 연천 쌍겨리 소리

특집Ⅲ. 연천의 역사적 인물

52 현가리(가무사리) 홍현상 선생의 잠종(蠶種) 제작소
54 구한말 13도 창의군 의병 3분견대장 심상우 의병장
58 조선 초대 문하부사(영의정) 임구 묘소 및 신도비

전설과 설화로 보는 연천의 지명유래

62 연천읍
71 전곡읍
81 군남면
89 청산면
97 백학면
105 미산면
112 왕징면
122 신서면
126 중 면
134 장남면
145 삭녕면
151 서남면

편집 후기

156 연천문화원 사무국장 이준용

표지이야기

어수물(御水井)

3번 국도변에 있는 은대4리에서 가장 큰 마을. 조선 개국 초 태종 이방원이 고려 신하로써 절조를 지키며 연천읍 현가리 도당골에 은거하고 있던 금은(琴隱) 이양소(李陽昭)를 만나기 위해 연천으로 친행(親幸)하던 중, 이곳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마셨다 하여 이 우물을 '어수물'로 명명했다 한다. 이 우물은 지금도 남아 있다.

존경하는 연천문화원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연천군민 및 연천문화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의 끝자락이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계절에 '연천문화'를 발간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발간사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2013 정월대보름 한마당 잔치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일들을 마무리해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일들이 그리고 함박웃음 짓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슬라이드처럼 하나둘씩 스쳐지나 갑니다.

오늘의 이 결과가 있게 해주신 김규선 군수님을 비롯한 왕영관 의회의장님 및 의원님들 그리고 연천군민 및 문화가족 여러분께 한 번 더 크게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문화는 크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의 생활문화와 선조들이 살아오신 전통문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시대의 생활문화와 지나간 역사의 전통문화의 조화로움을 유지하려는 기본적인 틀을 갖고 매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어느 분야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연천문화 지에는 우리고장 선조들의 생활의 발자취와 마을의 지명유래 및 자랑스러운 연천인의 소개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물론 연천문화원의 2013년의 활동모습들도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민속놀이 '참게줄 당기기'를 만들어서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하여 '민속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천군의 새로운 민속놀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천군민에게 홍보하고 놀이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융성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또한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갈망과 전통문화를 지키고 보전하고 또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개발하는데 무단한 노력과 높은 문화의식의 결과입니다. 그동안은 민간에서의 노력이 있었다면 지금은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기에 우리 문화를 계승발전 시키는데 있어서 예전보다는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음을 다행이라 여기고 지금의 저에게는 이 자리가 행운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천문화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끝으로 본지의 발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여러분과 연천문화원 임원 및 회원 그리고 직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연천문화원장 이 경 순

연천문화 17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 한해 문화인들의 이야기인 「연천문화」 17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휴전선과 인접한 우리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 권장 및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시책을 강구하고, 역사와 문화가 하나되어 공감과 소통으로 한발 다가서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고장은 선사시대, 고구려, 신라, 고려, DMZ에 이르기까지 과거 우리 조상들의 전통 문화 발굴 및 계승하고 문화예술 진흥하기 위하여 연천문화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과 문화의 재발견을 위한 노력과 연천 문화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연천문화원의 활동이 군민들에게 친숙하게 전달 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 항상 새로운 문화 정보를 군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연천문화원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연천문화원은 우리군의 문화 및 역사를 재조명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우리군의 문화유산을 발전 및 승화시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윤택한 문화생활 향유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속에서 문화예술활동에 기여하신 이경순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문화를 사랑하는 회원님께 연천문화 제17호 발간에 즈음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천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연천군수 김 규 선

연천문화 17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천군의 대표적인 종합문예지『연천문화』제17호의 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온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89년 창간이래 지금까지 『연천문화』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작으나마 보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한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열일곱 번째를 맞는 『연천문화』발간을 위해 그 동안 자료 수집에서부터 검토와 편집에 이르기까지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이경순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우리지역의 많은 문화예술인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오래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문화를 지켜나기기 위해 지역문화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전통문화를 발굴 · 계승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다양한 문화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등 문화원의 역할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찾아내어 재정립하는 막중한 사명감과 함께 연천의 문화를 대내 · 외로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되는『연천문화』17호를 통하여 우리 문화의 참모습을 다시금 널리 알리고, 앞으로도 우리 고장 문화유산을 새롭게 해석, 발전시켜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지역문화 예술지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지역 문화진흥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본지 발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문화원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함께 연천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문화예술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연천군의회 의장 **왕 영 관**

제22회 정월대보름 대축제 및 풍년기원제

3

4

5

6

7
龍王上帝之神位
玉皇上帝之神位
山神上帝之神位
위한
풍년기원제
연천문화원
연천군

8
農者天下之大本
연천군민 건강과 안녕을 기원

연천문화원 문화학교(아카데미)

연천문화원에서는 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도 하반기에는 다도반, 민요반, 기타반, 드럼반, 실버예술단 등 다양한 강좌로 수강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1

2

3

사진설명(위로부터 좌에서 우 차례로)

1. 문화아카데미 다도반 강의 2. 다도반 강사님과 수강생 3. 문화아카데미 드럼반 강의

4

5

6

7

사진설명(위로부터 좌에서 우 차례로)

4. 로하스밴드 남계리 어르신 생신잔치 축하공연
5. 문화원 소속 로하스밴드
6. 어르신 문화학교
7. 원장님 어르신들께 생신 축하인사

제1회 미수 문화제 개최

지난 10월 19일 오전 10시 연천수레울 아트홀에서 김규선 연천군수 및 왕영관 연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양천허씨 대종회장 허찬씨를 비롯한 미수 허목선생의 후손들과 전국 각지에서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미수문화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미수문화제는 연천출신의 조선 중기 대학자이며 대선현인 허목선생을 기리는 행사로서 특히 삼척에서는 척주동해비로 유명하며 경남 창원과 합천, 전남 나주, 등지에서 전설처럼 전해 오는 인물이다.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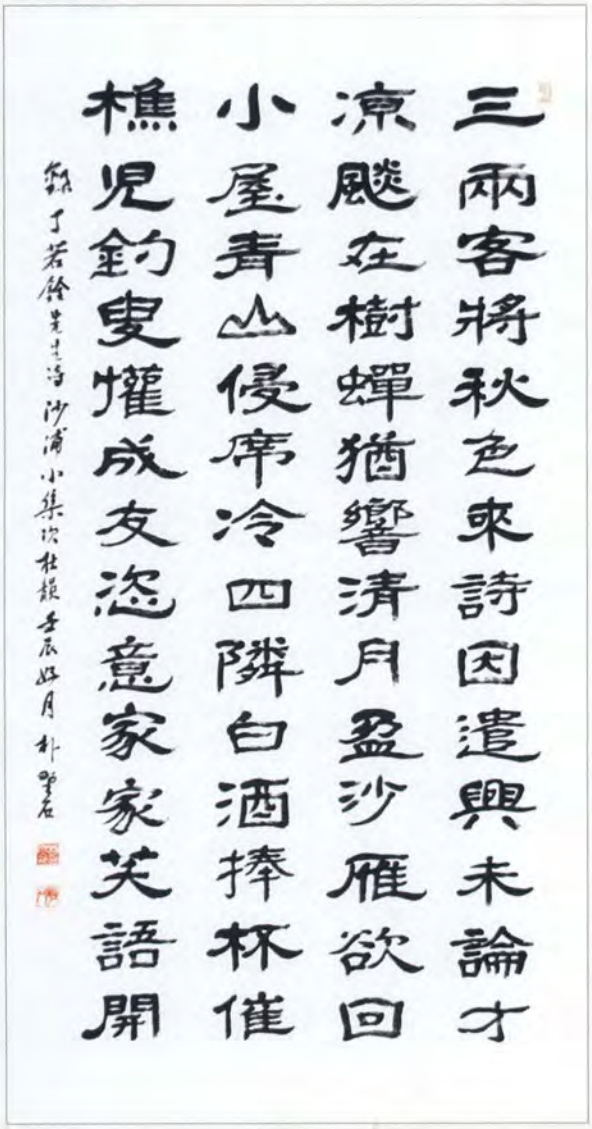
사진설명(위로부터 좌에서 우 차례로)

1. 제1회 미수 문화제 개최
2. 제1회 미수 문화제 개최
3. 제1회 미수 문화제 개최
4. 제1회 미수 문화제 개최
5. 제1회 미수 문화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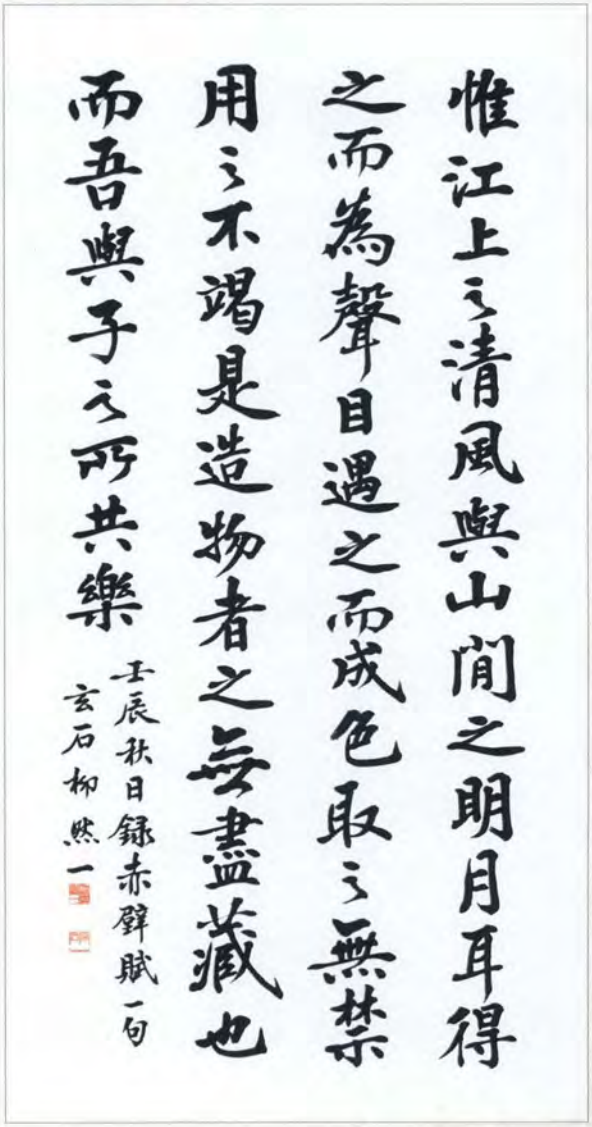
제1회 미수문화제 서예대전

대 상　박대명(경기도 의정부시) 1명
최우수　유연일(경기도 고양시), 홍영섭(경기도 의정부시) 2명
우수상　조광복(경기도 고양시), 황영옥(경기도 연천군), 현정실(경기도 고양시) 3명
삼체상　최광식(경기도 연천군), 권태의(경기도 연천군) 2명

대상 박대명



최우수상 유연일



특 선　백은상(경기도 고양시), 이훈옥(경기도 연천군) 2명
장려상　정현섭(경기도 포천시), 정진태(경기도 고양시) 2명
입 선　김정선(경기도 포천시), 성혜숙(경기도 연천군), 강경열(경기도 연천군), 유옥임(경기도 연천군), 임귀옥(경기도 연천군), 신정순(경기도 연천군), 김인숙(경기도 연천군), 권영대(경기도 고양시) 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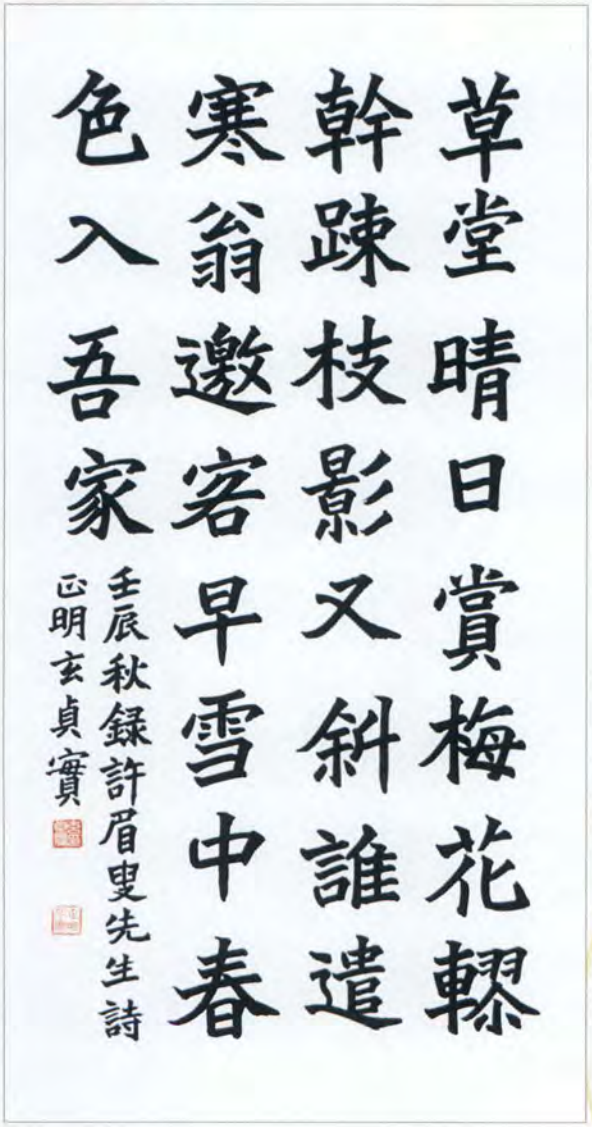
최우수상 홍영섭

우수상 조광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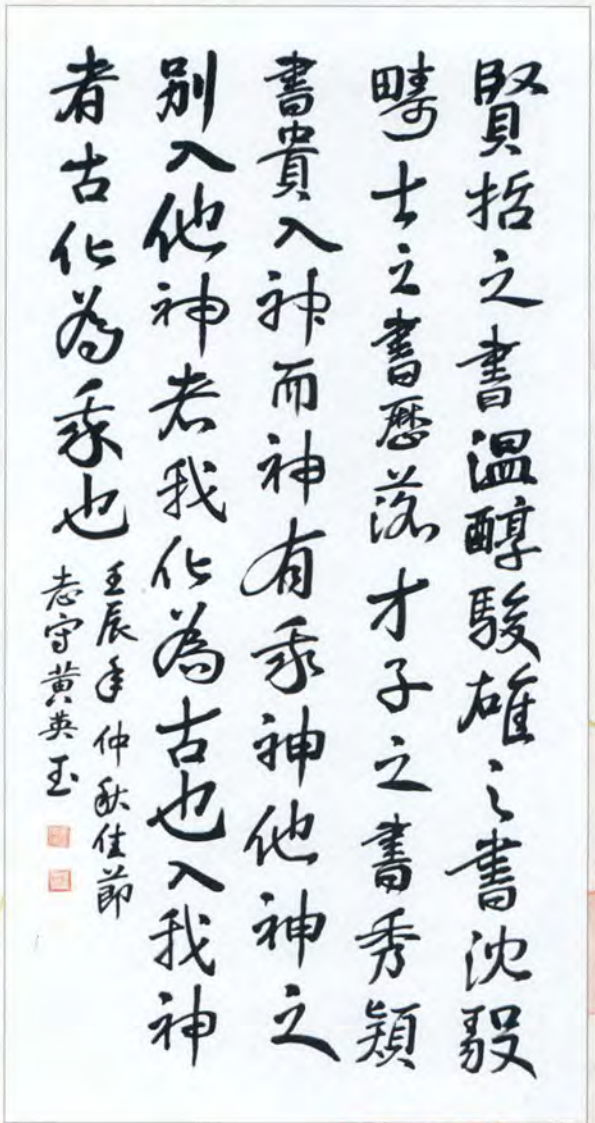
심사위원 프로필 **芝村 許龍 略曆**(충남 서산 출신)

단원예술제 심사위원, 전통예술 대상전 초대작가, 서울 미술제 심사위원, 한국문화 대예술제 심사위원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현대미술대상전 심사위원, 한국미술 '84' 대제전 심사위원
동경 아시아 미술제 심사위원, 세종미술제 초대작가, 한국서도학회공모전 심사위원
현대미술학회 문화상 수상, 전국 전통미술 공모전 심사위원, 전통미술공모전 운영위원장 역임
한성예술제 심사위원, 한국미술협회 회원, 도봉미술작가회 회장, 대한민국 미술협회 고문, 중국연변대학 명예교수
광명설법대학 교수, 강북 서예휘호대회 심사위원장 역임, 지촌 허룡 서화집 출판, 현재 지촌 서예실 운영

우수상 현정실



우수상 황영옥



역사문화유적 답사

연천문화원에서는 2012년도 선진지 문화유적답사를 지난 2012년 9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여행 코스는 서산의 해미읍성과 예산의 수덕사를 거쳐 서천에 있는 한산모시관을 들러보고 곧바로 목포로 가서 1박을 하였습니다. 1박 후 보성 녹차밭으로 가서 관람하였으며 다시 순천의 낙안읍성을 관람하였습니다. 낙안읍성이 비교적 짜임새 있고 실속있게 잘 꾸며져 있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진설명(위로부터 좌에서 우 차례로)

1. 역사문화유적 답사
2. 역사문화유적 답사
3. 역사문화유적 답사

1

2

3

4

5

6

사진설명(위로부터 좌에서 우 차례로)

4. 역사문화유적 답사
5. 역사문화유적 답사
6. 역사문화유적 답사

문화 바우처 사업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도에서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과 연천문화원이 주관하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후원하는 2012년도 문화 바우처 사업(사업명: 문화와 역사의 향기를 찾아 한바퀴)이 지난 8월 22일 관내 독거노인 및 조손가정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날 10시에 연천문화원 향토사료관 관람을 시작으로 당포성과 숭의전을 관람한 후 숭의전 앞 고려가든에서 중식을 하고 경순왕릉을 관람하였으며 파주 법원읍에 있는 율곡선생과 신사임당의 기념물이 전시된 자운서원을 관람하였다. 이날 행사는 고려가든에서 석식을 하는 것으로 종료되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을 위해 버스가 일일이 각 가정까지 모셔다 드리는 등 마지막까지도 세심한 배려를 잃지 않았다.

1

2

사진설명(위로부터 좌에서 우 차례로)

1. 문화 바우처 사업 8월 22일행사
2. 문화 바우처 사업 8월 22일행사

3

4

5

사진설명(위로부터 좌에서 우 차례로)

3. 문화 바우처 사업 9월 11일행사
4. 문화 바우처 사업 9월 12일행사
5. 문화 바우처 사업 9월 12일행사

제19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2013년도 경기도 민속예술제가 2013년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경기도내 31개 시 · 군중 29개팀이 참여하여 열띤 경연을 가졌다. 연천문화원에서는 임진강참게줄당기기를 출전시켜 열띤 공연을 펼쳤으며 소재의 참신성과 희귀성 그리고 참가자들의 열연에 힘입어 민속상을 수상하였다.

1

2

3

4

5

6

7

8

'신탄리역' 철도중단점의 시대 막을 내리다.

경원선은 일제시대인 1914년 8월 개통된 이래 용산역에서 북한의 함경남도 원산간 223.7㎞를 운행하며 한반도 중앙부의 주요 철도로서 많은 역할을 담당했으나 6.25 전쟁으로 비무장지대(DMZ) 주변 31㎞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약 60여년간 신탄리역을 종점으로 운행되어 왔으나 지난 2012년 11월20일 철원 백마고지역까지 5.6km 구간을 연장운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신탄리역에서 60여년간을 철도중단점으로 '철마는 달리고 싶다' 라고 세워져 있던 팻말이 강원도 철원의 백마고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소요산에서 연천읍까지의 철도 전철화계획과 연천에서 철원 동송까지의 철도화 계획의 일환으로 일단 백마고지역까지 47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복원하고 부분개통을 한 것이다. 이로써 신탄리역에서 볼 수 있었던 '철마는 달리고 싶다' 라는 60여년간의 신탄리역 종점시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사진설명(위로부터 좌에서 우 차례로)

1. 신탄리역(철도중단점 '철마는 달리고 싶다' 라는 표지가 사라졌다.)
2.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 경계를 통과하는 경원선 열차
3. 동두천역에서 출발한 경원선 열차가 54분후에 백마고지역에 도착하고 있다.
4. 백마고지역으로 이전한 철도중단점 '철마는 달리고 싶다'

특집 Ⅰ

화제의 지명

- 왕림리(旺林里) 본래의 지명은 왕림리(王臨里)
- 불견이 고개의 전설
- 웅연(熊淵)의 신서(神書)
- 열묘 각시 꽃봉
- 대전리 산성(매초성)

본래의 지명을 되찾아야 할 왕림리

왕림리(王臨里)가 치욕스러운 왕림리(旺林里)로 변하게 된 배경

왕방산 : 동두천과 포천 사이에 있는 왕방산의 명칭을 바꿨다는 팻말이다.

군남면 왕림리라는 지명을 가지게 된 것은 조선의 3대 임금 태종 이방원과 고려 진사 금은 이양소에 의해서이다. 원래의 왕림리(王臨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조선의 3대 임금 태종이 어릴 적 동문수학하던 옛 친구인 금은 이양소를 만나기 위해 연천을 찾게 된다. 금은 이양소는 고려 말의 문신이며 1382년(고려 우왕 3년)평소 친교가 두터웠던 동갑내기 이방원과 함께 사마시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었고 태학에도 같이 들어갔다. 결국 이방원과는 동기동창이고 직장동료이기도 한 셈이다.

그러나 이양소는 1392년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자 충신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이라는 곧은 절개와 신념으로 벼슬을 버리고 연천의

도당골이라는 곳으로 숨어들어 일체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은둔하며 살았다. '청구야담' 에 의하면 이런 이양소를 태종은 '물색(物色)' 으로 찾았다 한다. 물색이란 입은 옷이나 생긴 모양으로 더듬더듬 찾아간다는 뜻이다. 요즘말로 하자면 인상착의와 옷 색깔 또는 몽타주로 찾은 셈이 된다.

이렇게 어렵게 찾은 옛 친구를 그는 먼 길도 마다않고 서두르다 결국 개천에서 수레가 빠지게 된다. 이것이 오늘날 차탄천(車灘川)이라 불리는 연천읍 주위에 있는 냇가 이름의 유래가 된 것이다. 차탄천이라는 것은 수레가 빠진 개울이라는 뜻이며 수레울 또는 수레여울이라 부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물론 이와 인접한 동리 이름도 차탄리(車灘里)가 된다.

군남면 왕림리(王臨里)라는 마을의 이름도 이때에 붙여지게 된다. 태종이 이양소를 만나기 위해 이양소가 머물고 있던 도당골을 가던 중 이양소가 장진천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타고 오던 어가(御駕)를 다시 돌려 왕림리에 쉬면서 이양소를 기다렸는데, 당시 태종이 친히 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곳에 느티나무를 심고 정자터라 명명하였으며 마을 이름도 왕림리(王臨里:왕이 임하신 동리)라 지었던 것이다.

수치스런 이름의 역사를 가진 군남면 왕림리(旺林里)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旺林里)의 본래 이름은 왕림리(王臨里)이다. 현재의 왕림리(旺林里)라는 지명으로 변경된 시기는 일제시대인 1914년 조선 총독부에서 실시한 행정구역 통, 폐합 때 붙여진 이름으로 수치스럽게도 임금왕(王)자의 앞에 일본(日本)을 상징하는 날일(日)자가 들어 있다. 즉 "일왕(日王)"을 연상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민족정기를 훼손하고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은 일제시대의 잔재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이곳 왕림리만은 아니다.

비슷한 예로 경기도 의왕시가 있다. 경기도 의왕시(儀旺市)가 현재의 이름인 의왕시(義王市)로 한자 명칭을 되찾은 것은 옛 문헌과 금석문을 토대로 전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2004년 실시한 주민의견 조사에서 전세대의 83.4%가 한자 명칭을 당시의 의왕시(儀旺市)에서 현재의 한자 명칭인 의왕시(義王市)로 변경할 것에 대하여 찬성함으로서 시의회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5년 11월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2006년 2월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이 2006. 12. 22일 통과됐고 2007년 1월 19일 법률이 공포(경기도 의왕시 한자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2007. 2. 20)되어 고유지명인 "義王"을 되찾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의왕시가 명칭을 변경한 것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 의왕시민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의왕시 역시 일제시대인 1914년 행정구역 통. 폐합 시 수원군 의왕면(儀旺面)으로 개정이 되면서 거동의(儀)자와 왕성할왕(旺)자를 붙임으로서 마치 일왕이 거동한 것처럼 묘사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 우리 땅의 풍수적 기운을 말살하려는 시도는 서울의 인왕산과 포천의 왕방산(王方山)에도 있었다.

서울의 인왕산(仁王山)을 인왕산(仁旺山)으로 날조하듯 왕방산(王方山)도 일본을 상징하는 일(日)자를 덧붙여 왕방산(旺方山)으로 고쳐 부르게 하였다. 그러나 포천시 지명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일제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 지난 2009년 8월 19일 왕방산(旺方山)을 지금의 이름인 왕방산(王方山)으로 확정 고시하였다.

또한 현재 전곡읍 은대리에 있는 어수물(御水井)은 태종 이방원이 이양소(李陽昭)를 만나기 위해 연천으로 친행(親行)하던 중 이곳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마셨다 하여 이 우물을 '어수물'로 명명했다 한다. 이렇게 연천에는 태종 이방원과 금은 이양소에 얽힌 지명이 많은 곳이다. 왕림리(王臨里)라는 좋은 지명을 1914년 조선총독부에서는 현재의 지명인 "旺林里(왕성할旺 수풀林)"라고 표기함으로서 마치 일왕(日王)을 연상하게 한 것이다. 이 수치스럽고 일제의 잔재가 살아 있는 왕림리(旺林里)를 "왕림리(王臨里)"라는 본래의 지명으로 되돌려 민족정기를 바로 잡고 우리 연천군민의 자존심을 하루 빨리 되 찾아야 할 것이다.

불견이고개의 전설

佛見嶺, 佛峴

불견이 고개는 사기막골과 내산리 법화골 사이에 있는 큰 고개에 있는 고개이다. 『불교영험설화집』에 실려 있는 「심원사대종불사기(深原寺大鍾佛事記)」에 이 고개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온다. 고려 목종 때의 일이다.

연천군 보개산의 심원사에서 대종불사를 하는 데 많은 공덕승과 화주승들은 온 나라 안 각처의 단월가를 찾아다니면서 보시를 걷고 있었다. 각 고을 부녀자들은 쌀이나 돈뿐만 아니라 깨어진 가마솥이나 주발, 놋대접과 부러진 놋젓가락 같은 것을 있는 데로 찾아서 정성껏 보시를 하였다.

이때 대광리에는 이덕기라는 장님과 박춘식이라는 앉은뱅이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어려서

부터 다정한 벗이어서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이덕기는 어려서 열병을 앓다가 열이 과하여 장님이 되었고 박춘식은 홍역을 앓다가 소아마비로 다리가 오그라들어 앉은뱅이가 되어 버렸다.

이들은 늘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우리는 이런 몸을 받았을까" 하고 한 사람이 탄식을 하면 다른 한 사람이 또 받아서 "남에게 못할 짓을 전생에 많이 하였기 때문이겠지 금생에 받는 업을 보면 전생의 업을 짐작할 수가 있고 금생에 하는 행동을 보면 내생의 업을 짐작할 수가 있다지 아니한가?" 라고 한탄을 주고받다가는 "우리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 지경이 되었을 걸세 그러니 금생에는 좋은 일이나 많이 하세" 라고 착한 일을 많이 하자고 서로 위로하면서 약속을 하고는 하였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남에게 못된 짓을 전혀 하지 않고 남에게 도움이 될 착한 일만을 가려서 봉사하여 마을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덕문대사라고 하는 스님 한 분이 찾아와서 이덕기와 박춘식에게 "여보시오 시주님네! 적선 공덕 많이 하시오. 한 물건을 시주하면 반 물건이 생기는 일 부처님의 가호로 모든 재앙 소멸하고 현생에서 복을 받아 무병장수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가려고 하였다.

그 소리를 들은 이덕기가 "스님 우리 같이 죄가 많은 사람들도 부처님께 정성을 바치고 시주를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스님은 "있고말고요.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내 자식처럼 대하시므로 병신자식 둔 부모가 그 병신을 불쌍히 여기듯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게 정말입니까?" 박춘식이 정색을 하며 확인하고 싶어서 물었다. "부처님은 거짓말을 아니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여리고 어리석어서 의심하기 때문에 공을 이루지 못할 뿐이니 부처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으시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들은 이덕기는 눈이 번쩍 뜨여 밝은 세상을 보는 것 같고 박춘식은 다리가 곧장 펴져서 일어서서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하여 돈도 없고 쌀도 없고 또 보시할만한 쇠붙이도 없었다. 궁리에 궁리를 한 끝에 "자네나 내가 전생에 죄를 짓고 불구가 된 것도 원통하지만 박복 중생이라 오늘날 시주할

물건 하나 없으니 슬프지 않은가? 이렇게 앉아서 궁상을 떨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 화주스님과 같이 길거리에 나가서 시주를 걷도록 하자" 라고 이덕기가 말하니 걸을 수가 없는 박춘식은 "자네는 앞을 보지 못하고 나는 걸음을 걷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이덕기는 "좋은 방법이 있지 두 몸이 한 몸이 되면 되지 않겠는가? 자네는 걸음을 걷지 못해도 눈이 성하고 나는 보지 못해도 다리가 성ㅎ니 내가 자네를 업고 자네가 가르쳐 주는 대로 다니면서 저 화주승처럼 문전걸립(門前乞粒)을 하면 보시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하였다. 박춘식은 제 머리를 두드리면서 "정말 그렇구나! 난 참 미련도 하다." 하면서 기뻐하였다. 그리고는 즉시 그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거리로 나갔다.

이렇게 걸립을 하며 3년만에 전국 방방곡곡 논길 밭길을 헤매며 모은 재화를 화주승인 덕문대사께 바치니 덕문대사가 감격하여 그들을 감싸 안고 격려하여 주었다. 심원사의 대종은 마침내 조성되었고 절은 중수가 완료되어 모년 모월 모일 중수회향제와 대종 준공식을 한다는 소식이 널리 퍼졌다. 이덕기와 박춘식도 이 소식을 듣고 심원사를 찾아가서 축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연천을 거쳐서 가면 계곡을 끼고 산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길은 평탄하나 건너야할 냇물이 많아서 이 두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편하였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대광리에서 바로 험준한 고개를 넘어 질러가기로 하였다. 산에 오르기 시작하니 고개는 가파르고 장님 이덕기는 앉은뱅이 박춘식을 등에 업고 가려니 힘이 더욱 들어서 몸이 땀으로 목욕을 할 정도이고 입에서는 단내가 풀풀 나서 가슴이 터질 듯이 숨이 찼다.

그러나 이덕기는 덕문대사가 일러 준대로 "나무불(南無佛), 나무법(南無法), 나무승(南無僧), 나무대자대비관세음보살"을 수도 없이 외우면서 간신히 그 산마루에 올랐다. 이덕기의 등에 업혀있던 박춘식이 갑자기 "저기 부처님이 보인다!" 라고 소리치면서 이덕기의 등에서 내려 급히 달려가기라도 할 듯이 몸부림을 쳤다.

그 순간 박춘식의 다리는 저도 모르게 쭉 뻗어지면서 설 수가 있었다. 한편 장님인 이덕기는 박춘식의 부처님이 보인다는 외침에 놀라 저도 모르게 "어디? 어디?" 하면서 눈을 떠보려고 눈에 힘을 주었더니 놀랍게도 눈가죽이 찢어지면서 눈이 뜨이게 되었다.

두 사람은 뭉게뭉게 연꽃송이처럼 피어나는 오색구름 속에 감싸여 있는 부처님이 그들이 사는 마을 쪽을 큰 빛을 뿜어 비치는 황홀감에 빠졌다.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계속 그 부처님께 절하며 감사하는 중에 날이 저물고 밤이

지나 새 날이 되어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

그 뒤부터 그 큰 재를 '부처님을 뵌 고개'라 하여 '불견령(佛見嶺)'이라 하였고, 부처님의 광명이 크게 내려 비친 이덕기와 박춘식이 사는 마을을 '대광리(大光里)'라 부르게 되었으며, 불견산* 천광골* 대광산* 샛대광* 광대울이라는 이곳과 관련된 지명이 지금도 쓰이고 있다.

광대울쪽에서 바라본 불견이 고개

웅연(熊淵)의 신서(神書)

연천문화원에 건립된 석문 하석과 귀신이 쓴 글이라는 신서

웅연(괴미소 또는 곰소)은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 서쪽의 임진강변에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왕징면 강내리와 중면 삼곶리의 경계지점이다. 강내리의 동북쪽 임진강변의 단애(斷崖: 깎아지른 절벽)에 석문(石文)과 하석(下石)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으며 이는 신서의 위치를 일러 주는 암각문(岩刻文)이다.

이곳에서 동북쪽 강 건너에는 삼곶리 유적이 형성되어 있고, 남쪽 3km 지점에는 북삼리 유물산포지가 위치한다.「石文」은 자폭 21cm의 해서체로 비교적 큼직하게 새겨 있다. 이 암각문에서 약 4m 하단에는 '웅연석문(熊淵石文)'으로 알려진 기암(奇巖)이 있는데, 단애면에 새겨진 암각문의 내용은 이 신서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 웅연석문은 바위 표면에 평행선과 교차선 등의 각종 기하학적 무늬가 돌출되어 있다. 바로 이글을 미수 허목선생은 귀신이 쓴 글이라 하여 신서(神書)라고 하였다. (미수기언 제3권 242쪽에 수록)

미수기언을 그대로 인용해 본다. "나는 일찍이 웅연석벽(熊淵石壁)에서 돌에 새긴 이상한 글씨를 보았는데 그 글씨는 괴괴(怪怪)하고 기기(奇奇)하여 어떤 것은 내리 그었고 어떤 것은 가로 그었으며 혹은 합쳐지기도 하고 혹은 흩어지기도 하는 등 그 변화가 진정 놀라웠다. 돌은 푸르고 글자는 검으나 이끼는 끼지 않았다. 숭정(崇禎) 말년에 이 고을에 현감으로 온 사람이 돌을 깨고 몇 글자를 파내려고 두어 치쯤 깎아냈으나 석문은 그대로 있으니 또한 이상한 일이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요얼(妖孼) 즉 귀수(鬼祟)를 꾸짖었다고 하는 229자

또한 미수기언(眉叟記言) 본문(제58권) 국역본(제2권 199쪽)에는 요얼(妖孼) 즉 귀신을 꾸짖었다고 하는 229자의 기록이 있다. 직역을 하자면 (중간 생략) "... 귀신은 지극히 신령하여 이 뜻이 그침 없이 통할 것이니 오직 너희 귀신들도 올바른 도리로 우리 사람들에게 보답하여 서로를 침해하거나 모독하지 말아야 한다. 귀신과 사람이 화합하면 국가에 정해진 법이 있어 영원토록 풍성한 대우가 있을 것이나 요악(妖惡)으로 너의 덕을 어지럽히지 말고 재해(災害)로 사람을 괴롭히지 말 것이며 스스로 너 귀신의 수치가 되는 일을 저지르지 말라. 속히 거행할지어다. 신유(辛酉 4.25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미수(眉叟)는 또 석벽에 석문(石文)과 하석(下石)이라는 글을 새기고 경면주사(鏡面朱砂)를 칠해 놓았다. 이 경면주사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주(印朱)나 부적을 쓸 때 사용되는 붉은 색의 모래에서 채취한 것으로 한방에서는 아이들이 경끼를 일으키거나 하면 사용하는 약재이기도 하다. 또한 경면주사는 귀신의 횡액을 쫓고 재앙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각문에 칠해져 있는 붉은 색의 경면주사는 현재까지 선명하게 보였으나 지난 96년과 99년 대홍수때 암각문이 물에 잠기면서 약간 벗겨졌으나 일부에는 아직도 그 흔적이 붉게 남아 있다.

아마 앞으로 군남댐에 물을 담수하게 되면 이 신서는 영원히 물속으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다만 절벽 암반에 미수선생이 새겨 놓은 신서의 위치를 일러 주는 석문(石文) 하석(下石)은 담수를 하더라도 잠기지 않을 것이지만 연천문화원에서 수자원공사에 유적지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자 2011년10월 미수 허목선생이 단애에 새긴 석문 하석을 탁본을 뜬 후 원형대로 화강암에 새겨 연천문화원에 설치해 놓았다.

열묘 각시 꽃봉

백학면사무소 북쪽에 있는 작은 산봉우리. 석장리 차일봉에서 남쪽으로 쭉 뻗어 내려와 조그만 동산처럼 생긴 꽃봉에서 멈춘 3km에 이르는 긴 산부리가 마치 새의 주둥이처럼 길게 뻗어 나왔다 하여 그러한 지형을 일컫는 우리 고어인 '곶(串)'과 이 봉우리를 뜻하는 '뫼(山)'가 합쳐 '곶뫼'라 불리웠던 것이 한자로 지명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곶'을 '꽃(花)'으로 대역하여 지금의 '꽃뫼', '꽃봉'으로 불리우게 된 것이며, 주위에 있는 마을도 이 봉우리를 기준으로 하여 윗꽃뫼(上 花山洞), 아랫꽃뫼(下花山洞)로 잘못 표기되어 씌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이 봉우리에는 아래와 같은 전설이 전해 오고 있다.

고구려 때에 꽃봉 북쪽에 있는 높은골(高村洞)에 고을을 다스리던 관아가 있었는데,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원님의 부인이 바람이 나 외간남자와 간통을 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님은 분개하여 자기 부인을 처형, 꽃봉에 묻고 또 다시 이런 변이 일어나지 말라고 무당을 불러 자리걷이굿을 하는데, 무당의 점괘가 서남쪽 산 위에 있는 꽃모양의 바위를 흙으로 덮어야 후일 우환이 없어진다고 하여 원님은 무당의 말을 믿고 당장 그 바위를 흙으로 덮어 버렸다 한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 뒤로부터 이 산 아래에 있던 마을에 갑자기 괴질이 돌고, 가축이 이유없이 죽는 등, 온 마을 전체가 심한 병고에 시달리는 우환이 들끓기 시작했고, 다급해진 마을 사람들은 다른 무당을 찾아가 물어보니 그 이유가 꽃뫼에 꽃바위를 흙으로 덮어 산신이 크게 노한 까닭이라는 점괘가 나왔다. 이 말을 들은 꽃뫼마을 사람들은 이 꽃바위를 원래의 모습대로 파 헤쳐 놓자 그 즉시로 마을에 일던 재앙이 그쳤다 한다.

그러나 다시 재혼한 높은골의 원님 부인 역시 또 바람이 나서 외간 남자와 놀아나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안 원님은 둘째 부인도 처형하여 매장하려 이곳에 와보니 꽃바위가 모두 파헤쳐져 있어 무당의 말대로 다시 흙으로 덮어 버렸다. 그러자 꽃뫼 마을에 먼저와 같은 재앙이 계속 일어나 마을 주민들이 꽃바위에 다시 와보니 꽃바위가 흙에 덮혀 있으므로, 밤중에 흙을 모두 파 헤쳤다 한다.

그 후 이 바위를 놓고 꽃뫼마을과 원님이 사는 높은골 마을사람들 사이에 묻고, 파헤치고 하기를 10 여 차례 하다 보니 원님의 후취, 3취, 내지 10취까지 모두 간음한 죄로 죽어서 이 봉우리 정상부위에 원님의 부인 묘 10기가 즐비하게 늘어서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 후세 사람들은 이 봉우리를 '열묘(十墓)각시 꽃봉' 이라 이름 지었다 한다.

지금도 이곳에는 열묘각시의 묘가 있다 하며, 많은 사연을 간직한 꽃바위는 흙에 반쯤 덮여 있는 상태이다.

대전리 산성(매초성)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그리고 당의 야심

대전리 산성에서 내려다 본 전곡읍 시가지

서기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결국 백제는 멸망한다. 백제의 계백장군이 이끄는 5,000여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최후의 1인까지 목숨을 걸고 결사 항전을 하였지만 결국 나. 당연합군의 숫적 열세에 결국은 패망하고 만 것이다. 이후 백제의 의자왕은 당나라군의 포로가 되어 당나라로 끌려가고 만다. 이로서 기원전 18년 온조가 서울의 아차산 일대에서 나라를 세우고 약 700여년간 지탱해 오던 백제가 결국 멸망하고 만 것이다.

나당연합군은 백제를 멸망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드디어 고구려까지 멸망시키기 위해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으로 공격하기 시작한다. 나

당연합군의 합동공격에 처한 고구려는 설상가상으로 내분까지 겹치게 된다. 연개소문이 사망하자 연개소문의 큰아들 남생과 그 밑의 남건, 남산간의 권력싸움 등 내부 갈등이 심화되어 남생은 당에 항복하고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가 신라에 투항하자 신라와 당은 이를 틈타 668년 결국 고구려까지 멸망시켰다

이로서 기원전 37년에 건국된 고구려는 천년을 미처 채우지도 못하고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한 것이다.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는 신라마저 접수하기 위해 온갖 흉계를 꾸민다. 당나라는 백제의 고토에 5도독부를 설치했으며, 백제의 부흥운동을 은밀하게 지원했다. 그리고 고구려 멸망 후에는 9도독부와 안동도호부를 설치했다. 이에 대해 신라는 669년부터 옛 백제의 땅을 점령하였고,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하면서 당나라와 맞서게 된다. 드디어 신라와 당나라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신라는 668년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함락시키고 다시 고구려의 백성들을 받아들이고, 당나라 지배하에 있던 백제의 옛 땅을 점령하여 세력 확장을 꾀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당나라 고종은 크게 노하여 군대를 보내 신라를 공격하였다.

672년 8월 평양에서 황해도 배천까지 남하한 당나라군은 신라군의 반격을 받아 다시 석문으로 북상했다. 석문은 황해도 서흥에 있는 들판으로 이곳은 임진강을 건너 평양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다.

신라군은 석문 들판의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진을 쳤다. 의복, 원술 등이 지휘하는 신라군은 최선두에 대기병 방어부대 장창당(長槍幢)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라 중앙군단의 여러 부대를 적의 기병공격으로부터 막아주기 위한 것이었다.

예상대로 고간이 이끄는 당 기병단이 신라군 진영쪽으로 돌격해왔다. 먼저 신라 장창당의 최선두에 섰던 궁수들이 화망을 구성하여 화살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당의 기병이 가까이 접근하자 선두의 궁수들은 창을 땅에 고정시킨 장창보병의 대열 뒤로 숨었다. 이때 장창보병이 겨냥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말이었다.

당 기병의 선두대열이 장창보병에 걸려 낙마하자, 기병대의 흐름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신라의 장창보병이 기동력이 사라진 당 기병을 포위하여 대파하였다. 이때 장창당이 당병 3000명을 포로로 잡았다 한다. 그러나 이후 신라군은 장창당을 너무나 과신하게 되었고 다른 여러 부대들의 포진에 있어 긴장감이 떨어졌다.

당 기병이 이 허점을 노리고 다시 진격해왔다.

역습을 받은 신라군은 장군 의복을 비롯하여 대아찬 효선, 사찬 의문 · 산세, 아찬 능선 · 두선, 일길찬 안나함 · 양신 등이 전사하는 등 전멸하다시피 했던 것이다. 화랑 원술(元述)이 참전하였다 대패하고 일생을 숨어 살다가 태백산으로 들어가 후회 속에 산 것도 이 전투에서 비롯됐다. 화랑도의 정신인 세속오계 중 임전무퇴를 실천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아버지 김유신 장군에게 끝내 용서받지 못했다.

원술랑이 당나라 군대에 크게 패하고 군사가 원술랑의 투구를 가져오자 김유신은 아들이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한 줄 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들이 살아 돌아오자 분노한 김유신은 단칼로 원술랑의 목을 베려고 했으나 부인이 한사코 말리는 데다 죽이지 말라는 왕명도 있어 집에서 쫓아낸다.

신라와 당나라의 배신과 전투

매초성 전투란 문무왕 15년(675년) 가을 9월 29일 당나라 장군 이근행이 군사 20만명을 거느리고 매초성에 주둔했는데 우리 군사가 공격하여 쫓고, 말 3만380필을 얻었으며 노획한 병기도 이만큼이었다.(삼국사기)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낸 결정적인 승부처가 바로 매초성이었던 것이다. 왜 신라는 이 매초성에서 혈맹이었던 당나라와 건곤일척의 싸움을 벌였을까. 두 나라는 연합하여 백제(660년)와 고구려(668년)를 차례로 멸망시켰다. 그리고 사이좋게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려 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동상이몽이었다.

원래 당나라는 "백제 · 고구려를 평정하면 평양 이남의 땅을 모두 신라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파기했다. 신라군을 평양성까지 오라 가라 해서 계속 허탕을 치게 만들어 힘을 빼더니 668년에는 "신라가 군대의 동원기일을 어겼으니 신라의 공은 아무 것도 없다"고 선언해버린 것이다. 670년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김흠순이 백제 · 고구려 멸망 이후 강역을 나눈 지도를 가져왔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백제의 옛 땅을 백제 부흥군에 모두 다 돌려주도록 돼있었다. 신라의 배신감은 극에 달했다.

이때부터 신라는 야금야금 옛 백제 땅을 접수했으며, 급기야 그 영역이 고구려 남쪽에 이르렀다. 이에 화가 난 당나라군은 9월 설인귀를 대장으로 침공했으나 신라군의 반격을 받아 군사 1400명과 병선 40척, 군마 1000필을 잃었다. 설인귀가 도망가자 당나라군은 본때를 보여주겠다면서 20만대군을 동원한다. 그러나 신라는 매초성에 주둔한 당나라군을 공격하여 쫓음으로써 매초성 대첩을 이룬다.

이후 신라는 당나라와 벌인 전투에서 18전 전승을 거두었다. 당나라는 이듬해 2월 안동도호부의 치소를 평양성에서 요동성으로 옮겼다. 한반도에서 완전히 쫓겨난 것이다.

매초성과 원술랑

671년 당군 5300명을 깨고 백제고토를 회복한 신라는 이듬해 석문(황해 서흥)에서 당나라군의 반격을 받아 패퇴한다. 이때 비장(裨將 · 군사참모)이었던 원술랑(김유신 장군 2남)도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싸우다 죽으려 했다. 하지만 보좌관 담릉이 나섰다.

"대장부는 죽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죽을 곳을 찾아 죽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자 원술은 "사나이는 구차하게 살지 않아야 한다.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김유신)를 보겠느냐."

원술이 말에 박차를 가하려 하자, 담릉이 말고삐를 잡아당겨 질질 끌려가면서도 놓아주지 않았다. 원술은 끝내 되돌아서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보다 더 엄청난 고통이었다. 살아 돌아온 아들 원술을 김유신은 문무왕에게 이렇게 주청을 한다. "원술은 왕명을 욕되게 하였고, 가훈마저 저버렸으니 목을 베야 합니다."

아버지(김유신)가 아들의 목을 벨 것을 왕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원술은 왕의 특전으로 풀려났으나 아버지 김유신은 원술을 아들로 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였다. 요즘말로 하면 호적을 파버린 것이다. 이에 원술은 시골(田園)로 숨어버렸다. 이듬해 아버지가 죽자(673년) 원술은 어머니(지소부인)를 뵙기를 청했다. 하지만 어머니 지소부인 역시 단호했다.

"여자에겐 삼종지의(어려서는 부모에 의지, 결혼해서는 남편에 의지, 늙어서는 자식에 의지하는 것)가 있다. 지아비가 죽었으니 이젠 아들을 따라야 하나 아들이 아들 구실을 못했으니…."

원술은 가슴을 두드리며 통곡했지만, 어머니는 끝내 아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화랑으로서 불충과 불효를 저지른 원술에게 675년 매초성 전투는 와신상담의 일전이었다. 원술은 수치심을 씻으려 힘껏 싸워 큰 공을 세웠다. 하지만 원술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가 무슨 상이냐?" 면서 끝내 벼슬길에 몸담지 않았다.

이 매초성 전투는 신라와 당나라의 사기 어느 곳에도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신라의 장수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이 전투로 사망한 군사의 숫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당나라군의 전마(戰馬) 3만 380마리를 신라군이 노획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다만 **672년 석문에서의 패전 후 은거하던 원술랑은 이 전투에서 큰 활약을 했다고 하는 작은 기록만 있을 뿐이다.**

대전리산성이 매초성이다.

1979년 어느 날 연천 대전리산성을 몇 차례 답사했던 최영희 당시 국사편찬위원장 겸 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와 김철준 서울대 교수는 마음을 바꾸었다. 어느 모로 보나 이 대전리산성이 매초성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1년 전 매초성으로 비정된 양주 대모산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한 상황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바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을 선포하면서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웠다. 그에 따라 국수주의라 할 만큼 지나친 민족주의가 성행하였으며, 그 영향이 학계까지 미쳤다.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명목으로 고대의 전적지를 찾은 것이다. 신라가 크게 부각되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승전보로 꼽힌 것이 매초성 전투였다.

최영희 교수는 "한반도내에서 매초성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이 대전리산성 뿐이다. 지금 매초성이라고 주장하는 양주의 대모성은 너무 좁아서 당나라의 20만 대군이 주둔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만 대군이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한탄강이 흐르고 성이 드넓은 것으로 봐서 또 위치적으로 볼 때 이곳이 매초성이라는 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라며 예로부터 큰 물이 있는 곳의 지명은 '매' 자가 들어간다며 일례로 인천을 '매홀' 또는 '맷골' 이라고 했던 것을 예로 들었다.

경원선 철도와 3번국도가 지나는 곳에 자리잡고 있는 대전리 산성. 산성에 올라서서 전곡시가지 쪽을 굽어보면 산 아래쪽으로 흐르는 한탄강물의 깊이가 얕아서 군사들이 도강 장비 없이도 걸어서 또는 말을 타고 쉽게 건널 수가 있

대전리산성(매초성) 안내판

어 더욱 더 이곳이 매초성임을 짐작케 한다. 하지만 이곳이 당나라군 20만명을 격퇴한 매초성 대첩의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그동안 군사시설(참호와 벙커)이 들어서면서 성곽도 허물어지고 방치된 채 내버려지고 있다. 하루빨리 대전리산성의 발굴이 시급하기만 하다.

성곽일부(군 작전지역으로 많은 부분이 유실되었다.)

특집 Ⅱ

연천의 민속놀이

- 수레울 길놀이 한 마당
- 향토문화재 제 11호 미산성주걸이
- 연천 쌍겨리 소리

수레울 길놀이 한마당

조선 정조 13년(서기 1789년) 당시 경기도 관찰사이던 서유방(徐有防)은 연천의 차탄천이 늪과 택지(澤地)로 이루어져 장마가 지면 홍수 피해가 끊이지 않았고 가뭄이 들면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황무지로 버려졌던 곳을 당시 임금인 정조에게 진정하여 오늘날과 같은 하천으로 말끔히 정리를 하여 후일 마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선정비를 세우고 이것을 기념하며 당시 경기도 관찰사였던 서유방공에게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오월 차탄천에 모여 제례를 올리고 한바탕 길놀이를 펼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근거자료 [서유방의 선정비에 化流一道(화류일도)와 澤及殘縣(택급잔현)이라는 글을 새겨 이 비를 세우게 된 경위를 설명함]

차탄천(車灘川) 수레울이라고 하며 조선 3대 임금인 태종 이방원이 연천 도당골에 살고 있는 고려 진사 금은 이양소를 만나기 위해 개천을 건너다 수레가 빠졌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같은 사실은 연천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원로 노인들에게 일제시대까지 이 놀이가 이어져 왔으나 45년 해방이 되어 연천이 북한에 편입되면서 중단되었다고 한다.

수레울 길놀이 한마당 세부내용

• 행사의 시기

수레울 길놀이는 매년 오월 모를 심기 전 행

하여 졌다고 하는데 이는 경기도 관찰사 서유방 공의 선정비를 세운 조선 정조 13년 5월에 이 비가 세워졌음을 근거로 한다. 上之十三年己酉五月日立(상지십삼년기유오월일립)이라는 글귀가 선정비 뒷면에 새겨져 있어서 이 비를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농사철을 앞두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길놀이를 하고 제례를 올렸다고 한다.

• 행사의 주요 내용

사물놀이패들을 앞세우고 의관을 갖춘 제례관들과 함께 모두 열을 맞추어 지신밟기 등의 길놀이를 하며 풍악을 울리면서 차탄천에 준비된 제례 장소에 도착하면 서유방을 기리는 제례를 지낸 후 준비한 음식과 술을 마시며 한바탕 놀다가 다시 길놀이를 하며 귀가한다.

수레울 길놀이의 시나리오

풍물놀이 팀과 도포를 입은 제주(삼헌관)와 집사 등이 풍악에 맞추어 길놀이를 하며 차탄천의 제례 장소로 향한다. 제례 장소에 다다르면 준비해간 제수를 진설하고 위패를 모시고 향을 피우며 축문을 읽는다.(이때에는 모두 무릎을 꿇고 축문 읽는 것을 경청한다.)

축문이 끝나면 제주인 초헌관이 앞에 나가 잔을 올리고 두 번 절을 한다. 이 후 종헌관과 아헌관이 모두 차례로 잔을 올리고 절을 하여 제례를 끝낸다. 제례가 끝나면 준비해간 술과 안주를 내어 놓고 여럿이 함께 먹으며 이때에는 풍물놀이 팀이 신명나는 사물놀이를 하며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모든 행사가 끝나면 제례 용품을 모두 거두어 귀가할 준비를 하며 귀가할 때에도 사물놀이패들은 풍악을 울리며 돌아온다.

향토문화재 제11호
미산성주걸이

미산 성주걸이는 1989년 9월22일 향토유적 제11호로 지정이 되었다. 예로부터 새로 집을 짓거나 이사를 한 뒤 집을 지킨다는 가신(家神)인 성주를 받아 들여 모시는 안택신앙(安宅信仰)의 놀이인 성주걸이는 집안의 부귀번영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 1980년대 유촌리의 고(故) 이재순씨에 의해 발굴된 미산 성주걸이의 놀이구성은 전체 네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마당은 지관에 의해 집터가 정해진 곳에 일꾼들이 풍물을 치며 모여 농악과 춤이 벌어지는 앞 놀이가 벌어지고, 이어 둘째 마당은 집터에 고사를 드린 후 일꾼들이 '당겼나 당겼지, 두리산 나린줄기 – 당겼나 당겼지' 로 시작되는 앞소리와 뒷소리의 메기고 받는 것에 맞춰 가래질을 하며 집터 닦기와 힘찬 율동의 지경다지기가 이어지는데 이때 가래질소리와 지경다지기 소리가 길게 이어진다.

셋째 마당은 집을 짓는데 필요로 하는 각종 재료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 때 일꾼들이 힘을 덜고 능률을 올리기 위해 노동요를 부르며 모든 작업이 진행된다.

이어 집이 완공되면 네 째 마당이 시작되는데 주인은 고사덕담으로 성주받이굿을 드린 후 온 마을 사람들과 새집에 잡귀와 잡신이 나타나지 않도록 준비된 술과 음식을 나누며 한마당 어울리는 마지막 넷째 마당놀이를 흥겹게 벌이면서 모든 연희과정을 마친다.

성주걸이의 세부내용

지경다지기는 옛날에 경복궁 등 대궐을 지을 때 주춧돌을 놓을 자리를 다지며 시작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그 후로 민가에서도 집을 지으면서 지경다지기를 했다고 한다. 집을 지을 때에는 집터를 선택하고 지관을 불러 삼살방과 골쌀을 피하고 적당한 자리에 집터를 잡으면 집주인은 일꾼들을 불러서 가래로 집터를 돋운다.

이때 가래질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다. 주로 가래를 밀고 당기면서 주고받는데 먼저 가래장부를 메기는 사람이 '당겼나?' 하고 메기면 가래줄을 잡은 사람들은 '당겼지' 하면서 받는데 이때 부르는 노래는 다음과 같다.

계명산 내린 줄기 학의 등에 터를 닦네.
부자 되고 장자될 때 만복이 돌아드네.
절구통 복은 굴러들고 멍석복은 말아드네.
두꺼비 복은 뛰어들고 구렁이 복은 기어드네.
학의 복은 날아들고 성주복은 뫼셔 드네.

이렇게 주고받으며 가래질이 끝나면 지경을 다지게 되는데 지경을 다질 때는 절구통에 동아줄을 매는데 이때의 동아줄은 짚으로 꼬아서 일곱 가닥으로 매고 한 줄에 세 명씩 잡고 지경을 다진다. 지경을 다질 때는 밤에 광솔불을 켜놓고 수수팥떡을 해놓고 지경을 다진다. 이때에 부르는 노래는 다음과 같다.

받는소리는 "에이여라 지경이요." 하고 메기며 메김소리는 다음과 같다.

이 터전 네 집을 짓고 천년만년 왕가로다.
새 성주를 모셔놓으니 성주 본이 어드멘고?
경상도 안동 땅에 제비원이 본일레라.
제비원에 솔씨를 받아 대솔씨도 닷말이오.
소솔씨도 닷말이오, 중솔씨도 닷말이라.
삼오십오 열닷말을 연평대평 쑥 들어가.
여기저기 뿌렸더니 바늘솔이 되었구나.
중보동이 되었구려 대보동이 되었도다.
청장목이 되었도다 황장목이 되었도다.
돌이 기둥 길러 놓으니 그 재목을 내리려고.
서른네명 연군들이 대산에 올라 대목내고
중산에 올라 중목내고 원근산에 칡을 끊어
얼기설기 떼를 엮어 양기 양천 흐르는 물에
둥기둥실 띄워놓고 고사봉아 흘러가는
이 물결의 물은 점점 늘어가네.

지경을 다지는 일꾼들이 절구통을 높이 들어 지경을 다질 적에 "에이혀라 지경이요." 하면서 끝을 맺으면 목수들이 집을 짓고 새 성주를 모시는데 무당을 들여 성주걸이 굿을 한다.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지경다지기를 하던 절구통을 엎어 놓은 후에 쌍날 작두를 잘 갈아 절구통위에는 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 올려놓고 모말에 쌀을 담아 동이 위에 올려놓은 후 작두를 모말 위에 올려놓고 두 사람이 양편에서 작두를 잡으

면 무당이 신이 나서 덕담을 하다가 작두위에 선뜻 올라선다.

무당은 작두위에서 덕담을 하는데 "이 터전 네 집을 짓고 부자 성주 모셔노니 좌청룡 좌백호, 우청룡 우백호, 성주 대주거리 몸주 성주 가주거리, 직성성주, 업성주, 복성주 흙 한 삽 뚝 떠내서 인업일양 다칠세라. 대지업도 다칠세라." 하며 신명나는 성주걸이 굿을 한 마당 펼치게 된다.

미산 성주걸이는 1986년도 제5회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인기상을 수상했으며 군민의 날 행사에도 출전하는 등 지방문화제 제11호로 지정이 되었으나 현재는 무당이 거의 없어지고 한동안 뜸하며 잊혀져 가는 민속놀이가 되었으나 이제는 다시 복원을 하여 연천의 향토문화제로 되살려야 할 것이다.

연천 쌍겨리 소리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소를 이용한 농사 방법 쌍겨리

우리 연천에서는 옛적부터 소 두 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아왔다. 대개 평지가 아닌 비탈진 밭이나 돌이 많은 밭에서는 소 한 마리의 힘만으로는 제대로 밭을 갈 수가 없으므로 두 마리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쌍겨리라고 한다. 그러나 흙살이 좋고 돌이 별로 없는 논은 소 한 마리를 이용한 쟁기로 논을 갈아 왔다. 현재는 경운기나 트랙터를 이용하여 능률도 뛰어나고 순식간에 소로 가는 것보다 몇 배나 빠르게 갈 수 있으니 세상은 참으로 좋아졌다.

쌍겨리를 이용한 밭갈이는 주로 가을걷이가 끝나고 보리나 밀밭을 가는데 쓰인다. 이때 밭을 갈며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이를 쌍겨리 소리라고 한다. 이때 한쪽에서는 경부(쌍겨리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가 소 두 마리를 부리며 밭을 갈때 노래를 하는데 이를 일명 게나리 소리라고도 한다.

"이려 외나." 여기서 외나라는 말은 밭을 가는 사람의 오른쪽에 있는 소를 말하며 안소라고 하는데 이 안소를 '외나' 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소를 마라소라고 한다. 마라소를 통상 '마라' 라고 한다. 게나리 노래는 길게 넋두리처럼 길게 청승스럽게 한다. 쌍겨리는 세 마당 놀이로 밭갈이, 심금질하기, 농악놀이 등 모두 세 마당으로 짜여져 있다.

게나리 노래는 다음과 같다.

"이려! 외나 외나 외나루 이소 외나루 가자! 이려! 마라 마라로 가자! 이려! 이소야 금바로 가자. 장대같이 곧은 발이랑 활등같이 굽어진다. 네 팔자는 한생 져리소요. 내 팔자는 밭갈이 하는 경부 팔자란다. 이려 이소 쌍져리 갖춰 메고 안탑은 엎어 잡고 마라탑은 자처잡고 두리 둘둘자 갈아 보자."

"이 소들아 어서 가자 초승달은 반달인데 저 넘어 산을 홀러덩 잘도 넘어 가는데 너희

들은 네 다리로 왜 이렇게 못 가느냐? 이려! 이 소 외나 이 소야 높은 돌은 돌려 딛고 얕은 돌은 넘어가자. 이 소들아 너희들은 늙어 죽어지면 양반상에 올라앉지만 우리 인생 죽어지면 북망산천에 깊숙이 응~ 응(비음) 늙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야지."

"외나외 이 소들아 가대지 말아 홍두깨같이 곧은 밭이랑 다 망가진다. 마려 마라 이 소 일곱발 멍에줄은 엎어 걸고 잦혀 걸고 한 멍에 둘러메니 이것이 한 짝이다. 외나루 이소야 타 나갈때는 이 안소 네가 좀 앞서가고 마라 들어올때는 이 마라소 좀 나서다고. 이 소 너 잘가고 나 잘갈면 하루갈이 밭 한떼기가 나잘 한참이면 다 갈고 가자."

이렇게 밭을 갈고 심금질을 다 한 후에 소를 풀어 놓으면 소는 소끼리 소싸움을 하고 한편에서는 농악을 한바탕 신명나게 하면 이것이 한 마당 놀이였다.

특집 Ⅲ

연천의 역사적 인물

- 현가리(가무사리) 홍현상 선생의 잠종(蠶種) 제작소
- 구한말 13도창의군 의병 3분견대장 심상우 의병장
- 조선 초대 참지문하부사(영의정) 임구 묘소 및 신도비

현가리(가무사리) 홍현상 선생의 잠종(蠶種) 제작소

조선후기와 일제강점기 양잠업의 메카 연천

연천읍 가무사리 출신인 홍현상 선생(조선 고종 출생 6. 25때 북한으로 납북)은 조선 후기 연천에서 연천면장을 하고 있었으나 개화사상이 투철했던 홍현상선생은 가난한 농촌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일제에서 적극 장려하던 잠업을 연천에 퍼뜨리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하여 잠업 기술을 배우고 돌아왔다.

연천으로 돌아 온 홍현상 선생은 잠종(蠶種: 씨를 받을 누에의 알)에 큰 관심을 갖고 잠종 작업에 온 힘을 기울여 연구를 하며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그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잠종제작에 성공을 한다. 잠종제작에 성공을 한 홍현상씨는 이의 보급을 위해 직접 잠사(潛舍)를 짓고 당시 가난한 농민들에게 잠업을 하여 살림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잠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면서 이들에게 잠업기술을 가르쳤다.

홍현상 선생

농촌 살림이 먹고 살기에만 급급했던 당시에는 밭에 곡식이외에는 다른 작물을 심을 엄두도 못 냈으나 당시로서는 상당한 돈벌이가 되는 잠업에 힘입어 가무사리 주변에는 온통 뽕나무 밭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 집집마다 누에덕장을 만들고 누에를 치기에 온 가족이 매달려 먹성 좋은 누에에게 뽕잎을 한 잎이라도 더 먹이려고 안간

힘을 썼다. 연천에서의 잠업사업은 이렇게 해서 들불처럼 번지게 된다.

이곳 가무사리에는 일제 당시에 지어진 반 지하 창고가 현존하는데 이 창고는 뽕잎이 피어나는 시기(5월)에 맞춰 누에의 부화를 늦추는 일종의 지하 냉장창고라는 설명이다.

당시 연천에는 현 연천중고등학교 자리에 양잠업을 가르치는 부녀강습소가 있었다고 한다. 경기도 각 지역의 군수가 추천하는 부녀자들을 엄선하여 특별교육을 시키는 곳이었는데 경쟁률 또한 만만치 않아 웬만한 사람들은 입학을 하기도 어려웠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해방 이후 인공시절에는 중학교 과정의 연천농림잠업학교라는 명칭으로 불리다가 수복이 되면서 연천중학교로 개칭되었다.

(※ 고증 홍기수 당80세 신망리 거주)

또한 홍현상선생의 장남 홍기창(농학박사)씨는 1961년부터 1965년까지 고려대학교 농과대학장으로 재직하였다. 홍기창박사는 1920년 5월 26일 경기도 연천군 연천면(현 연천읍)현가리 350번지(가무사리)에서 출생하여 1932년 연천공립보통학교(현 연천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39년 경성제일공립보통학교(현 중학교 과정)졸업, 1941년 수원고등농림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유학하여 교토제국대학 농학부 농학과를 졸업한 우리

일제시대에 지은 홍현상씨 농장 부근의 잠종 창고

나라의 몇 안 되는 근대농업의 선두주자로서 한국 농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 분이다.

홍기창박사는 1943년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교육계에 평생을 헌신하였고 농업과 관련된 수많은 논문집과 저서를 남겼다. 고등학교 농업교과서인 '고등농업 1.2.3'을 비롯 '농업통론' 등 총 24권의 저서와 '우리나라 야생두과(野生豆科) 식물의 사료가치에 관한 육종적 연구' 등 16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고 농민신문 등 언론에 '횃불' '사랑방' 등의 논설문을 게재하기도 하였으며 농촌계몽운동에 헌신하였다.

홍기창박사는 연천출신으로 일제시대 때에 농학박사 학위 취득과 대학의 학장을 역임하는 등 연천 출신으로는 보기 드문 농업교육계의 거목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근대농업을 위해 헌신하던 홍기창박사는 2000년 12월 12일 향년 80세에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구한말 13도창의군 의병 3분견대장 심상우 의병장

연천 출신의 유일한 의병장 심상우

심상우(沈相禹) 의병장은 청송심씨(靑松 沈氏) 안효공(安孝公) 심온(沈溫)(세종대왕의 장인)의 18대손으로 1883년(계미년)에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에서 부친 심응택(沈應澤)과 모친 풍천 임씨(豊川 任氏)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작은 아버지 심성택에게 후손이 없자 심상우는 어린 시절부터 작은집으로 양자를 가게 된다. 작은 어머니 양성 이씨(陽成 李氏)의 손에서 자란 심상우는 어려서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품이었으며 애국심이 남달리 강했다고 한다.

심상우는 소년시절 왜놈들이 가르치는 왜놈의 학교에는 다닐 수 없다는 생각에 보통학교(소학교, 오늘날의 초등학교)로의 입학을 거부하고 독학을 하였으며 향교를 다니면서 한학공부에 전력을 다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항시 일본에 반감을 품고 때를 기다리던 심상우는 마침내 일본에 반기를 들 기회가 찾아 왔다.

당시 국제 정세와 국내정세로는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을 계기로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고, 이어 군대가 해산되자 왕산 허위선생은 13도 창의군을 모집하고 청량리에서 동대문까지 진격하였으나 사전에 기밀이 새어나가 일본군은 동대문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바람에 허위 부대는 뿔뿔이 흩어져 양주를 거쳐 그 해 9월 연천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왕산 허위선생은 그 뒤 임진강 · 한탄강 유역을 무대로 조인환(趙仁煥) · 김수민(金秀敏) · 김응두(金應斗) · 이은찬. 연기호의 의병부대와 함께 연합부대를 편성하여 일본군과 유격전을 벌이고 매국노를 처단했다. 당시 왕산 허위의 의병부대는 임진강 연합부대를 조직하여 연천지역과 마전군, 삭녕군, 포천의 일부, 그리고 적성지역 등에 있던 거의 모든 일본군 주재소 및 면사무소 등 행정관청을 점령한 후 중앙정부(조선총독부)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의병이 모든 행정을 관할하며 세금을 거두고 의병군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군량 확보를 위해 지방인의 납세와 미곡의 반출을 금지시키고, 의병들의 군사훈련과 무기 제조를 통하여 전투력을 강화하였다. 1908년 2월에는 경기도 가평의 의병 4,000~5,000명이 군사훈련을 하면서, 군수품을 만들고 유격전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들이 필요한 모든 물자는 군표(軍票)로 조달하였다.

이때에 심상우 의병은 왕산 허위선생의 의병모집 격문을 보고 자진하여 의병에 입대하였고 이 부대에서 3분견대장(파견대: 派遣隊라는 뜻으로 오늘날의 소대장이나 중대장 급)이라는 직책을 맡고 부하들과 함께 일본헌병대와 경찰 주재소 등을 습격하며 크고 작은 접전을 벌이게 된다.

당시 연천지역에서 의병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을 살펴보면 총사령관 허위를 비롯해서 연기호, 이은찬, 김민수, 김연성, 황재호, 김관식, 박종환, 강기동 심상우 등이 이끄는 부대들로 이들 의병부대들은 적게는 20~40명의 오늘날의 소대급 분견대와 60~70명 등의 중대급 분견대, 많게는 200명에서 400명에 이르는 대대급 부대들로 만일 적은 인원으로 싸운다면 일본군에 습격당하기 쉬워 이들은 항시 조를 짜고 단체 행동을 하였다.

이들은 구식 화승총이나 이를 조금 개조한 장전식 화승총 등으로 당시 일본군이 무장했던 연발총이나 신식총에 비해 장비면에서 매우 열악했지만 이들은 일본 헌병분견대나 수비대, 주재소 등을 유격전방식으로 습격하여 많은 타격을 입히기도 하는 등 크고 작은 전투를 벌이며 일본군들을 괴롭혔다.

열악한 무기와 숫적 열세로 밀리는 의병부대

일본군 토벌대보다 열악한 무기로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르던 심상우 의병부대는 1908년 10월 15일 백석리의 가루재(금바위에서 두리산으로 넘어가는 고개)에서 일본군과 격렬히 맞서 싸우다 동료, 부하들과 함께 끝까지 저항을 하였으나 가루재 바위틈에서 일본군이 쏜 총탄에 맞아 장렬히 전사하였다.(참고문헌, 연천군지 상권 364쪽) 가루재 고개를 넘으면 곧바로 두리산이며 이 길로 해서 삭령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다. 일본 헌병대와 싸우면서 숫적 열세와 열악한 무기로 계속 밀리자 당시 삭령군의 의병들과 다시 집결하기 위해 이곳 가루재까지 온 것이 아닌가 쉽게 추정할 수가 있다.

심상우 의병장의 어머니 양성 이씨는 피로 얼룩진 아들의 군복을 유촌리 앞 개천가에서 빨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렸고 결단코 아들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루빨리 조선이 독립되기를

심상우의병장의 묘소로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 산 123번지에 있다.
원내는 심상우의병장의 장조카 심준섭씨이며 현재 묘지를 관리하면서 제사를 모시고 있다.

기원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통곡을 하였다고 한다. 당시 일본군들은 의병들을 마치 산짐승 몰이 하듯 몰아 붙였고 숫적 열세와 구식 소총인 화승총, 단발총 등 무기의 열악함으로 인해 의병들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으나 이처럼 필사즉생(必死卽生)의 신념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것이다. 일본군의 흉탄에 맞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저 보내고 그 아들의 피로 범벅이 된 자식의 군복을 빨아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는 마음에 참으로 비통하고 원통하기 그지없다.

당시의 언론 기사를 찾아보니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20일자의 기사를 보면 [개성부 관내에도 의병이 전에 비해 번성하여 마전군, 연천군, 삭녕군 등지에 의병장 연기호가 이끄는 부하 수 백명이 출몰하여 일본 토벌대와 수 차례 충돌하였는데 의병은 다갈색 복장을 하고 무기는 신식총, 단발총이 많으며 화승총도 각각 휴대하였다.] 라고 기사가 씌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심상우 의병장은 1908년에는 연기호가 이끄는 의병부대에 소속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같은 해 10월 31일자 대한매일신보의 기사에 [본월 15일 마전군 서북방면 3리 신촌에서 의병 20여명이 분견대 헌병 2명 보조원 3명과 교전하였다.] 라고 기사가 씌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마전군 서북방면이라면 백석리로 추정이 되며 바로 이 기사가 심상우 의병장이 일본의 흉탄에 쓰러진 기사가 아닐까 추정된다. (당시 유촌리와 왕징면 무등리, 노동리도 마전군이었다.)

연천 출신의 유일한 의병장인 선생의 묘소 관리가 시급하다.

심상우 의병장의 이러한 애국적이고 장한 기개와 순국에 대하여 아직껏 어떠한 자료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사실로 뒤늦게나마 이를 널리 알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국가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선생의 묘소에는 비석이나 비문도 없고 찾아가는 길에 안내판도 없으며 묘지도 허술하기 그지없다.

공의 묘소는 현재 친조카(심준섭 당80세)가 불편한 몸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해당 관청에서는 연천군 출신의 유일한 의병장 묘가 이렇듯 허술하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하루빨리 묘비도 세우고 안내판도 설치하여 이런 애국적이고 훌륭한 역사를 후세에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심덕보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분견대(分遣隊 : 오늘날의 파견대와 같은 뜻으로 육군의 최하위급 조직인 분대(하사가 분대장)와는 전혀 다른 조직임, 작은 조직인 분대급으로 파견이 될 경우 기습을 당하면 적은 인원으로 전멸 당할 위험이 많아 소대급 이상으로 편성되어 중요 장소에 배치되었음, 그러므로 심상우의병장이 당시 맡았던 직책은 중대급 파견인가, 소대급 파견인가, 여부에 따라 오늘날의 중대장이나 소대장급이며 계급으로 따지면 소위 또는 중위, 대위 정도의 계급으로 봐야할 것임

조선 초대 참지문하부사(영의정) 임구 묘소 및 신도비

소재지 : 연천군 중면 합수리 621 정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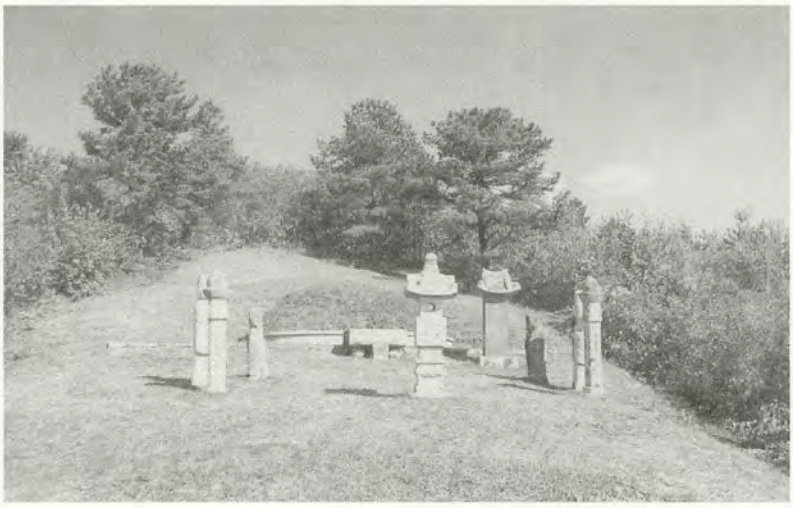
신도비 제막식 광경

문하부사란 고려시대의 문하시중을 조선 개국 초기에 칭하던 벼슬로 지금의 국무총리급에 해당하는 벼슬이며 조선초기에는 문하부사라고 칭하다가 세종조에 이르러 영의정이라고 개칭하였다.

원래 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 임구(任球)의 묘소에는 신도비와 재각이 있었으나 오랜 세월이 흐르고 6. 25와 같은 전란 중에 유실되고 말았다고 한다. 민통선 북방에 위치하여 오랜 기간 손을 쓰지 못하여 안타까이 여기던 종친회에서는 지난 2012년 11월 14일 많은 종친들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신도비 제막식을 가졌다.

신도비문의 주인공인 풍천임공 휘(諱) 구(球)의 시초 이름은 군옥(君玉)이었으며 시조 온(溫)의 9세손이다. 공은 일찍이 학문에 통달하여 조선 초대 임금인 태조의 소년시절에 국사(國師) 즉 스승을 지냈다고 하며 조선초에 참지문하부사를 역임하였고 재임 중의 공로로 이곳 연천군 중면 합수리 일대 약 90만여평을 국왕으로부터 사패지(賜牌地)로 하사받았다고 한다.

묘역은 1963년 후손들에 의하여 봉분의 호석. 문관석. 묘비. 장명등이 새로 건립되어 원래



조선국 자헌대부 참지문하부사 임구의 묘소

석물인 상석(123X 87X 32Cm). 향로석, 두 기의 문관석(108Cm), 망주석 등과 함께 배치되어 있다. 공의 묘소는 조선 초의 개국공신이자 풍수지리계의 대가인 무학대사가 선정하였다고 한다.

참고로 연천지역에는 왕징면 강내리에 있는 통정 강회백의 묘와 중면 적거리에 있는 고려 진사 금은 이양소의 묘, 문하부사 임구의 묘까지 무학대사가 선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천문화 17호

전설과 설화로 보는 연천의 지명유래

- 연천읍
- 전곡읍
- 군남면
- 청산면
- 백학면
- 미산면
- 왕징면
- 신서면
- 중 면
- 장남면
- 삭녕면
- 서남면

연천읍 漣川邑

연천군 2읍 8개 면의 하나이다. 이 읍은 본래 연천현의 현내면(縣內面) 지역으로, 읍내리(邑內里) · 지혜동리(智惠洞里) · 동막리(東幕里) · 무수동리(無愁洞里) 등 4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조선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현내면을 군내면(郡內面)으로 개칭하고 읍내(邑內) · 지혜(智惠) · 차탄(車灘) · 통현(通峴) · 동막(東幕) · 고문(古文)의 6개 동리로 개편 관할하였다가, 1914년 4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면(東面)의 와초(瓦草) · 옥산(玉山) · 현가(玄加) · 상리(上里) 등 4개 동리를 병합하여 와초 · 옥산 · 현가 · 상 · 읍내 · 차탄 · 동막 · 통현 · 고문의 9개 리로 개편 관할하였으며, 1938년 1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28호"에 의하여 군내면을 연천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 · 15 광복 직후에는 연천면 전지역이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6호"에 의하여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에는 "대통령령 제12557호"에 의하여 포천군 관인면의 부곡리를 새로 편입하여 10개 리로 개편 관할하여 오늘에 이른다. 읍의 동쪽은 포천군 관인면, 남쪽은 전곡읍과 청산면 · 포천군 창수면, 서쪽은 군남면과 중면, 북쪽은 신서면과 경계가 되는 연천군 행정의 중심지역이다.

1. 와초리(瓦草里)

본래 연천현 동면(東面)의 지역으로, '기새'라는 마을이 있어 한자로 음을 빌어 와초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군내면에 편입되었고, 1945년 8 · 15 광복 직후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1개의 행정리, 6개 반,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의 지역이 민간인 미입주 상태에 놓여 있다.

2. 상리(上里)

본래 연천현 동면의 지역인데, 조선 고종 32년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좌찬리(左贊里)라 하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웃골'에

서 이름을 따 '상리'라 하여 군내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15 광복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휴전 직후 수복 당시 이곳에는 미군들이 집을 현대식으로 반듯하게 지어 주민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잘살라는 뜻으로 신망리(新望里)라는 동네 이름을 지어주었으며 현재의 신망리역도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2개의 행정리, 20개 반,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3. 현가리(玄加里)

본래 연천현 동면의 가척리(加尺里)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가재울(加尺洞)과 가무사리(玄沙洞)를 병합하여 현사동의 "玄"자와 가척동의 "加"자를 따서 현가리라 하여 군내면의 편입되었으나, 1945년 8·15 광복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1개의 행정리, 10개 반,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4. 차탄리(車灘里)

본래 연천현 현내면의 지혜동리(智惠洞里)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장진천에 있는 수레여울에서 이름을 따 지혜동리를 차탄리로 명칭 변경을 하여 군내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15 광복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4개의 행정리, 35개 반,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고 군청, 경찰서 등의 행정관청이 위치하고 있어 연천군의 중심지가 되어 있다.

연천군청 향나무

연천군청사 앞뜰에 있는 향나무.

일제 강점기 때와 현재의 크기가 차이 없다는 촌노들의 증언으로 보아 정확한 수령은 알 수 없으나 약 300년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 12m, 둘레 2m 크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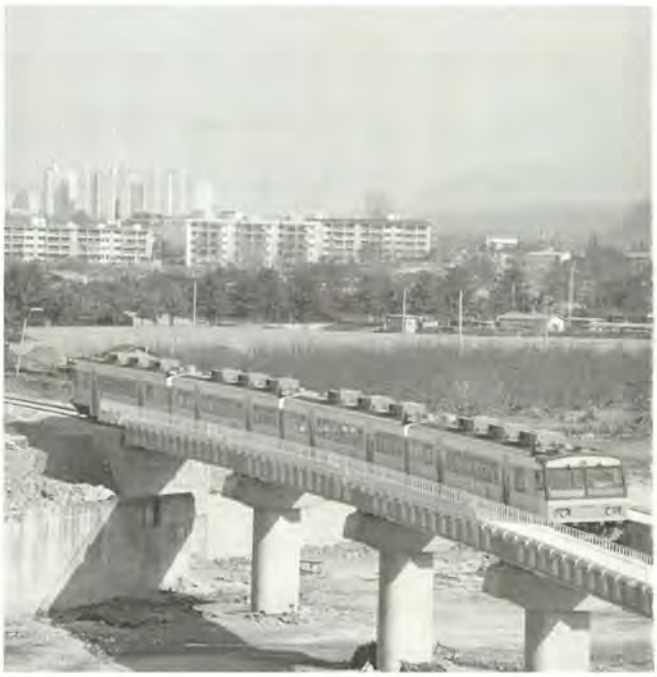
6·25로 연천시내 전역이 건물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폐허가 되었을 당시 연천역의 급수탑과 이 나무만이 가지 하나 상하지 않고 푸른 모습으로 의연하게 남아 있었다 한다. 특히 일제 강점기 때 일본으로 징용을 끌려 갔던 우리 고장 출신의 재일교포가 모국 성묘단으로 고향을 방문했을 때 예전의 마을 형체는 찾을 길

이 없이 변해 있었으나 이 향나무만은 변함없이 서 있어 향수를 달랬다는 일화와, 6 · 25 때 고아가 되어 미육군 장병들의 보호를 받던 재미교포 청년이 모국을 방문하여 이곳에 와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였으나 모든 것이 변하여 기억할 수 없었고, 임시 미국군 부대였던 군청터의 이 향나무에 올라가 놀던 때가 생각난다고 눈물짓는 이도 있었다 한다.

지금도 사시장청 무성한 모습으로 연천 수난의 역사를 묵묵히 대변해 주고 있는 유서 깊은 나무이다.

경원선과 연천역

경원선은 서울의 용산역에서 의정부, 연천, 철원, 안변을 거쳐 원산에 이르는 철도로 1914년 9월16일 개통되었고 총연장은 222.7km이다. 이 철도는 갑오경장 이후인 1896년 9월 30일, 제국주의의 여러 열강 가운데 프랑스의 휘브릴르상사가 철도부설권을 청구한 이래, 1898년에는 독일이, 1899년에는 일본이 차례로 요구하였으나 '철도와 광산경영은 일체 이를 외국인에게 불허한다.' 라는 우리 조정의 원칙에 의해 즉각 거부되었으며, 국내 철도국의 직영방침에 의해 선로측량을 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자금 사정으로 중단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교묘히 악용한 일본이 철도자금 대부약관의 의무조항을 내세워 철도부설이 결정되어 1910년 4 월, 선로측량과 함께 10월 15일에는 용산에서 기공식을, 이듬해 10월에는 원산에서 기공식을 하여 일부구간이 개통되었고 1914년 9월 16일에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경원선 철도

1945년 8 · 15 광복과 함께 원산까지의 운행이 중단되었고 6 · 25가 끝난 후에는 용산 – 신탄리간 88,8km를 왕복 운행하였으나, 1986년 9월 2일 용산 – 의정부간 31,21km가 복선 전철화 되어 여객수송은 의정부역을 기점으로 하고 있었으나 최근 소요산역까지 전철화 되어 동두천역을 기점으로 하고 신탄리를 종점으로 하던

것을 지난 2012년 11월 철원의 대마리역까지 연장 운행되고 있다. 연천군 내에는 초성리역, 한탄강역, 전곡역, 연천역, 신망리역, 대광리역, 신탄리역 등 7개의 크고 작은 기차역이 경원선에 소재하고 있다.

연천역 급수탑(漣川驛 給水搭)

연천역에 있는 철근 · 콘크리트조의 급수탑으로, 처음에는 서울에서 연천까지만 철도를 운행하다가, 1914년 9월 16일 원산까지 증설, 개통되면서 세워졌는데 전체 높이 23m, 둘레 18m, 용량은 100M/T 규모이다.

연천역 앞의 급수탑

당시 경원선 증기기관차는 서울에서 출발하여 연천역에 정차하면서 급수한 후 원산까지 운행하였고, 원산발 열차는 연천역에 와서 급수하여 서울로 가던 서울과 원산 중간지점의 단 하나뿐인 중요한 급수탑이었다. 1945년 8 · 15 광복과 더불어 남북이 분단되자 열차의 이용도가 적어졌으며, 6 · 25 이후 디젤기관차의 출현으로 현재는 쓸모가 없어졌다.

그러나 전란의 와중에서도 주변에 있던 역사 건물은 모두 전소되었으나, 유독 이 급수탑만이 전신에 수 백발의 총탄과 포탄을 맞은 모습으로 우리 민족 시련의 상흔을 그대로 드러내고 우뚝 서 있어 연천에서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던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6 · 25의 상징물이기도 하다.

5. 옥산리(玉山里)

본래 연천현 동면의 지역으로, 마을 가운데 외따로 떨어져 있는 둥근 산이 있어 '오미'라 불리워지던 곳이었으나 한자로 지명을 옮기는 과정에서 '외따로 떨어져 있는 산'이라는 뜻의 오미'를 '玉山'으로 표기하여 오늘날의 옥산리로 불리우게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면에서 연천군 군내면에 편입되었고, 1945년 8 · 15 광복 이후에 3 · 8선 북쪽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

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2개의 행정리, 6개 반,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6. 읍내리(邑內里)

본래 연천현 현내면(縣內面)의 지역으로, 조선시대 연천현의 관아가 있어 읍내가 되므로 읍내리라 하였는데,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현내면이 군내면으로 개칭되면서 군내면 읍내리가 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 직후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1개의 행정리, 2개 반,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연천관아터(漣川官衙 -)

솟대봉 북쪽에 있던 조선시대 연천현의 관아터. 조선 후기≪광무읍지≫에 실린 관아의 규모는 총 79칸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객사(客舍) : 6칸, ■동헌(東軒) : 10칸, ■책방(冊房) : 10칸, ■관수고(官需庫) : 2칸, ■공방고(工房庫) : 1칸, ■삼문(三門) : 3칸, ■내아(內衙) : 20칸, ■향청(鄕廳) : 10칸, ■무청(武廳) : 9칸, ■사령청(使令廳) : 8칸 등 총 10동의 건물이 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1910년 일제강점 후 철도가 부설되면서 지형적 조건이 편리한 차탄리 지역으로 군청사가 새로 건립되어 이곳에 있던 관아 건물은 자연히 철거되고 지금은 그 터가 농경지와 민가로 변해 있다.

윤00의 청백비와 조린의 청백비

7. 동막리(東幕里)

본래 연천현 현내면의 지역으로, 조선 초부터 분청사기, 백자, 옹기 등을 굽던 요업(窯業)이 번창했던 곳이 되어 '독막(陶幕, 甕幕)'으로 불리워오다 차츰 어휘가 변하여 '동막'으로 굳어져 ('독' 뒤에 ㄴ, ㅁ의 음이 따라오면 '동'으로 발음되는 현상에 의해) 한자표기로 '東幕里'라 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군내면에 편입되었고 1945년 8 · 15 광복 직후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

동막리 유원지

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2개의 행정리, 4개 반,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찬우꾸미(翠巖)

삼봉동에 있는 경승지로, 조선 고종 때에 편찬된 ≪光武邑誌≫에는 '찬취암' 은 연천관아에서 동쪽으로 10리 쯤에 있는 경승지로, 층층이 쌓여있는 크고 험한 바위들이 서로 마주 대하며 서 있는 형상인데 일명 '삼봉암(三峰巖)' 이라고도 한다. 주위에 골짜기는 깊고 그윽한데 그 사이를 흐르는 아미천의 깊고 푸른 물은 바위 위에 피어난 많은 꽃들과 골짜기에 푸른 소나무와 함께 어우러져 경치는 가히 선경이라 할 만한 곳이다.

또한 이곳에는 연천 지역에 심한 가뭄이 들면 보개산에 기우제를 지내는 기우단이 있다. - 翠巖在縣東十里許層巖鼎 峙一名三峰巖洞壑深邃溪潭湛泓巖花澗松景致殊絕有祈雨壇 - 라고 기록되어 있고, 조선 현종조에 편찬된 ≪東國輿地志. 1656년≫에는 연천 현감직에 있었던 오음 윤두수가 이곳의 경치에 매료되어 '찬취암' 이라 명명했다는 간략한 기록도 보인다. (원문 : 翠巖在寶盖山上高聳蒼翠通望遠近本朝尹斗壽縣監時

遊其上名之) 또한 조선 후기 연천현감을 역임했던 청천 신유한(靑泉 申維翰)의 문집≪靑泉集≫에 있는「 翠巖記」,「寶盖山川祈雨文」등의 기록에서도 이곳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최근에는 이 일대가 유원지로 개발되어 많은 피서객과 탐승객들이 찾아오는 명승지가 되어 있다.

8. 통현리(通峴里)

본래 연천현의 현내면 지역인데, 조선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현내면을 군내면(郡內面)으로 개칭하면서 통재에서 이름을 따 하나의 법정리인 통현리라 하여 군내면에 속하게 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통현리 고인돌

현재 2개의 행정리, 12개 반,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9. 고문리(古文里)

본래 연천현 현내면의 무수동리(無愁洞里) 지역인데, 조선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무수동리를 고문리로 개칭하여 군내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2개의 행정리, 13개 반,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재인폭포(才人瀑布)

가마골 입구에 있는 18.5m 높이의 폭포. 현재 이 폭포는 고을 원의 탐욕으로 인한 재인의 죽음과 그 아내의 강한 정절이 얽힌 전설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문헌에는 전설과는 상반된 기록으로도 전해 내려 온다.

옛날 어느 원님이 이 마을에 사는 재인(才人) 아내의 미색을 탐하여 이 폭포 절벽에서 재인으로 하여금 광대줄을 타개한 뒤 줄을 끊어 죽게 하고 재인의 아내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절개 굳은 재인의 아내는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재인폭포

거짓으로 수청을 들며 원님의 코를 물어뜯고 자결하였는데, 그 후부터 이 마을을 재인의 아내가 원님의 코를 물었다 하여 '코문리' 라 불리워지게 되었으나, 차츰 어휘가 변하여 '고문리(古文里)' 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반면, 조선 영조조(1765년)에 편찬된≪輿地圖書≫ 연천현 산천조에는, '재인폭포는 연천관아에서 동쪽으로 20리 거리인 원적사(圓寂寺) 동구에 있는데, 벽립(壁立)해 있는 양 절벽사이로 수 십길 높이를 수직으로 흐르며 떨어진다. 옛날에 한 재인(才人)있었는데 하루는 마을 사람과 이 폭포 아래에서 즐겁게 놀게 되었으나, 그 마을 사람의 아내가 매우 미모가 뛰어난고로 자기 재주를 믿고 흑심을 품은 재인은 그 자리에서 장담하며 약속하기를, '이 절벽 양쪽에 외줄을 걸고 내가 능히 지나갈 수 있다' 라고 호언장담하자, 마을 사람은 재인의 재주를 믿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 아내를 내기에 걸게 되었다.

잠시 후, 재인은 벼랑 사이에 놓여 있는 외줄을 타기 시작하는데, 춤과 기교를 부리며 지나가는 모습이 평지를 걸어가듯 하자 이에 다급해진 마을 사람은 재인이 줄을 반쯤 지났을 때 줄을 끊어 버려 재인은 수십 길 아래 구렁으로 떨어져 죽게 되었고 이러한 일로 인하여 이 폭포를 재인폭포로 불리워지게 되었다 한다.'

(원문 : 才人瀑在縣東二十里圓寂寺洞口懸流數十丈兩崖壁立古有一才人與村氓遊此悅其氓之妻美約日繫繩兩崖我能步過氓不信遂約以奪妻才人

舞蹈如履平地半過氓斷其繩才人落死坑中仍爲名)라고 기록되어 있어 두 가지의 상반되는 전설을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 재인폭포는 보개산과 한탄강이 어우러지는 주위의 빼어난 경관과 맑은 물로 인하여 사시사철 탐승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연천군의 대표적인 명승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10. 부곡리(釜谷里)

본래 강원도 철원도호부(鐵原都護府) 관인면(官仁面)의 하리(下里) 지역인데, 조선 고종 43년(1906) 9월 24일 "칙령 제49호"에 의하여 관인면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연천군 지역이 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재인폭포 북쪽에 있는 가마골에서 이름을 따 부곡리라 하였으나,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하여 포천군에 편입되었다가, 1989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577호"에 의하여 관인면에서 부곡리 지역만 다시 연천군 연천읍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6 · 25 이후 전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이 되어 현재 민간인이 살고 있지 않는 곳이다.

全谷邑 전곡읍

연천군 2읍 8개 면의 하나이다.

이 읍은 본래 양주군 영근면(嶺斤面)의 지역으로, 은대(隱垈) · 명천(明川) · 사랑(沙浪) · 고탄(高灘) · 릉동(陵洞) · 고산(高山) · 하원(下遠) · 상원(上遠) · 마포(馬浦) · 간파(干坡) 등 10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조선 광무 10년(1906) "칙령 제49호"인 지방 구역정리에 의하여 양주군 청송면의 금촌리(金村里)를 신답리(薪畓里)로 개칭하여 새로 편입하고, 전곡리(全谷里)를 하나의 법정리로 승격하여 12개 리가 되었으나, 1914년 4월 1일 일제의 군면 폐합에 따라 영근면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12개리를 은대 · 전곡 · 신답 · 고릉 · 양원 · 마포 · 간파의 7개 리로 축소 개편하였고, 1914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26호"에 의해 영근면이 전곡면으로 개칭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으로 3 · 8선 남쪽 지역인 양원리, 간파리는 동년 11월 3일 "군정법령 제22호"에 의해 파주군 적성면에 편입되었고, 그 외 5개 리는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 후, 6 · 25가 끝난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으로 3 · 8선 북한 지역이 수복된 후,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적성면의 눌목리(訥木里)를 새로 편입하여 현재 범위의 8개 리가 되었으며, 198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1772호"로 전곡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른다.

읍의 동쪽은 청산면과 동두천시, 남쪽은 양주군 남면과 은현면, 서쪽은 미산면 · 군남면과 파주군 적성면, 북쪽은 연천읍과 경계가 된다.

1. 전곡리(全谷里)

본래 양주군 영근면(嶺斤面)의 지역으로, 땅이 적갈색 점토질 성분이 되어 봄철 해빙기나 여름 우기 때가 되면 사람의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몹시 질다 하여 '진골'이라 불리웠는데, 조선 광무 10년(1906) "칙령 제49호"인 지방구역정리에 의하여 하나의 법정리로 승격되면서 '진골'을 지금의 '전곡리'로 한자이름화 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기존의 사랑리(沙浪里)와 고탄리(高灘里)를 병합하여 지금의 범위를 갖추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 직후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6개의 행정리와 108개 반, 6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고 연천군 내 최고의 인구 밀집 지역이며 교통의 중심지이다.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

국가사적 제268호로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을 대표하는 이 유적지는 1978년 겨울 한탄강 유원지에 놀러왔던 미군 병사에 의해 지표에서 석기가 발견되면서 주목받게 되었다. 이 병사는 채집석기를 서울대학교 고 김원룡 교수에게 가져갔고, 김원룡 교수와 영남대학교 정영화 교수에 의해 아슐리안계 구석기 유물로 밝혀지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구석기 유적지로 알려지게 되었다.

전곡리 선사유적지는 전곡 시가지 남쪽, 한탄강이 감싸고 도는 현무암 대지위에 자리잡고 있으며 선캠브리아기에 형성된 변성암류인 편마암과 화강암이 기반암을 이루며 이 암반층을 강원도 평강 지역에서 분출하여 임진강과 한탄강의 강바닥에 형성된 현무암이 넓게 덮고 있다.

현무암 위에 적색점토퇴적층과 사질층의 퇴적물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퇴적물의 상부 점토층

구석기 문화축제

이 구석기 문화층으로 석기가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1978년 주먹도끼와 가로날 도끼등 아슐리안형 석기의 발견 이후 현재까지 11차에 걸친 발굴을 통하여 유적지의 성격규명을 위한 학문적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 3000여점 이상의 유물이 채집되었다.

이들 석기의 발견은 1970년대 말까지도 이들 석기의 존재 유무로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으로 구석기 문화를 양분하던 모비우스의 학설을 바꾸는 계기로서, 세계구석기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또한 동아시아의 구석기 문화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려는 많은 시도들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한국의 구석기 연구뿐만 아니라 전세계 구석기 연구를 풍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전곡리 선사유적지에 대한 조사를 계기로 한탄강 임진강 유역에 대한 제 4기 지질학 연구가 이루어졌고 아직도 지질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고고학계뿐만 아니라 지질학계에도 중요한 연구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곡리 선사유적지내에는 구석기 유적관과 자료관등 관람시설과 구석기 시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야외 조형물이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배치되어 구석기 시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2. 은대리(隱垈里)

본래 양주근 영근면의 지역으로, 고려가 멸망한 뒤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개로 음터(隱垈)에 은거한 일노정(逸老亭) 김양남(金揚南)의 사적에 의하여 은대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명천리(明川里)를 병합하여 은대리라 하여 연천군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4개의 행정리, 26개 반, 7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삼형제바위(三兄弟岩, 땡땡바위, 용바위)

은대리 성지 서쪽, 한탄강과 장진천이 합류되는 곳에 있는 바위. 옛날에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아들 삼형제와 함께 궁핍한 살림을 하던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얼마 안 되는 농토를 일구면서도 돈독한 우애로 성장해 가는 자식들을 대견해 하며 열심히 살림을 꾸려 가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무덥던 여름날, 밭에서 김을 매던 삼형제는 더위를 식히러 가까운 한탄강으로 나가 물장난을 치며 즐겁게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13살이던 막내가 깊은 물속에 실족을 하여 강물에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두 형(15 · 17세)은 동생을 구하기 위해 급히 물속으로 뛰어 들었으나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빠르기로 이름난 한탄강이라 삼형제가 기진맥진하여 안타깝게도 모두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울면서 황급히 강가로 달려 왔으나 시퍼런 강물만 무심히 흐를 뿐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며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 후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수척해진 몸으로 강가를 찾던 어머니는 눈앞에 신기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다름 아닌 물에 빠져죽은 삼형제의 모습이 강 가운데 나타나더니 갑자기 세

삼형제 바위

개의 큰 바위로 변하여 강물에 솟아 있는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어머니는 삼형제 모두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이 기뻐 이 사실을 마을에 알리게 되었고 그 후 동네 사람들은 세 개의 바위 중 제일 큰 바위에 정성으로 제단을 만들고 이곳에 빠져죽은 삼형제의 넋을 위로하고 동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한다.

지금도 이 바위는 완연히 남아 있고 그 때의 전설에 따라 이 세 개의 바위를 '삼형제바위' 라 이름 지었다 한다.

가사평(袈裟坪)

전곡읍 은대리와 전곡리, 연천읍 통현리에 걸쳐 있는 연천군 제일의 평야이며 곡창지대. 점토질 성분으로 된 이 곳의 토질이 이른 봄 해빙기나 여름철 우기 때가 되면 인마의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질고 미끄러워 예전에 한탄강을 건너서 통현리까지의 20리 벌판길을 통과하자면 기운이 다 빠지고 탈진상태가 되었다는 사연을 간직한 곳이다.

조선 영조조에 편찬된 ≪輿地圖書. 1757≫에는 이곳의 유래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예전에 어떤 중이 이 벌판을 지나가다 진흙 속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여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어 걸음을 옮길 수 없게 되자 입고 있던 가사를 벗어 버리고 갔다 하여 '가사평' 으로 명명되었다 (원문: 袈裟坪在縣南十里春夏泥滑 不能着足古有一僧過此氣乏棄其袈裟而去仍名)라고 이곳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 연천현 제영(題詠)조에 실린 서거정(徐居正)의 시에는 '봄 진흙 미끄러워 말도 가기 어렵구나, 양주서 오는 길 높았다 낮았다 하네.....' - 滑滑春泥怯馬蹄 楊

은대리 벌판

州行路互鼓低 – 라고 이곳의 인상을 시로 남기기도 하였다.

6 · 25가 끝나고 이곳이 수복지구가 되면서 사람들이 차츰 입주하고부터는 진 땅 때문인지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사는 곳'이란 별칭도 붙게 되었으나, 농지정리가 되고 도로가 포장되면서부터 잡초가 무성하던 이 곳 황무지가 연천 제일의 곡창지대로 변하여 가을이면 누런 황금벌판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 되었다.

선바위(立岩. 88m)

현 은대2리 장진천변에 있는 바위산. 정상부 바위의 둘레는 약 50m, 높이 15m 크기로, 재질은 연천계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용암대지 상에 솟아 있는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다.

오랜 옛날부터 전해 오는 바에 의하면 송화가루 날리는 어느 봄날 옥색저고리와 다홍치마로 곱게 단장한 선녀가 이 바위 꼭대기에 앉아 바느질그릇을 옆에 놓고 고운손으로 바느질을 하다가 손을 멈추고 사면에 펼쳐진 기암절벽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다.

마침 그 때, 이 마을에 사는 힘이 세고 인물이 뛰어난 이사랑(李四郎)이란 젊은이가 이곳을 지나가다 바위 위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선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올라가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지나던 발길을 멈추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 할지라도 십여미터나 되는 높은 바위꼭대기를 오를 수가 없었다.

뛰어 올라가면 미끄러지고, 또 뛰어오르다가 미끄러지며 갖은 애를 썼으나 여러번 실패한 이 사랑은 올라가기 위한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 냈다. 그는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선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에 도끼로 바위를 찍고 올라가기로 작정하고 도끼를 가지고 와서 바위를 찍기 시작하였다.

바위가 반쯤 깎아졌을 때 위에서 바느질을 하던 선녀가 이 모습을 보고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황급히 바느질그릇도 내버린 채 하늘을 향하여 급히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도끼로 바위를 찍던 장사가 바위 위를 올려다보니 이미 때는 늦어 선녀는 바위를 떠나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었다.

이사랑은 온몸이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해 들고 있던 도끼를 내던지고 미친듯이 날뛰며 하늘을 향해 발버둥쳤으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 후 그는 마침내 실성을 하여 사방을 헤매다가 바위 아래로 흐르는 차탄천(장진천) 푸른 물에 몸을 던져 세상을 뜨고 말았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은대리 벌판 한편에 우뚝 서 있는 이 바위는 이사랑 장사가 도끼를 찍은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아랫부분이 거의 반이나 깎여 넘어질듯 서 있다 하여 후세 사람들이 이 바위를 '선바위'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어수물(御水井)

3번 국도변에 있는 은대4리에서 가장 큰 마을. 조선 개국 초 태종 이방원이 고려 신하로써 절조를 지키며 연천읍 현가리 도당골에 은거하고 있던 금은(琴隱) 이양소(李陽昭)를 만나기 위해 연천으로 친행(親幸)하던 중, 이곳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마셨다 하여 이 우물을 '어수물'로 명명했다 한다. 이 우물은 지금도 남아 있다.

은대리 어수물

3. 신답리(薪畓里)

신답리 고분

본래 양주군 청송면(靑松面)의 금촌리(金村里) 지역인데, 조선 광무 10년(1906) "칙령 제49호"인 지방구역정리에 의하여 양주군 영근면에 편입되면서 지금의 신답리로 개칭되었고, 1914년 영근면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연천군에 속하게 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1개의 행정 리, 6개 반,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 신답리(薪畓里)의 어원에 대하여

신답리의 유래는 연천읍 고문리의 삼거리 남쪽에 있는 '섶논'으로 인하여 붙여진 땅이름이다. 이 논이름의 앞음절 '섶'은 우리 고유의 방언으로 '큰 강이나 개울의 옆'을 뜻하는 말로 씌어 왔는데 이곳의 '섶' 역시 한탄강과 바로 인접해 있어 그 원뜻을 더욱 명확히 해 주고 있다.

그럼으로, 이 곳 신답리는 '큰 강 옆에 있는 논'이라는 뜻의 '섶논'일 뿐, 소리 그대로 음차한 전혀 다른 의미의 '섶 신(薪)'자와는 거리가 먼 지명이다.

신답리 고분

2005년 10월 10일 경기도 기념물 제210호로 지정되었다. 신답리 고분은 한탄강(아우라지)의 북안인 전곡읍 신답리의 남동부에 위치하며, 단구상의 비교적 넓은 평지에 입지하고 있다. 현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완만한 경사면에 봉토분(封土墳) 2기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신답리 일대는 비교적 높은 산지로 이어지는 북쪽을 제외하면 곡류하는 한탄강이 외곽을 휘감아 흐르고 있으며 유적은 비교적 넓은 평탄지의 남동쪽에 치우쳐 위치한다.

고분은 9m 간격을 두고 동서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2기 모두 석실 봉토분으로 평면형태가 원형이고, 1호분은 봉토 저경이 약 19m, 현재 높이 3m의 대형고분이고, 2호분은 확인 가

능한 묘역의 크기가 동서 7.7m, 남북 6.3m로 1호분에 비해 소규모이다. 그러나 오래전에 도굴된 듯 정상부에 사람이 드나들 정도의 큰 구멍이 수직으로 뚫려 있었다. 주변에 고분이 더 있었다고 전해지나 이미 멸실된 것으로 보인다.

신답리고분은 1991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지표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고구려 석실분으로 학계에 알려졌고, 2001년 토지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다. 조사 결과, 1·2호분 모두 석실(무덤방)이 지상에 놓여져 있었으며 설치된 무덤방의 형태는 방형으로 주축방향이 북서-남동이다. 묘의 주변에는 호석이나 주구 등은 설치되지 않고 원형의 봉토를 매장 주체부와 같은 공정으로 축조했음이 확인되었다. 석실의 벽석이나 바닥재에 주로 판상석을 사용했는데 틈새에는 자갈과 작은 돌을 채워 다졌다.

1호분은 현실 전벽의 오른편에 2호분은 중앙에 각각 연도가 설치되어 있다. 잔존상태가 양호한 1호분의 경우 오른쪽 벽이 연장되어 현문부(80×80×100㎝)와 연도(310×100×90~130㎝)·묘도(550×50×100㎝)로 이어진다. 크기는 205×170㎝이고, 최대 높이는 200㎝이다. 하부에 판상석을 깔고 그 위에 판석을 쌓아 현실을 조성하였다.

현실 벽을 구성하고 있는 판석들은 회반죽을 발라가며 2단부터 안으로 들여쌓아 상부가 하부보다 좁은 형태이고 현실천장은 고구려 특유의 삼각조임형 천장구조를 보여준다. 2003년 발굴조사 당시 출토유물이 많지 않아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지상식인 석실구조와 삼각조임형 천정구조 등 고구려계 석실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5~6세기 고구려의 남진 시기에 축조된 고구려계 고분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원위치에서 확인된 것은 한 점도 없으나, 석실과 봉토의 교란층 여기저기에서 인골편과 토기편 2개체분이 출토되었다. 고구려토기로 추정되는 병(甁)모양의 흑색연질토기(黑色軟質土器)는 외면에 세 줄씩 한조를 이룬 횡침선문대(橫沈線文帶)가 등간격으로 8조이상 돌려져 있다.

4. 양원리(兩遠里)

본래 양주군 영근면의 지역으로, 옛 양주 관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멀원리'라 불리워 오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기존의 윗멀원리(上遠里)와 아랫멀원리(下遠里)를 병합하여 상원과 하원의 두 '원' 자를 따서 양원리하 하여 연천군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15 광복과 동시에 3·8선 남쪽이 되어 파주군 적성면에 편입되었다가, 6·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1960년 11월 18일 "구역확장규칙 개정"에 따라 다시 연천군 전곡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1개의 행정리, 6개 반,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5. 간파리(干坡里)

본래 양주군 영근면의 지역으로, '간파' 또는 '간패'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천군에 편입되었고,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3 · 8선 남쪽이 되어 파주군 적성면에 편입되었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60년 11월 18일 "구역확장규칙"개정에 따라 다시 연천군 전곡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1개의 행정리와 3개 반,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6. 눌목리(訥木里)

본래 적성현(積城縣) 동면(東面)의 일목리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놀목동'에서 이름을 따 '눌목리'라 하여 연천군 적성면에 편입되었고, 1945년 11월 3일 "군정법령 제22호"인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3 · 8선 남쪽 지역이 되어 파주군 적성면으로 편입되었다가,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파주군 적성면에서 연천군 전곡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2개의 행정리, 4개 반,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7. 고릉리(高陵里)

본래 양주군 영근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기존의 릉동리(陵洞里)와 고산리(高山里)를 병합하여 고산과 릉동의 이름에서 한자씩 따 고릉리라 하여 연천군에 편입되었고,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3 · 8선 북쪽 지역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1개의 행정리, 3개 반,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8. 마포리(馬浦里)

본래 양주군 영근면의 지역으로, 임진강에 마개(馬浦)나루가 있어 마포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천군에 편입되었고 1945년 8 · 15 광복 직후 3 · 8선에 의해 남북으로 분리되었다가 6 · 25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1개의 행정리로 되어 있고 현재는 약간명의 민간인이 거주하는 상태이다.

중부원점

한 국가의 국가원점이 어느 부분에 위치하느냐 하는 것은 역사에서 연대기가 중요한 골격을 이루는 것처럼 지리좌표 원점 또한 국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골격으로서 매우 큰 의미와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중부원점은 한반도 지도좌표계의 국가통일원점으로 북위 38도, 동경 127도 교차점인 연천군 전곡읍 마포리 산35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중부원점은 지구 타원체를 평면상에 평면직각종횡선 수치를 산출하기 위해 설정한 가상 원점으로서 국가 기준점 측량, 국가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등의 기준좌표계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학문적, 법률적, 근거에 명시된 직각 좌표계의 원점으로 활용케 된다. 아울러 네비게이션 등 위치 기반 시스템(GPS) 의 기준이 되며,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리, 측량 천문학적으로도 중요역할을 할 수 있다.

중부원점

연천군은 한반도의 측량원점중의 하나로, 전곡읍 마포리에 위치하고 있는 중부원점을 세계적인 명품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기본구상을 마치고 향후 세부 추진계획을 내 놓았다.

내년부터는 중부원점테마공원 부지매입 및 상징조형물 설치 등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해 오는 201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중부원점 테마공원조성으로 군은 새로운 브랜드 가치창출을 도모하고, 조성중인 남북청소년교류센터와 연계개발과 관광객유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중부원점 테마공원조성과 함께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 중심과 통일 한국의 거점도시 조성을 목표로, 차별화 된 테마공원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개발비전 및 목표를 설정했다. 학문적 법률적 근거에 명시된 국가원점으로서의 정체성 중요성을 고취시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부원점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 마련도 중요사업이다.

중부원점 테마공원은 한반도 평면 직각좌표 유일하게 육지부에 위치해 있어 잠재력과 상징성을 바탕으로 지리 천문 등 과학분야 학습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郡南面 군남면

연천군 2읍 8면의 하나이다.

이 면은 본래 연천현의 남면(南面)지역으로 석현리(石峴里) 진상리(進祥里) 갈묘리(葛墓里) 하심곡리(下深谷里) 상심곡리(上深谷里) 옥계리(玉溪里) 진전리(榛田里) 등 7개리를 관할하였는데,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왕림동을 왕림리(旺林里)로 개칭하여 8개 리로 개편 관할하였고,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마전군 화진면(禾津面)에 속해 있던 황지(黃地) · 석문石門) · 음대포(音垈浦) · 도감포(都監浦) · 지곡(芝谷) 등의 5개리를 병합하여 남면을 군남면으로 개칭하고, 옥계, 선곡, 진상, 왕림, 황지, 남계의 7개리로 다시 개편하여 관할하였다. 그 후,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3 · 8선 북쪽이 되어 군남면 전지역이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7개 리가 완전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면의 동쪽으로는 연천읍과 전곡읍, 남쪽은 전곡읍, 서쪽은 미산면과 왕징면, 북쪽은 중면과 경계가 된다.

1. 삼거리(三巨里)

본래 연천현의 남면 지역으로, 마을 중앙에 세 갈래의 큰 길이 있으므로 '세거리' 또는 '삼거리' 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기존의 상심곡리(上深谷里)와 하심곡리(下深谷里)를 병합하여 삼거리라 해서 군남면에 편입되었고, 1945년 8 · 15 광복 이후 3 · 8선 북쪽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였으나,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2개의 행정리와 12개 반, 4개의 자연마을로 편성되어 있고 군남면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다.

2. 옥계리(玉溪里)

본래 연천현 남면의 지역으로, 옥녀봉 밑에 옥같이 맑은 냇물이 흐르는 곳이라 하여 옥계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진전리(榛田里)를 병합하여 군남면에 편입되었다가, 1945년 8 · 15 광복이 되면서 3 · 8선 북쪽에 되어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3개의 행정리, 14개 반, 6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옥계역터(玉溪驛址)

현 미래마을에 있던 옥계역은 조선시대 중앙관청의 공문을 지방관청에 전달하며 외국 사신의 왕래와 관리의 여행 또는 부임 때 마필을 공급하던 역참(驛站)이 있던 곳으로, 남쪽은 장단도호부의 백령역(百嶺驛: 현 백학면 백령리 소재)에서 서울로, 북쪽은 철원도호부의 용담역(龍潭驛)을 거쳐 함경도 노선으로 연결되었던 곳이다.

현재 조사되어 있는 사료에 의하면 백령역 · 옥계역 · 용담역은 고려시대에도 있던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조선 후기에 편찬된 ≪輿地圖書. 1759년≫ 연천현 역원조에는 이 역의 규모를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옥계역은 연천관아에서 서쪽으로 5리에 있는데 큰말(大馬) 2필, 기마(騎馬)2필, 짐을 싣는 말(卜馬) 6필과 19명의 종사원이 있다.

그러나 이 역원제도는 일제 강점 후 철도와 통신의 발달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옥계역의 자리했던 이 곳 역시 역사(驛舍)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고 수복 이후 큰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고려 명종 때의 학자인 노봉(老峰) 김극기(金克己)는 옥계역에서 아래와 같은 시문을 남기기도 하였다.

馬首尋前路 말머리는 갈 길을 찾는데
晨雨常未收 새벽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네.
病眼春雨暗 병든 눈엔 봄비가 컴컴하고
迹曉星流 나그네 자취에 새벽별이 흐르네.
獨飮能成醉 홀로 마셔도 능히 취하고
孤遊得瀉憂 외로이 놀며 근심을 쏟네.
還鄕纔幾日 고향에 돌아온지 겨우 며칠인데
邈若隔三秋 까마득한 삼추를 지낸 것 같네.

온수골(溫水洞)

옥녀봉 남쪽, 임진강변에 있는 골짜기.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예전부터 이 곳에 피부병에 효험이 있는 온수 우물이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 때 만병통치의 효력으로 소문이 널리 퍼져 사방에서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들면서 물을 더럽히고 걸인행각으로 주민들을 괴롭히자 마침 이 곳을 지나가던 어떤 도승이 부적을 돌에 싸서 이 우물에 던져 넣은 뒤부터 온수가 끊어졌다 한다. 6 · 25 전에는 연주현씨가 살았던 마을이다.

3. 선곡리(仙谷里)

본래 연천현 남면의 갈묘리(葛墓里)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선유동(仙遊洞)과 세곡동(細谷洞)을 병합하여 선유의 "仙"자와 세곡의 "谷"자를 따서 선곡리라 하여 군남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이 되면서 3 · 8선 북쪽 지역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6 · 25가 끝난 후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1개의 행정리, 6개 반,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개무더미(犬墓洞)

선곡리에 있는 군남댐 전경

뱀바리 동쪽에 있는 선곡리 중심 마을. 전설에 의하면 임진왜란(혹은 병자호란이라고도 함) 당시 부근 전투에서 전사한 적군의 시체를 이곳에 모아 큰 도무덤(都墓)을 만들었는데, 당시에는 왜(倭)를 '개'로 비유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라 전한다.

그러나 큰 동산 같던 이 무덤은 6 · 25가 끝나고 수복이 되어 이곳에 새로 마을이 형성되면서 완전히 멸실되어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4. 진상리(進祥里)

본래 연천현 남면의 지역으로, 임진강 옆에 펼쳐져 있는 사질 충적평야의 토질이 질고 습기가 많아 (모래밭, 질밭, 피우개라는 소지명에서 증명이 된다) '진사랭이'로 불리어오던 곳이었으나, 한자로 지명을 옮겨 쓰는 과정에서 '進上里' 또는 '進祥里'로 표기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군남면에 편입되었으며, 1945년 8 · 15 광복이 되면서 3 · 8선 북쪽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2개의 행정리, 10개 반,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남송정터(楠松亭址)

큰 피우개 언덕에 있는 정자 터. 문헌자료에 의하면 고려 말 삼별초의 난 때 강화도에서 공을 세운 도원수 현문혁(玄文赫)이 관직에 나가기 전에 이곳에 정자를 짓고 학문의 기틀을 닦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조선 후기까지 연주 현씨의 문중에 의해 보호받던 이 정자가 언제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지는 자세하지 않지만 연천 ≪광무읍지1895≫에는 "이미 정자는 폐허가 되고 유지만 남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중엽을 전후로 하여 폐허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남송정 터에는 200년 수령의 느티나무 한 그루만이 세월의 풍상을 대변해 줄뿐, 정자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유구는 남아 있지 않다.

현문혁 (玄文赫)

생몰년은 미상이며 고려 원종 때의 문신이다. 본관은 연주이고 문하평장사 담윤(覃胤)의 고손이며, 추밀원사 장(璋)의 아들이다. 진상리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용맹이 월등하고 글읽기와 말타기, 활쏘기를 좋아 하였다. 여러 관직을 거쳐 원종 때에 장군을 역임하였고, 원종 11년(1270) 도원수(都元帥)로 발탁되었다.

이해 6월, 개경환도에 반대하여 배중손 · 노영희 등이 삼별초군을 이끌고 강화에서 전란을 일

남송사

으키자 이를 진압코져 하였으나, 평정하지 못할 것을 짐작하고 강화를 탈출하여 개경으로 향할 때 추격해 온 적선에 활을 쏘아 응전했다. 그러나 배가 물이 얕은 곳에 걸리자 적의 화살에 맞아 배안에 쓰러졌고, 이에 처는 두 딸을 껴안고 물에 뛰어들어 자결하였으며, 그는 적에게 사로잡혔으나 용기를 인정받아 살해되지 않고 얼마 후, 극적으로 탈출하여 개경으로 돌아왔다. 이듬해 정절을 지키기 위해 순절한 그의 처는 직학 정문감(鄭文鑑)의 처와 함께 열녀(烈女)로 표창되었다.

현문혁의 묘는 군남면 삼거리 부처골 부근에 있었으나 현재 실전(失傳)한 상태이며, 1987년 후손들의 발의로 남송정터와 가까운 진상리 피우개 마을에 도원수 현문혁의 제향을 받드는 사

당인 남송사(楠松祠)가 건립되어 있다.

왕림교

5. 왕림리(旺林里)

본래 연천현 남면의 석현리(石峴里)지역으로, 조선조 3대 왕인 태종(太宗)과 청화공 이양소(李陽昭)의 고사(古事)에 의해 '왕림' 또는 '왕림동' 이라 하였는데,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왕림동이 왕림리로 승격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석현리와 마전군 화진면(禾津面)의 지곡리(芝谷里) 일부를 병합하여 왕림리라 하여 군남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8 · 15 광복이 되면서 3 · 8선 북쪽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1개의 행정리, 6개 반,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정자터

큰 왕림 마을에 있던 큰 느티나무 정자. 조선 건국 초 태종의 재위 중에 포은 정몽주의 문인이며, 태종과는 사마동방(司馬同榜)이었던 고려 진사 금은(琴隱) 이양소(李陽昭)가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개로 연천읍 현가리의 도당골에 은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태종은 이양소를 만나기 위해 연천으로 친행을 하였는데, 마침 이양소가 왕림리 장진천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타고 오던 어가(御駕)를 다시 돌려 왕림리의 이곳에 이르러 쉬면서 이양소를 기다렸는데, 당시 태종이 친히 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곳에 느티나무를 심고 마을 이름도 왕림(王臨)이라 지었다 한다. 현재 "旺林"으로 표기되어 있는 자세한 유래는 1914년 조선총독부

에서 행정구역 통, 폐합조치 때에 변경된 지명이다. 그러나 550여년간 의연한 모습으로 역사의 현장을 지켜오던 이 나무는 6 · 25의 와중에 아깝게 베어 없어져 지금은 그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다.

죽터골(竹垈洞)

강신봉 남쪽에 있었던 마을 이름. 옛날 어떤 임금이 이곳을 지나가다 타고오던 말에게 여물(죽)을 먹였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전해오나, 한자표시로는 "竹垈洞"으로 되어 있다. 지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6 · 25 전에는 경주 이씨가 20여호 집성촌을 이루었고 서정시인 월파 김상용의 출생지이기도 하다.

※김상용(金尙鎔. 1902 – 1951) 시인, 호는 月坡. 일본 릭꾜대학(立敎大學) 영문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전문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잡지 ≪文章≫ 등에 서정시를 발표했다. 그의 시〈望鄕〉은 1930년대의 불안에 대한 우수를 노래한 것으로 '남으로 창을 내겠오'와 함께 그의 대표적 작품이다. 8 · 15 광복 후 미군정하에서 잠시 강원도지사를 역임하다가 다시 이화여대에서 교편을 잡았고, 1948년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렀다가 돌아왔으나 6 · 25로 부산에 피난 도중 생을 마쳤다.

왕림리 충혼탑(旺林里 忠魂塔): 만호터와 샛지루개 사이의 산등성이에 있는 충혼탑. 1949년 5월 1일 창설부터 연전연승의 전과를 올렸던 보병 제1사단이 52년 12월 11일 이 곳 왕림리로 이동하여 1953년 7월 16일까지 노리 · 배티 · 박고지전투 등에서 적군 1,216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는 등 빛나는 무공을 세웠는데, 6 · 25가끝난 뒤 부대창설 이후 수많은 전투에서 조국의 통일과 겨레의 안녕을 위해 싸우다 전쟁터의 이슬로 순국한 보병 제1사단 김정곤 대령 이하 5,288명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건립된 충혼탑이다.

전체높이 6m이며 비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길손이여 !
자유민에게 전해다오.
우리는 겨레의 명령에 복종하여
이곳에 잠들고 있다고.

6. 황지리(黃地里)

본래 마전군 화진면(禾津面)의 지역으로, 흙빛이 누르므로 '황지리' 또는 '황지대리(黃地臺里)'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석문리(石門里)를 병합하여 군남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 이후 3 · 8선 북쪽 지역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

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1개의 행정리, 5개 반,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금계골(金鷄谷 = 음지말)

양지말 동쪽에 있던 마을, 이 골짜기 안에 있는 산의 형태가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현재 그 명혈(名穴)에는 강릉 김씨의 묘가 있으며 6 · 25전에는 개성 왕씨들이 살았던 마을이다.

빗접산

요골 북쪽, 긴등에 딸린 산. 풍수지리설로는 이 곳의 산 모양의 미녀가 머리를 풀고 앉아 머리를 빗는 형국인 옥녀산발형(玉女散髮形)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또한 한탄강 건너 전곡읍 고릉리 국사봉(國思峰)은 미녀가 마주 대하고 앉아 치장할 때 보는 거울과 같다 하여 '면경산(面鏡山)' 으로도 불리어지고 있으나, 미녀가 풀어 놓은 비녀봉에 해당하는 명혈(名穴)을 찾지 못했다 한다.

7. 남계리(楠溪里)

본래 마전군 화진면(禾津面)의 지역으로, 조선조 중엽 남계(楠溪)라는 호를 가진 영동이씨 이모(李 ?)의 묘가 있다 하여 남계리라 하였는데, 조선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도감포리(都監浦里)와 음대포리(音垈浦里)로 분할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분할되었던 2개리를 병합하여 다시 남계리라 하였으나, 1945년 8 · 15 광복 이후 3 · 8선 북쪽 지역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2개의 행정리, 10개 반,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도감포(都監浦, 陶哥湄, 陶家湄, 甕岩灘)

남계리 남쪽, 임진강과 한탄강이 합류하는 곳에 있는 포구 마을. 옛 지리지나 여러 기행문에는 이 곳 합수머리에서 임진강을 따라 전곡읍 마포리 지역에 넓게 펼쳐진 꽃답벌과 동이리 썩은소 앞의 강폭이 좁아지는 지점까지의 지형이 항아리의 형태와 꼭 닮았다 하여 '독안이(壺內)' 또는' 호구협(壺口峽)' 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어졌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럼으로 항아리와 닮았다고 하는 지형 안에 있는 도감포의 원래 의미는 '항아리(壺) 형태와 같은 지형안(內)에 있는 포구

(浦)' 란 뜻으로, '독안개(壺內浦)' 또는 '독안이' 로 불렸던 것이 '도감', '독암' 으로 음이 변하여 한자로 지명을 옮겨 쓰는 과정에서 엉뚱하게 '都監浦' 외에 여러 한자 명칭을 낳게 되었다.

이곳은 일제 강점기 때까지도 강화도, 서해안에서 임진강을 따라 올라온 새우젓, 소금 배들이 정박하며, 연천지역에서 생산되었던 곡물, 땔감, 도자기 등을 물물교환 하던 큰 장이 형성되었고, 이곳의 빼어난 경관과 상거래를 하던 도감포 상선들로 인하여 조선시대 마전군 때에는 지산8경(芝山八景 = 麻田八景)으로도 꼽혔던 명소였다.

6 · 25 전에는 제주 고씨가 집성을 이루며 살던 곳이다.

남계리 물푸레나무

벌말 남쪽에 있는 물푸레나무 고목. 어렸을 때부터 이 나무를 보고 자랐던 촌로들의 제보에 의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그 모습, 그 크기라 한다. 전체높이 15m, 둘레 2.9m, 수령은 약 300년으로 추정되며, 현재 연천군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한탄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도감포, 최근 한반도 지형을 빼닮았다 하여 화제가 되었다. 왼쪽이 임진강이고 오른쪽이 한탄강이다.

青山面 청산면

연천군 2읍 8면의 하나이다.

이 면은 본래 양주군의 지역으로, 청송면(靑松面)이라 하여 백호(白虎) · 의요(蟻腰) · 평촌(坪村) · 궁촌(宮村) · 탄동(炭洞) · 장연(長淵) · 대전(大田) · 초촌(哨村) · 금촌(金村 지금의 전곡읍 신답리) · 이패(二牌 지금의 대전리 아장동) 등 10개 리를 관할하였는데, 조선 광무 10년(1906) 9월 24일 "칙령 제49호"인 지방 구역 정리에 의하여 포천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포천군 산내면(山內面)의 덕둔(德屯) · 사정(射亭) · 금동(琴洞) · 지동(紙洞) · 삼정(三政) · 간자(艮子) · 갈월(葛月) · 송둔(松屯)의 8개 동리를 병합하여 청송의 "靑"자와 산내의 "山"자를 따서 청산면이라 하여 백의 · 궁평 · 장탄 · 초성 · 대전 · 덕둔 · 금동 · 삼정 · 갈월의 9개 리로 개편 관할하였는데, 1945년 8 · 15 광복 직후에 3 · 8선 북쪽 지역인 장탄 · 궁평 · 백의 전지역과 초성 · 대전리 일부 지역이 북한 공산 치하에 놓여 면사무소를 궁평리에서 3 · 8선 남쪽 지역인 삼정리로 이전하여 삼정 · 갈월 · 금동 · 덕둔 등 4개의 법정리만을 관할하게 되었다.

그 후, 6 · 25로 전지역을 잃었다가,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초성리로 면사무소를 이전하여 9개리를 관할하여 오다,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하여 덕둔 · 금동 · 삼정 · 갈월의 4개 리(남청산 지역)는 포천군 신북면에 편입되었고 그 외 백의 · 궁평 · 장탄 · 초성 · 대전의 5개리는 연천군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른다.

동쪽은 포천군 창수면, 남쪽은 포천군 신북면과 동두천시, 서쪽과 북쪽은 전곡읍과 경계가 된다.

1. 초성리(哨城里)

본래 양주군 청송면의 지역으로, 초성리역 남쪽에 있는 산성(山城)인 초성(哨城)의밑이 되므로 '초촌리(哨村里)' 라 하였는데, 조선 광무 10년(1906) "칙령 제49호"에 의해 양주군에서 포천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의하여 지금의 초성2리 지역에 있는 토성(土城)에서 '城' 자를 따서 초촌리를 '초성리'로 개칭하여 청산면에 편입되었다가 1945년

8 · 15 광복과 더불어 3 · 8선에 의하여 초성리 북쪽의 일부 지역이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 되었고,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하여 포천군에서 연천군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4개의 행정리, 21개 반,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선녀바위(仙女岩)

법수동 동쪽, 산 중턱에 외따로 서 있는 큰 바위. 약 20m 높이로 특이하게 우뚝 솟은 이 바위는 주변에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기암괴석과 울창한 수목이 어우러져 동양화의 한 폭을 연상케 하는데, 이 바위의 기경(奇景)과는 달리 아래와 같은 비련의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아주 오래 된 어느 옛날, 한 나무꾼이 마당같이 넓은 이 바위 꼭대기에 아름다운 선녀가 내려와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녀를 아내로 맞으려는 생각에 이 바위를 오르려고 하다가 하도 가파르고 오를 수가 없어 바위를 도끼로 찍어 쓰러뜨리려고 하루종일 바위를 찍었는데 이미 선녀는 하늘로 올라간 뒤였고, 이에 상심한 나무꾼은 발만 동동 구르다 마침내는 시름시름 앓다가 병들어 죽었다 한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나무꾼의 일화에 따라 '선녀바위'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말뚝고개

초말 남쪽, 동두천시와 경계에 있는 고개. 예전에 삼국의 경계였던 이곳 초성에서 적의 침공을 신속히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늘 관측을 하며 군마(軍馬)를 항시 말뚝에 매어 놓았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지금은 이곳이 연천군 입구가 되어 연천군 표석 및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열두개울(山內川)

열두개울

초성4리 법수동과 포천군 신북면 덕둔리의 경계에 있는 관광지. 약 6km에 이르는 이 개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가자면 열두번을 건너가야 한다 하여 지어진 개울 이름으로, 예전에 양

주군 산내면(山內面)의 중앙을 흐른다 하여 '산내천(山內川)' 이라고도 불리워지는 곳이다. 깊은 계곡에서 흘러드는 맑은 물과 기암괴석, 울창한 수림이 어우러진 명소가 되어 많은 피서객이 찾아 오는 관광 명소이며, 최근에는 온천휴양지로도 각광 받고 있는 곳이다.

법수동(法水洞)

열두개울 입구에 있는 큰 마을. 포천의 국사봉과 종현산에서 내려오는 맑고 차디찬 물이 이 마을 앞을 흐른다 하여 불교에서 '불법(佛法)이 중생(衆生)의 마음속 때를 깨끗이 씻어 정(淨)하게 하는 물' 의 뜻을 빌어 법수동이라 했다는 설과, 이 마을 남쪽 절골에 있던 절의 이름이 법수사(法水寺)가 되어 법수동으로 명명되었다는 두 가지 설이 전해 내려오나, 모두 고증이 어려운 이름이다.

2. 대전리(大田里)

본래 양주군 청송면의 지역으로, 한탄강 옆에 큰 밭이 있으므로 '한밭' 또는 '대전리' 라 하였는데, 광무 10년(1906) "칙령 제49호"인 지방 구역정리에 의해 포천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청산면에 편입되었다가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많은 지역이 3 · 8선 북쪽의 공산 치하에 놓였으나,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1983년 대통령령에 의하여 연천군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2개의 행정리, 8개 반,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대전리 산성(매소성)

매소성(買肖城)전투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후 신라가 당(唐)나라의 세력을 몰아내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 이제까지 이 성의 위치에 대해 경기 양주군 주내면(州內面)의 양주산성설과, 주내면 남방리(南方里)의 남방리산성설이 있었다.

그러나 1984년부터 실시된 역사편찬위원회의 실측조사결과 경기 연천군 청산면(靑山面) 대전리(大田里)의 대전리산성이 매소성의 터임을 확인했다. 현재 남아 있는 이 성터는 둘레 670 m, 넓이 1,960 m2이며, 한탄강에 임하는 천험의 요새이다. 백제 초기에 축성된 이 성은 백제→고구려→신라로 주인이 바뀐 역대의 격전지이다.

또 675년(문무왕 15) 당나라 장군 이근행(李謹行)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매소성으로 쳐들어오자, 신라군이 이를 크게 격파하여 전마(戰馬) 3만 380필과 많은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린 싸움이 벌어진 곳이기도 하다. 이 전투에서 패

대전리산성에서 내려다본 전곡시가지

大田途中 한밭 도중에서

日暮人稀飢 鳴 저물녘에 사람은 드믈고 비들기는 주려우니
途中秋思正 嶸 도중의 가을 생각 그야말로 쟁영하다.
何當一上逍遙頂 어찌 한번 소요산에 올라감에 당하랴?
快得逍遙不世情 시원하게 소요산의 불세정(세상에 볼 수 없는 경치)을 얻자 하네.

≪梅月堂詩集 卷十 遊關東錄에서≫

한 당나라는 그들의 안동도호부를 평양에서 요동성(遼東省)으로 옮기고, 신라는 대동강과 원산만 이남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 이로부터 통일신라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한밭(大田)

한탄강 옆에 위치한 대전리의 유래가 되는 큰 밭. 그 넓이가 약 11,000평(7일 한나절갈이)이 된다 한다. 이 곳 한밭의 '한'은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크다' 또는 '넓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넓은밭'의 뜻을 가진 곳이다. 김시습은 금강산을 유람하고 이 곳 한밭을 지나던 중 아래와 같은 시문을 남기기도 하였다.

3. 장탄리(長灘里)

본래 양주군 청송면의 장연리(長淵里) 지역인데, 조선 광무 10년(1906) "칙령 제49호"인 지방구역정리에 의해 포천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기존의 탄동리(炭洞里) 지역을 병합하여 장연리의 "長"자와 권탄동(拳灘洞)의 "灘"자를 따서 장탄리라 하여 청산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15 광복 이후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의해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1983년 대통령령에 의하여 포천군에서 연천군으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2개의 행정리, 3개 반,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풀무산(冶山, 仙峰)

능안 동쪽에 높이 솟은 바위산. 산의 외형이 대장간에 있는 풀무와 같이 생겼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능안에 있다는 도가니혈(穴) 형세의 하나이다.

전설에 의하면 예전에 어떤 풍수가가 능안 뒷산에 올라서서 주위 산세를 보니, 전방에 솟은 이 산은 풀무와 같고, 남쪽의 숯골은 숯가마, 동북쪽 신답리의 쇠춘이(金村)는 쇠빛깔, 북쪽 연천읍 고문리 느즌모루는 대장간에서 불린 쇠를 올려 놓고 망치로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쇳덩이인 모루 형상을 하고 있어 풍수학상으로 쇠를 녹일 수 있는 도가니혈을 찾기 위해 능안 골짜기를 뒤졌으나, 그 위치를 찾지 못했다 한다.

또한 이곳의 전설에 의하면 이 봉우리에 신선이 자주 내려와 노닐었다 하여 '선봉(仙峰)' 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6 · 25 이후 수복이 되어 몇 해가 지난 뒤 이 바위산에서 어떤 사람이 몸을 던져 자살했다 하여 '자살바위' 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윗거저울(居士洞, 拳灘洞)

너래들비냥 북쪽에 있는 마을. 예전에 어떤 거사(선비)가 살았다 하여 거저울이라 불리웠다는 유래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뜻은 '가(邊)' 와 '자리' 가 합쳐진 복합어 '가장자리' 가 변천되면서 쓰이고 있는 곳이다.

가장자리란 뜻의 옛말은 원래 가사' ,' 가자' , '가재' ,' 거저' 등으로 전음되어 전국 땅이름에 많이 쓰이고 있고, 이곳의 '거저울' 또한 옛 양주군 청송면에서 가장 외진 '가장자리 마을' 이라는 뜻의 거저울이 한자지명으로 음차되면서 엉뚱하게도 '居士' 가 되어 선비와 관련된 해석을 낳은 곳이다.

이곳은 지금부터 약 300년 전에 통덕랑 박필익(朴弼益)이 정착한 후부터 반남박씨의 집성촌이 되었고, 또한 이 마을 앞을 크게 곡류하는 한탄강이 주먹모양을 하고 있다 하여 '권탄동' 으로도 불리워지고 있는 곳이다.

4. 궁평리(宮坪里)

본래 양주군 청송면의 지역으로, 인조(仁祖)와 귀인조씨(貴人趙氏) 사이의 둘째 아들인 낙선군이 숙(樂善君 李潚)의 묘와 재궁(齋宮)이 있으므로, 궁촌리(宮村里)라 하였는데, 광무 10년

(1906) "칙령 제49호"인 지방 구역정리에 의해 포천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평촌리(坪村里)를 병합하여 궁평리의 "宮"자와 평촌리의 "坪"자를 따서 궁평리라 개칭하여 청산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 직후 3 · 8 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1983년 대통령령에 의하여 포천군에서 연천군으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2개의 행정리, 15개 반,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되네미고개

궁평리와 대전리 사이에 있는 고개로 현재 322번 지방도가 지나간다. 전설에 의하면 임진왜란 때 제2진으로 상륙한 왜장 가토오 기요마사(加藤淸正)가 서울을 거쳐 함경도로 북진하던 중 이 고개에 이르러 휴식을 취하면서 부하들에게 이 고을의 이름을 묻자 청송(靑松)땅이라 대답하니 본국에서 자기 누이가 "조선에 가거든 소나무 송(松)자를 주의하라!"는 말이 생각나서 군사를 거두어 이 고개를 '되넘어 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왜장 가토오 키요마사의 누이가 주의하라던 송(松)자는 바로 명나라의 지원병을 이끌고 온 이여송(李如松)장군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왜군들은 그 뜻을 깊이 알지 못하고 송(松)자가 들어가는 마을은 모두 피해가는 바람에 임진왜란 시 난을 피하던 모든 사람들이 송(松)자가 들어간 마을로 피난을 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한다.

대전리 마을에서는 '막은데미고개' 라고도 한다.

소경고개

궁평리 매골과 대전리 연미골 사이에 있는 고개. 전설에 의하면 조선초기 무학대사(無學大師)가 어떤 사대부의 묘자리를 잡으러 연천읍 고문리를 지나던 중, 멀리 정남향에 있는 이곳의 지세를 보니 5대 정승(政丞), 5대 천석(千石)이 나올 명국(名局)이 되어 한탄강을 건너 이곳에 이르러 쇠를 놓아 보았으나, 끝내 혈(穴)을 찾지 못하여 풍수(風水)의 대가인 자신을 눈 뜬 장님과

궁평리 낙선군 묘

같다 하여 이고개를 넘어가며 '소경고개'라 이름지었다 한다. 예전에는 이 고갯마루에 큰 돌서낭당이 있었다.

5. 백의리(白蟻里)

본래 양주군 청송면의 지역으로, 개미와 닮은 모양의 산이 있으므로, '개미산' 또는 '의요리(蟻腰里)'라 하였는데, 조선 광무 10년(1906) "칙령 제49호"인 지방 구역정리에 의하여 포천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의요리와 능안의 옛 이름인 '백호리(白虎里)'에서 각각 한자씩 따서 백의리라 하여 청산면에 편입되었으며, 1945년 8·15 광복 이후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1983년 대통령령에 의하여 포천군에서 연천군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2개의 행정리, 14개 반,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능안(陵內洞, 陵內, 白虎里)

뚝박골 북쪽에 있던 마을. 조선 현종 초에(1666년경) 죽재 윤인함의 손자이며 승정원의 승지를 지낸 윤유진(尹惟晋)이 아들 7형제 중 효성이 가장 지극했던 통덕랑(通德郎) 만경(曼卿)과 순경(舜卿, 호는 山中虎士)두 아들에게 통례공(通禮公, 尹師夏) 이하 이 곳에 있는 여러 선영의 시묘를 명하여 이주하게 하였는데, 이때를 시작으로 파평 윤씨가 정착하여 집성을 이루게 되었다 한다.

두 형제는 현재 두둑말에 정착하게 되었으나 지나가는 도둑떼의 등쌀에 서쪽 산 밑인 지금의 능안으로 옮겨 왔는데, 이때의 고사(古事)에 따라 두둑말에서 언덕을 넘어 안으로 들어왔다 하여 달릴 '능(凌)'자와 안 '내(內)'자로 땅이름이 지어졌다 하나, 세월이 흐르면서 윤씨 선대의 큰 묘가 많다 하여 능내동(陵內洞)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 백호리(白虎里)라는 이 곳의 지명이 어떠한 유래를 담고 있는지 전해 오지 않고 있지만 6·25 전까지도 '백호능안'이라는 이름이 보편적으로 씌어 왔다 한다.

박석고개(薄石峴)

백의1리와 2리 경계에 있는 고개. 지금부터 약 120년 전, 능안에 살았던 윤대일(尹大一. 호는 烈西)이 사람의 통행이 많은 이 고개에 넓적한 박석을 깔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그 뒤부터 능안 마을에 악상(惡喪)이 자주 일어나 깔았던 돌을 모두 뜯어 버렸다 한다.

개미산(蟻山)

박석고개 서쪽에 있는 크고 작은 두 개의 둥근 산. 산의 형상이 개미와 닮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며, 주위에 있던 마을도 이 산이 개미의 허리처럼 생겼다 하여 의요동(蟻腰洞)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또한 예전부터 이 산에 인위적인 해를 가하면 마을에 재앙이 일어난다 하여 지금도 신성시하여 보호한다고 한다.

百鶴面 백학면

연천군 2읍 8면의 하나이다.

이 면은 본래 적성현(積城縣)의 지역으로, 옛 적성관아에서 북쪽에 위치하므로 북면(北面)이라 하여 학곡(鶴谷)·노곡(蘆谷)·구미연(龜尾淵)· 통구(通口)·전동(箭洞)·장곡(獐谷)·맹동(孟洞)·고촌(高村) 등 8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조선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적성현에서 마전군(麻田郡)으로 편입되면서 북면을 하신면(何新面)이라 개칭하였고,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마전군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장단군 지역에 속해 있던 장신면(長新面, - 옛 長湍都護府의 長東面 지역)의 백령(百嶺)·갈현(葛峴)·두현(頭峴)의 3개리를 병합하여 백령리의 "百"자와 학곡리의 "鶴"자를 따서 백학면이라 하여 백령(百嶺)·두일(斗日)·노곡(蘆谷)·전동(箭洞)·학곡(鶴谷)·구미(九尾)·갈현(葛峴)·두현(頭峴)· 통구(通口)의 9개 리로 개편하여 관할하여 오다, 1945년 8·15 광복과 동시에 3·8선에 의해 남과 북이 분리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이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남쪽 지역에 속한 노곡·학곡·구미리 일부 지역은 1945년 11월 3일 "군정법령 제22호"에 의하여 파주군 적성면에 편입되었다.

그 후, 3년 동안의 6·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1960년 11월 18일 구역확장 규칙에 따라 노곡·학곡·구미리 일부 지역이 다시 백학면에 편입되었으며, 1963년 1월 1일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과거 장단군 지역이었던 장남면(長南面)의 원당(元堂)·자작(自作)·판부(板浮)·고랑포(高浪浦)·반정(伴程) 등 5개 리와 장도면(長道面)의 두매(杜梅)·매현(梅峴)·상(上)·중(中)·하(下)·사시(沙是)·항동(項洞)·오음(梧陰)·고읍(古邑)·석주원(石柱院) 등 10개 리, 대강면(大江面)의 청정(靑廷)·나부(羅浮)·포춘(浦春)·우근(禹勤)·독정(篤正) 등 5개 리를 병합하여 총 29개의 법정리가 되었으며, 1965년 4월 30일 "연천군 조례 제111호"에 의해 장남면 지역이었던 원당리를 관할하는 원당출장소(元堂出張所)를 설치하였고, 1987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077호"에 의해 미산면 석장리(石墻里)를 본면에 편입하여 30개 리가 되었다가, 1989년 4월 1일 "군조례 제206호"로 원당출장소가 장남면으로 승격되면서 원당·자작·판부·고랑포·반정

의 5개 리가 장남면에 편입되어 현재 25개 법정리를 관할하여 오늘에 이른다.

면의 동쪽은 미산면, 남쪽은 임진강을 경계로 하여 파주군 적성면, 서쪽은 북한 지역에 속한 장단군, 북쪽은 왕징면과 경계가 되는데, 총 15km의 군사분계선을 끼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백령리 일부와 두현리는 출입영농만 가능한 지역이고, 그 외 백령리 일부와 두일 · 노곡 · 전동 · 학곡 · 구미 · 석장 · 통구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완충지대 및 북한 지역에 속해 있다.

1. 백령리(百嶺里)

본래 장단도호부의 장동면(長東面) 지역으로, 고려시대부터 백령역(百嶺驛)이 있어 '백령리' 또는 '역말'이라 하였는데,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마전군 장신면(長新面)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고, 1945년 8 · 15 광복 이후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나,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만 민간인이 입주해 있고 그 외의 대부분 지역은 출입영농만 가능한 상태이다.

현재 2개의 행정리, 8개 반,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역말(驛村, 新村)

백령리 중앙에 있던 마을. 고려 ~ 조선시대에 장단의 동파역(東坡驛)과 연천의 옥계역(玉溪驛: 군남면 옥계리 소재)을 연결하였던 백령역(百嶺驛)이 있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지금은 옛 역사(驛舍)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고 이 일대 모두가 농경지로 변해 있다.

≪여지도서≫ 장단도호부편 역원조에는 이 역의 규모를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 - 百嶺驛在府東五十里桃源道屬 上等馬二匹 中等馬五匹 下等馬二匹 史十六名 奴十八名 婢十二名 -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고려 말의 명신이었던 안 축(安軸)의 오언율시가 실려 있다.

> 안 축의 백령역 시
>
> 歸路天容慘　귀로에 하늘 모습 찌푸려 있는데
> 凍雲增暮寒　겨울철 찬 구름은 저녁 추위 더해 주네.
> 眼明爲傳舍　눈꼽아 고대하던 백령역사(百嶺驛舍)에 찾아 드니

身倦 征鞍　여정(旅程)에 지친 곤한 몸 말 안장을 내려오네.
喬木藏煙塢　큰 나무는 언덕 마을의 연기를 머금고
青松立雪巒　푸른 소나무는 눈 쌓인 봉우리에 우뚝 서 있구나.
倚窓瞻 嶺　창문에 기대어 먼 데 산봉우리를 둘러보니
蒼翠出雲端　푸른색 단정한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네.

2. 두일리(斗日里)

본래 적성현(積城縣) 북면(北面)의 지역으로, 조선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적성현에서 마전군(麻田郡) 하신면(何新面)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마전군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기존의 장곡리(獐谷里)와 고촌리(高村里)를 병합하여 '두일' 이라는 골짜기에서 이름을 따 두일리(斗日里)라 하여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 이후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3개의 행정리, 13개 반, 6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백학면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다.

국사봉(國師峰)

백학면의 두일리 · 전동리 · 두현리 경계에 있는 봉우리. 여흥 민씨≪小尹公波世系譜≫를 참고해 보면, 고려말 두일리에서 태어나 개성부소윤(開城府 小尹)을 역임했던 민보문(閔普文)이 고려가 멸망하자 망국의 한을 품고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에 있는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고려 신하로써 충절과 청백한 기개로 순절하였는데,(두문동 72현 중 한 사람이다)

그의 아들인 군수 민이안(閔而安)이 선친의 친교에 따라 3대에 걸쳐 살아온 이곳으로 낙향하여 이곳의 지명을 두문동의 '杜' 자와 일민지의(逸民之意 : 백성을 편안히 한다는 뜻)의 '逸' 자를 따서 '두일' 이라 명명하고 매일 이 산에 올라 송악(개성)을 향하여 곡하고 재배하며 고려 신하로써 절개를 지키며 생을 마쳤다 하여 '국사봉' 이라 이름지었다는 사적과 유래가 기록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杜' 와 '斗' 자가 들어가 있는 곳의 지형적인 공통점과 어원의 분석을 통해 보면 아래와 같은 본래의 뜻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는 경기도와 황해도 일원의 땅이름에 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 말의 뿌리는 백제어 계통의 '둥글다' ,' 둘님' 의 뜻으로 쓰인 뿌리말 '둠' 에 두고 있으며, 그러한 지명이 쓰이고 있는 곳의 지정학적인 특징 모두가 산으로 둘러

싸인 골짜기 안에 마을이 위치해 있다는 공통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곳 두일리(斗日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큰두일', '작은두일' 이라는 크고 작은 골짜기에 마을이 자리잡아 '둠' 이 마을 · 골짜기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인 '일' 과 합쳐지며 '두일' 이 되었으나, 한자로 지명을 부여하면서 아무 연관이 없는 오늘날의 '斗日' 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으로 민이안에 의해서 '杜逸' 로 명명되기 이 전부터 '산골짜기 마을' 의 뜻인 '두일' 이라는 우리말의 고유명칭으로 이곳이 불리워졌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노곡리(蘆谷里)

본래 적성현(積城縣) 북면(北面)의 지역으로, 임진강변에 갈대가 무성히 우거져 있으므로 '갈울' 또는 '노곡' 이라 하였는데,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마전군(麻田郡) 하신면(何新面)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3 · 8선을 경계로 하여 일부 지역이 북한에 놓이게 되었으며 남한 지역은 동년 11월 3일 "군정법령 제22호"에 의하여 파주군 적성면으로 편입되었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1960년 11월 18일 구역확장규칙 개정에 따라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노곡리 전지역은 6 · 25 전까지 문화 류씨의 집성촌이었다)

현재 2개의 행정리, 10개 반,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4. 전동리(箭洞里)

본래 적성현(積城縣) 북면(北面)의 지역으로, '살울' 이라는 골짜기가 있어 전동리라 하였는데,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마전군(麻田郡) 하신면(何新面)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1개의 행정리, 2개 반,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5. 학곡리(鶴谷里)

본래 적성현(積城縣) 북면(北面)의 지역으로, 예전에 학이 많이 날아와 깃들었던 철새도래지가 있었다 하여 '해골' 또는 '학곡' 이라 하였는데,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마전군(麻田郡) 하신면(何新面)에 편입되었고,

학곡리 고인돌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3 · 8선 남쪽이 되어 동년 11월 3일 "군정법령 제22호"에 의하여 파주군 적성면에 편입되었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1960년 11월 18일 구역확장 규칙 개정에 따라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1개의 행정리, 2개 반,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6. 구미리(九尾里)

본래 적성현(積城縣) 북면(北面)의 지역으로, 임진강에 깊고 큰 구미소가 있으므로 구미연리(龜尾淵里)라 하였는데,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마전군(麻田郡) 하신면(何新面)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면서 구미연리를 현재의 구미리(九尾里)로 개칭하였다.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3 · 8선을 경계로 하여 남북이 분리되면서 대부분 지역이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남한 지역에 속한 일부 지역은 동년11월 3일 " 군정법령 제22호"에 의하여 파주군 적성면에 편입되었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1960년 11월 18일 구역확장규칙 개정에 따라 다

구미리에서 바라본 주상절리

시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1개의 행정리, 1개 반,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구미소(龜尾沼, 龜淵, 잉어소, 수우리소)

남바위 아래, 임진강에 있는 깊고 큰 소.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구미리의 전체적인 마을 형국이 거북이가 진흙땅에서 꼬리를 끌며 물에 들어가는 모습인 금구예미형(金龜曳尾形)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소 옆에 임진강 쪽으로 돌출해 있는 큰 바위가 거북의 머리에 해당하며, 자손번영과 음양의 생기가 화합하는 명당의 혈(穴)에 해당되는 꼬리 부분은 구연동 쪽으로 향하고 있는 형상이 되어 금구예미를 '龜尾' 두 자로 줄여 '구미소' 라 하였고, 부근에 있는 마을 또한 '구연동(龜淵洞)' 으로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 행정구역을 폐합하면서 우리 고유의 정서와 자연이치가 담겨 있는 '龜尾淵' 이라는 지명을 아무 의미가 없는 '九尾' 로 개칭한 것이 오늘에도 쓰이는 상태이다.

또한 이 소에는 큰 자라와 잉어가 많이 서식하여 '잉어소' 로도 불리워지며, 조선초의 명신이었던 양촌 권 근이 세웠다고 전해 오는 수월정(水月亭)이 부근에 있었다하여 '수월' 이 발음이 변한 '수우리소' 로도 불리워지고 있다.

구연동(龜淵洞)

구미리에서 가장 큰 마을. 임진강의 구미소와 가까운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조선 영조 때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권 근 옛터(權近舊基)라 하여 조선초 학자이며 명신인 양촌 권 근(陽村 權近 1352~1409)과 그의 동생이며 예문관제학을 역임한 매헌 권 우(梅軒 權遇 1363~1419)의 출생지가 구연동임을 밝히고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 적성현편 산천조에는 권 우의 구연동 시문(詩 文) 네 수(四首)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수는 아래와 같다.

현재 이 마을에는 조선 중기에 정착한 동주 최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권 우의 구연동 시

前壓淸江後背山	앞에는 맑은 강 뒤에는 산
一區形勝是天	구연동의 형승은 하늘이
	숨겨두었던 곳.
紆細路田畦裏	꼬불꼬불 소로 길 밭고랑
	사이로 나 있고
隱 虛樓樹木間	보일락말락 빈 누각은 수
	목 사이에 있네.
栗滿園供異味	동산에 가득 찬 토란과
	밤 맛이 별미이고
風烟隋處足奇觀	풍연(風煙)이 닫는 곳마
	다 경치 또한 별천지일세.

吾生最恨牽塵世　지난날 진세(塵世)에 끌렸던 일 한스러워라
此地何當得自閑　어찌하면 이 고향에서 한가히 놀 수 있을까.

※ 풍연(風煙): 멀리서 보이는 연기 같은 공중의 기운.

7. 석장리(石墻里)

본래 마전군 서면(西面) 지역으로, 돌로 울타리를 쌓은 집이 많았다 하여 '돌담', '돌대미' 또는 '석장' 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인접해 있는 월곶리(月串里)를 병합하여 석장리라해서 연천군 미산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 이후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고, 1987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007호"에 의해 미산면에서 백학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1개의 행정리, 2개 반,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나, 일부 지역은 출입영농만 가능한 민통선 지역에 놓여 있다.

8. 갈현리(葛峴里)

본래 장단도호부(長端都護府)의 장동면(長東面) 지역으로, '가루개' 라는 고개가 있으므로 갈현리라 하였는데,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마전군(麻田郡) 장신면(長新面)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마전군이 연천군에 병합되면서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으며 1945년 8 · 15 광복 이후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나, 군사분계선을 끼고 있는 완충지대에 놓여 있어 현재 민간인이 살고 있지 않은 한 개의 법정리 지역이다.

9. 두현리(頭峴里)

본래 장단도호부(長端都護府)의 장동면(長東面)지역으로,' 머릿재' 라는 큰 고개가 있어 두현리라 하였는데,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마전군(麻田郡) 장신면(長新面)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 이후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나, 현재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민통선 지역에 놓여 있어 출입영농만 가능한 한 개의 법정리 지역이다.

국사봉(國師峰)

방아울 동쪽에 있는 두현리에서 가장 뾰족한 봉우리. 현재 국사봉에 대한 자세한 유래는 전해 오지 않고 있으나, 6 · 25 전까지도 매년 이 산 정상에서 산제를 올렸던 곳으로, 제물로 지정된 돼지는 사람이 몰고 가지 않아도 스스로 정상까지 올라간다는 신비한 사실이 전해 오는 곳이다. 예전에는 이 산 정상에 우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휴전선과 인접한 출입금지구역이 되어 확인할 길이 없다.

10. 통구리(通口里)

본래 적성현 북면(北面)의 지역으로, 이 마을 입구를 나서야만 임진강변에 펼쳐져 있는 넓은 들과 통한다 하여 '통구리'(≪적성읍지≫에는 '通溝'로도 기록되어 있다) 또는 '통기'라 하였는데, 조선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마전군(麻田郡) 하신면(何新面)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인접해 있던 맹동리(孟洞里)를 병합하여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 이후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효자문자리(孝子門 –)

통기마을 중앙에 있던 진구주(陳九疇)의 효자문. 진구주의 자는 윤서(倫敍), 본관은 여양(驪陽)으로, 통구리에서 태어 났다. 조선인조 14년(1636)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가족을 데리고 피난 가던 그는 강원도 금성에서 갑자기 호군을 만나 아버지와 처자식은 가시덤불 속에 숨기고 자기도 피하려는 순간, 안타깝게도 적에게 발각되어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는데, 조정에서는 전란이 끝나고 진구주의 효성과 희생에 감동하여 그의 가족이 사는 이 곳에 효자 정려를 내렸다 한다.

그러나 이 효자문은 6 · 25 당시 전소되어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

백학산업단지

嵋山面 미산면

연천군 2읍, 8개 면의 하나. 이 면은 본래 마전군(麻田郡)의 지역으로, 마전 읍내가 되므로 군내면(郡內面)이라 하여 월곡(月谷) · 중부(中部) · 동부(東部) · 이동(梨洞) · 삼화(三和) · 아미(峨嵋) · 장양(長楊) · 냉정(冷井) 등 8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4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마전군이 연천군으로 편입되면서 마전군 동면(東面) 지역이었던 백촌(栢村) · 분석(盆石) · 가정(柯亭) · 유촌(柳村) · 우정(牛井) 등 5개 리와 마전군 서면(西面)의 송현(松峴) · 광동(廣洞) · 석장(石墻) · 월곶(月串) 등 4개 리(서면에 속해 있던 작동리는 1914년 왕징면으로 편입됨)를 병합하여 아미리에 있는 아미산의 이름을 따서 미산면이라 하여 마전(麻田) · 동이(東梨) · 아미(峨嵋) · 백석(栢石) · 유촌(柳村) · 우정(牛井) · 광동(廣洞) · 석장(石墻)의 8개 리로 개편하여 관할하였으나,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미산면 전 지역이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민간인 입주가 되었으며,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1914년 연천군 적성면에 편입되었던 삼화리를 다시 편입하여 9개 리로 개편 관할하였다가, 1987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007호"에 의해 석장리가 백학면으로 편입되면서 다시 8개 리가 되어 오늘에 이른다.

아미산과 잠두봉, 종못

면의 동쪽은 군남면, 남쪽은 전곡읍과 파주군 적성면, 서쪽은 백학면, 북쪽은 왕징면과 경계가 된다.

1. 아미리(峨嵋里)

본래 마전군 군내면의 지역으로, 조선조 단종 2년(1454)에 편찬된 ≪世宗實錄地理志≫에는

'답동리(畓洞里)'라 기록되어 있으나, 조선 후기에 와서 아미산이 있어 '아미리'라 개명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인접해 있는 장양리(長楊里)와 냉정리(冷井里)를 병합하여 아미리라 해서 연천군 미산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3 · 8선 북쪽 지역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2개의 행정리, 6개 반,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종못(鐘淵)

숭의전 앞, 임진강에 있는 깊은 소(沼). 명주실 한 꾸러미가 다 들어가는 깊이라 한다. 이 못은 삼국시대부터 지금의 숭의전 자리에 있었던 앙암사(仰巖寺)의 범종(梵鐘)이 이곳에 빠졌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자세한 유래는 아래와 같다.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고려왕조의 상징이었던 종묘사직을 없애기 위해 송도의 종묘에 봉안되어 있던 고려 왕들의 위패를 배에 실어 강물에 띄워 보냈는데, 배는 물 흐름과 반대로 임진강 상류 방향으로 역류하며 스스로 삭녕 지역까지 올라가다 다시 방향을 바꾸어 지금의 동이리 썩은소(동이리편 참고)에서 하루를 정박한 후에 3km 아래에 있는 앙암사 석벽(잠두봉) 아래로 떠 내려와 머무르게 되었다 한다.

당시 이곳에 있던 앙암사는 고려 태조 왕건이 궁예의 신하로 있을 때 철원과 개성의 중간 지점이며(각각 90리 거리)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이 곳에 자주 머물며 기도하던 왕건의 원찰(願刹)로 고려 왕들의 위패를 실은 배가 이 곳에 머무르게 된것 또한 우연이 아닌 신묘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날 밤 심한 폭우와 함께 천둥벼락이 앙암사를 때려 절은 형체도 알 수 없게 파괴되어 순식간에 폐허로 변해 버렸다 한다. 당시 마전군수는 이러한 여러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여 그 이듬해인 조선 태조 6년(1399) 앙암사가 있던 그 자리에 배에 실려 있던 고려왕들의 위패를 모시는 숭의전을 건립하게 되었다 한다.

앙암사가 벼락에 파괴될 당시 화재가 일어나

숭의전의 느티나무, 수령 580여년 되었다.

며 경내에 있던 큰 범종이 불에 녹아 임진강으로 굴러 물속에 잠겼는데 그 뒤, 이 못에서 국난(國難)이 일어나기 전에는 종소리가 울려 퍼져 미리 예견했다고 하여 이 못을 '종못'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옛 문헌에 의하면 수면이 잔잔한 날 잠두봉 정상에서 임진강을 내려다 보면 그때 강속으로 잠긴 범종을 목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 참고문헌 : ≪東國輿地志≫, 다산 정약용 ≪大東水經≫, 신유한 ≪靑泉集≫

2. 백석리(栢石里)

본래 마전군 동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기존의 백촌리(栢村里) · 분석리(盆石里) · 가정리(柯亭里)를 병합하여 백촌리의 "栢"자와 분석리의 "石"자를 따서 백석리라 하여 연천군 미산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1개의 행정리, 4개 반, 1개의 자연마을로 편성되어 있다.

열녀 남양홍씨 정문터(烈女 南陽洪氏 旌門址)

대곡동 안에 있던 평안감사 이윤인의 처 남양 홍씨의 열녀 정문터, ≪신증동국여지승람≫ 마

열녀 남양홍씨 정려문과 여각

전군편 열녀조에는 남양 홍씨의 행적을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열녀 홍씨는 관찰사 이윤인의 아내인데, 남편이 죽자 친히 묘 옆에 여막을 짓고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지내며, 복(服)을 벗어서도 7년 동안을 하루 같이 했다. 일찍이 두 차례나 화재를 만났는데 재산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급히 신주(神主)를 안고 나오니 조금 있다가 여막은 모두 타버렸다. 무슨 물건이던지 맛이 있는 것이면 아무리 변변치 못한 것이라도 반드시 천(薦)했으며, 죽을 때까지 향내나는 나물을 먹지 않고 색깔 있는 옷을 입지 않으니 온 고을이 탄복했다. 그 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지게 되어 정려문이 세워지게 되었다."

홍씨의 정려문은 조선 성종 2년(1471)에 세워졌으며 진산군 강희맹(姜希孟)이 절부전(節婦傳)을 짓기도 하였다.

또한 이윤인의 7대 손인 동지중추부사 이언무(李彦茂)도 효행으로 이름 높아 숙종 29년(1703)에 정려를 받았으며, 홍씨 열녀문 안에 열녀와 효자 현판이 나란히 걸려 있어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으나, 6 · 25로 아깝게 소실되어 지금은 빈 터만 남아 있다가 최근에 여각을 다시 지었다.

3. 유촌리(柳村里)

본래 마전군 동면의 지역으로, 이 마을 중앙에 큰 버드나무가 있었다 하여 유촌리' 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천군 미산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이 되면서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1개의 행정리, 5개 반,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4. 우정리(牛井里)

본래 마전군 동면의 지역으로, 임진강 옆에 큰 우물인 '소우물' 이 있어 우정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천군 미산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이 되면서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1개의 행정리, 6개 반,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 우정리(牛井里)라는 지명은 소 우물이라는 뜻으로 다음과 같은 유래가 전하여 진다.

소우물(牛井, 버티우물, 태우물,泰井)

우정리 적석총 남쪽에 있는 큰 우물.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이 부근의 지형은 소가 누운 형국(臥牛形)이고 이 우물은 소의 코에 비유되는 곳이라 한다. 실제로 소 우물은 두 군데에서 많은 양의 물이 사시사철 끊이지 않고 솟아나와 예전부터 이 우물 주변에는 취락지가 형성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전설에 의하면 깊은 소(沼) 형태의 이 우물 속에는 큰 이무기가 살고 있어 주변에 방목했던 소를 잡아먹고 소의 고삐만 남겨 놓은 일도 있었다 한다.

5. 동이리(東梨里)

본래 마전군 군내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기존의 중부리(中部里) · 동부리(東部里) · 이동리(梨洞里)를 병합하여 동부리의 "東"자와 이동리의 "梨"자를 따서 동이리라

하여 연천군 미산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이 되면서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1개의 행정리, 3개 반,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금굴산(金窟山, 金堀山, 尾頭山, 쇠파리산, 峰火山. 195,7m)

동이리와 우정리 경계에 있는 산. 쇠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일제 강점기때에는 금광과 철광이 개발되었으며, 그 때 채굴로 인하여 산 내부가 텅 비어 있어' 공굴산'으로도 불리워지는 곳이다.

조선 초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마전군편에는 이 산이 "미두산(尾頭 山)"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전설에 의하면 대홍수로 인하여 온천지가 물바다였는데 이 산 정상만이 소(牛) 등에 앉은 쇠파리만큼 남았다 하여 '쇠파리산' 이라는 별칭과 함께, 고려시대에는 봉화를 올렸던 곳이라 하여 '봉화산' 이라고도 불리워지는 곳이다.

금굴산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6.25전쟁 말기 휴전협상이 진행될 때 이곳을 지키기 위해 영연방과 벨기에, 룩셈부르크군 등이 이곳을 중공군과 북한군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치열한

금굴산 우정리 쪽에서 찍은 사진이다.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임시화장장까지 만들었을 정도로 치열했던 전적지이기도 하다.

6. 마전리(麻田里)

본래 마전군 군내면의 월곡리(月谷里) 지역으로, 예전 마전군의 관아가 있어 '마전읍내' 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마전군이 연천군으로 편입되면서 월곡리를 마전리로 개명하여 연천군 미산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

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의 1개의 행정리, 3개 반,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건지산(乾芝山, 芝山)

향교말 남쪽에 있는 산. 옛 마전군 관아의 안산(案山)이 되며 6·25 전까지도 매년 10월이 되면 마전리 주민들이 산제를 올렸던 곳이다. 조선 순조 때 마전군수를 역임한 신현록(申顯祿. 1814~1817)의 문집인≪鶴沙集≫에는 마전군 내의 빼어난 풍광을 지산팔경(芝山八景)이라 하여 시로 읊었는데 8경은 아래와 같다.

1. 숭의전의 푸른절벽(崇義殿蒼壁)
2. 미강서원의 쌍 잣나무(嵋江院雙栢)
3. 금굴산의 해돋이(金屈山朝旭)
4. 아미산의 가을달(峨嵋山秋月)
5. 스무스장거리의 주막(榆林市酒家)
6. 반륜정의 시객(半輪亭遠客)
7. 도감포 상선(獨岩浦商船)
8. 임진강 어부의 노래(赤壁江漁歌)

7. 삼화리(三和里)

본래 마전군 군내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천군 적성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15 광복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으며, 6·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민간인 입주가 되었고,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연천군 미산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1개의 행정리, 3개 반, 1개의 자연마을로 편성되어 있다.

8. 광동리(廣洞里)

본래 마전군 서면의 송현리(松峴里) 지역인데, 조선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너븐골을 광동리라 하여 2개의 법정리로 분할하였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송현리를 병합, 광동리라 하여 연천군 미산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8·15 광복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나, 현재 몇 가구만 살고 있는 1개의 법정리 지역이다.

정발장군 묘 정발장군은 1533(명종8)~1592(선조 25)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경주, 자는 자고, 호는 백운이다. 조선 중기 연천군 미산면 백석리 출생으로 본관은 경주이며 군수 명선의 아들이다. 25세 때인 선조 12년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이 되었으며, 해남현감,

정발장군 묘

거제현령, 위원군수, 훈련원 부정(副正)을 차례로 역임하고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에 부산진첨절제사로 부임하였다. 그해 4월 13일,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이끄는 왜적 1진과 대치하여 일진일퇴를 하다 중과부적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성문을 굳게 닫고 군민(軍民)과 일심동체로 최후의 일각까지 용전을 계속하였으나, 적이 쏜 총탄에 맞아 "싸워라" 라는 한마디를 남기면서 40세의 나이로 장렬히 순직하였다 .

부산진전투가 끝나고 장군의 시신을 찾지 못하여 장군의 애마(愛馬)가 물고 온 갑옷과 투구로 의관장(依冠裝)을 치루었다 한다. 후에 좌찬성으로 추증되었으며 충장(忠壯)이란 시호와 함께 부산의 충렬사와 낙안서원에 제향되고 있다. 정발장군묘는 현재 연천군 미산면 백석리 34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경기도 기념물 제51호로 지정되어있다 .

묘는 표고 150m 가량의 9부 능선에 동향하여 있다. 증 정경부인 풍천 임씨와의 함장묘로서 봉분의 기저부에는 높이 40cm의 백색 화강암 호석 20 매를 원형으로 둘러 봉분을 얹어 놓았다. 크기는 둘레12m 40cm, 높이150cm 이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과 1단의 계체석 아래 장명등, 무인석, 망주석 등의 석물 및 봉분 좌측에 묘비가 세워져 있으나, 원래의 석물은 모두 훼손되어 최근에 다시 건립한 것이다. 아울러 차양석이 계체석 위에 2 개, 아래에 2개 있다 .

장군의 묘소 아래에는 4기의 비가 세워져 있는데 묘소 입구 좌측에 1982 년 정동휘 가 술한 충노용월사적비가, 묘역의 제일 하단에는 오석의 의마총비가 있고 우측에 1982년 정동휘 가 술하고 이준식이 서한 열첩애향정려사적비와 양경공묘소사적비가 있다 .

왕징면 旺澄面

연천군 2읍, 8개 면의 하나이다.

이 면은 본래 마전군의 지역으로, 마전군 내의 북쪽이 되므로 북면(北面)이라 하여 동막(東幕)·중동(中洞)·애동(艾洞)·징파(澄波)·노동(蘆洞)·무등(無等)의 6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조선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기존의 6개 리를 동막·중동·애동·노동·징파·무등·외곡(外谷)·유림장(楡林場) 등 8개 리로 개편하였고, 장단도호부(長湍都護府) 강동면(江東面) 지역의 고잔(高棧)·기곡(基谷)·산점(山店) 등 3개 리를 기곡(基谷)·기석(基石)·산점(山店)·고왕(高旺)·고잔상(高棧上)·중·하의 7개 동리로 개편하고 강동면을 강신면(江新面)이라 개칭하여 마전군에 편입하였으나,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마전군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북면의 8개 리를 무등(無等)·북삼(北三)·노동(蘆洞)·동중(東中)의 4개 리로, 강신면의 7개 리를 기곡(基谷)·고왕(高旺)·고잔상(高棧上)·고잔하(高棧下) 4개 리로 축소 병합하였고, 연천군 서면(西面) 지역이었던 계명(鷄鳴)·군영(軍營)·영정(永貞)·안월(安月)·소포(少浦)·야전(野前)의 6개 리를 강서(江西)·강내(江內) 2개 리로 개편하여 편입하였으며, 마전군 서면 지역이었던 작동리(鵲洞里)를 편입하여 왕징면에서 가장 높은 산인 고왕산(高旺山)의 "旺"자와 북삼리 징파도(澄波渡)의 "澄"자를 따서 왕징면이라 하여 총 11개 리를 관할하였다.

그 후, 1945년 8·15 광복과 동시에 왕징면 전지역이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면서 일부 지역에 민간인 입주가 되었고,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 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과거 연천군 서남면(西南面) 지역이었던 귀존(貴存)·가천(佳川)·냉정(冷井)·고장(古莊)·오탄(伍炭)·장학(獐鶴)·솔현(率賢)·석둔(席屯)의 8개 리와 장단군 강상면(江上面)의 임강(臨江)·마성(馬城)·구화(九化)·자하(紫霞)·갈운(葛雲)·덕적(德積)·솔랑(率浪)의 7개 리를 편입하여 26개 리를 관할하고 있으나, 현재 무등·동중·노동·북삼 4개 리에만 민간인 입주가 되어 있고, 강서·강내·작동 등 3개 리는 출입영농만 가능한 지역이며, 그 외 18개 리는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완충지대 및

북한 지역에 속해 있다.

면의 동쪽으로는 군남면, 남쪽은 미산면과 백학면, 서쪽은 휴전선, 북쪽은 중면과 휴전선에 닿아 있다.

1. 무등리(無等里)

본래 마전군 북면(北面)의 지역으로, '무등실'이란 골짜기가 있어 무등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유림장리(楡林場里)를 병합하여 왕징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 이후 3 · 8선 북쪽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면서 민간인 입주가 되어 지금은 왕징면의 중심지가 되어 있다.

현재 1개의 행정리, 8개 반,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화이트교(無等橋)

무등리와 군남면 진상리를 연결해 주는 임진강 다리. 6 · 25 당시 전곡을 탈환하고 개성 방향으로 진격하던 U.N군이 이 곳 임진강에 당도해 보니 인력과 장비가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없어 도하작전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 당시 미군 공병대대에 있던 화이트(White) 소령이 급조형태의 나무다리를 놓아 '화이트교'라 칭한 것이 지금까지 불리워지고 있다.

당시의 다리형태는 통나무교각에 나무판자를 깐 좁은 교폭이었으나, 1970년 현재 잠수교 형태의 콘크리트다리로 개축하였다.

화이트교 현재의 임진교가 건립되기 전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미국 공병대의 화이트 소령에 의해 건립되었다. 진상리와 무등리를 이어 주던 다리이다.

이 다리의 특징은 여름우기 때 임진강이 크게 범람하면 북한측에서 다리를 유실시킬 목적으로 큰 통나무 등을 떠내려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리 교각 앞에 철구조물을 세웠고, 다리가 물속에 잠길 때면 물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하여 난간을 세우지 않았다.

최근에 이 다리 남쪽에 큰 다리인 임진교(臨津橋)가 새로 건립되어 있다.

무등실(舞登谷)

흥원사 북쪽에 있는 골짜기. 무등리에 500여 년 간 집성을 이루고 사는 ≪공주이씨족보≫에 의하면, 예전에 이 골짜기 안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공주 이씨가 집집마다 키우던 소를 낮이면 우정리의 소못개벌판으로 내 몰아 방목을 하고, 저녁이면 목동들이 피리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며 소를 몰고 마을로 돌아온다 하여 춤출 '무(舞)' 자와 오를 '등(登)' 자를 써 무등리라 하였다 한다.

그러나 '무등' 의 원뜻은 지금 통용되고 있는 한자표시인 '無等' 또는 '舞登' 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임진강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전국적으로 '무등' 이란 땅이름을 가진 곳은 이곳 외에도 수 없이 나타나는데 지정학적으로 '큰 강 옆의 저지대가 되어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자주 침수가 되면서 물이 들판을 이루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곳 '무등' 의 어원은 '물의 들판' 이라는 뜻의 뿌리 말인 '물들' 이 아래와 같이 ㄹ이 탈락하고 전음되면서 실제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한자지명의 '無等' 으로 굳어버린 것임을 알 수 있다.

2. 노동리(蘆洞里)

본래 마전군 북면의 지역으로, 목은 이 색(李穡)의 5대 손이며, 청주목사를 역임한 이명은(李命垠)이 지금의 노동리에 정착했을 때 갈대가 무성히 우거져 있어 '갈울(蘆洞)' 이라 이름지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천군 왕징면으로 편입되었다가, 1945년 8 · 15 광복 이후 3 · 8선 북쪽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 공포에 의하여 행정권이

목은 이색 영당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1개의 행정리, 3개 반,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우렁산(134m)

재팟골 동쪽, 무등리와 경계에 있는 산, 전설에 의하면 이 산의 형상이 우렁이와 같다 하여 지어진 이름인데, 서쪽에 있는 두리산의 황새봉이 먹이 형국인 이 우렁산을 늘 쪼아 먹으려는 형세이나, 개룽지개울이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 되어 먹지 못한다 한다.

6 · 25 전에는 매년 음력 9월이면 이 산 정상에 있던 산제당에서 산제를 올렸다 한다.

3. 동중리(東中里)

본래 마전군 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기존의 동막리(東幕里)와 중동리(中洞里)를 병합하여 동막과 중동의 이름에서 한 자씩 따 동중리라 하여 연천군 왕징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 이후 3 · 8선 북쪽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 공포에 의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1개의 행정리, 5개 반,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동중리사지(東中里寺址, 절터)

자가산 서쪽에 있는 절터. 지금은 절터 전체가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원래 건물지가 있던 곳에는 자연석을 이용한 축대의 흔적이 약간 남아 있으나 이미 오래 전에 멸실된 상태이다. 건물지를 중심으로 약 50여평 넓이에서 와편, 토기 · 자기편들을 쉽게 수습할 수 있으나, 많은 양은 아니며 출토유물로 보아 고려 후기에서 조선 중기에 경영되었던 사찰로 추정될 뿐 문헌에 상세하지 않아 사명(寺名) 및 연혁은 미상이다.

4. 북삼리(北三里)

본래 마전군 북면의 징파리(澄波里)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기존의 외곡리(外谷里) · 애동리(艾洞里) 등, 마전군 북쪽에 있는 3개 동리를 병합했다 하여 북삼리라 이름지어 연천군 왕징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8 · 15 광복 이후 3 · 8선 북쪽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나, 현재 민통선 지역에 놓여 있어 일부 지역에만 민간인이 입주해 있다.

현재 1개의 행정리, 8개 반,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징파나루(澄波渡, 屯田渡)

현재 북삼리와 삼거리를 이어주는 북삼교 가설 전에 있던 임진강의 큰 나루터. 다산 정약용의≪대동수경 권8≫에 의하면 "이 곳의 강물은 강바닥의 자갈이 훤하게 비칠 정도로 물 빛깔이 맑다 하여 징파강이라 이름지었다 한다". (澄波渡水色澄淸故名...,)라고 이곳의 유래를 적고 있다.

그러나, ≪高麗史 五行志≫에 의하면 "고려 우왕 11년(1385년) 징파강에 누렇게 흐린 물이 3일 동안 흘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고려 멸망의 징조를 미리 예견하는 일도 있었다 한다.

또한 이 곳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한양과 함경도를 연결해 주는 대로(大路 = 驛路)가 이 나루로 연결되었었고, 북삼리 마을에는 둔밭(屯田)이 있었다 하여 '둔밭나루' 로도 불리워지는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이 곳을 소재로 하여 아래와 같은 2편의 시가 실려 있기도 하다.

배중부(裵仲孚)의 징파도 시

澄波江水浸苔巖	징파 강물에 이끼낀 바위 잠겼는데
細雨斜風送客帆	비낀 바람 가랑비 속에 객선은 멀어져 가네.
隔岸漁村知有酒	강 건너 언덕 고기잡는 마을에 술 있는 걸 알았으니
興來猶家典春衫	흥이 나면 봄옷 맡기기 알맞겠네.

안 축(安軸)의 징파도 시

古渡舟如葉	오래된 나루터에 배는 잎새 만한데
天寒波更澄	날씨 추우니 물은 더욱 맑구나.
崩崖懸醜石	무너진 비탈엔 기이한 돌 달려 있고
斷岸積層氷	끊어진 언덕엔 층층이 얼음 쌓였네.
狼鳥近堪	낭조는 가까워 쓸만하고
遊魚深莫	노는 고기는 깊어서 그물로 떠낼 수 없구나.
師敢輕賤	사공을 감히 업신여길 소냐
手有濟人能	그 손(手)은 사람 건너 주는 능력 있네

북삼리 징파나루터(둔전나루라고도 함) 현재는 콘크리트 다리가 놓여져 있으나 예전에는 배를 타고 건너 다녔다.

쇠고개(牛峴)

안터에서 강내리로 넘어 가는 고개로, 북삼리와 강내리의 사이에 있다 하여 사이의 뜻인 '새'가 지방사투리에서 '쇠'로 쉽게 음이 변하는 현상(특히 경기북부 지방에 많이 나타난다.)으로 보아 원애 '새고개(間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소(牛)'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 오기도 한다.

옛날 이 마을에 살림이 넉넉한 기와집에 홀아비와 성장한 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아버지가 실성을 하여 자기 딸을 보고 아내가 되어 달라고 하자, 그 딸은 실성한 아버지에게 한가지 청하기를 머리를 헤쳐 풀고 소와 같은 모습으로 이 고개를 내려오면 그 청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한다. 실성한 아버지는 그 즉시 이 고개로 올라와 머리를 헤쳐 풀고 소의 흉내와 함께 '움메 움메' 소리를 내면서 내려와 보니 딸이 자결을 했다 하여 그 뒤 부터 이 고개를 '쇠고개'라 불리워지게 되었다 한다.

벙바위

징파나루 남쪽, 임진강 옆에 있는 큰 바위. 예전에 부엉이가 많이 서식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며, 고양이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여 '괭이바위'로도 불리워지는데 이 바위에 얽힌 자세한 유래는 아래와 같다.

옛날 풍수지리에 능통한 한 도승이 하루는 이곳을 지나다가 임진강 옆에 있는 이 바위를 자세히 보니 고양이형국을 하고 있고, 임진강 건너 맞은 편에는 쥐가 앉아 있는 형상의 산이 있는데, 마침 이 산에는 이씨의 조상 묘가 있었다 한다. 길을 가던 도승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고양이 앞에 쥐는 기를 펴지 못하는 법이라, 이씨 집안에는 벼슬을 할 수 없을 것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세히 알아보니, 과연 이씨 집안에는 벼슬길에 오른 사람이 없고 가세마저 점점 기울어 가는 지경에 처해 있었다 한다.

그 길로 이 도승은 이씨 집을 찾아가 자세한 연유를 설명하고 한 가지 묘안을 일러주었는데 다름아닌, 고양이의 눈에 해당하는 벙바위 윗부분을 거적으로 가려준다면 억눌려 있는 쥐산의 기운이 피어 이씨 가문이 금시 발복하게 될 것이니 11년 동안만 매년 새거적을 덮어 줄 것을 당부하고 어디론가 떠나 버렸다 한다.

도승의 이야기를 들은 이씨 집안에서는 그 방법대로 거적을 씌우니 3년 안에 무과에 급제하여 임금의 총애를 받는 포도대장이 나왔다 한다. 그러나 천하에 부러울 것이 없는 지위에 올라 게을러진 이 대장은 날이 갈수록 성격이 포악하고 거칠어져 사람을 의자삼아 앉았으며, 그

권력을 빙자하여 사람의 목숨마저 경시하여 죽이는 등의 행동으로, 주위의 노여움과 원한이 차츰 쌓여 갔고 도승이 일러준 비방마저 지키지 않아 3년 동안만 거적을 씌웠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자 거적이 모두 헐고 썩어 없어지게 되었다 한다.

그 때 마침, 우연하게도 이 대장의 방자한 행동이 임금에게 알려지게 되어 그는 극형에 처해졌고 잠시 뜬 구름처럼 영화를 누렸던 이씨 집안도 예전 형편으로 몰락하였는데, 이에 화가 난 이씨 집안에서는 이 고양이바위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 하여 바위를 부수니 깨진 바위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천둥번개가 때려 그 일족 모두가 화를 당했다고 하며, 지금도 이 바위에는 그 때의 붉은 핏자국이 남아 있어 이 바위색이 붉다고 한다.

5. 강서리(江西里)

본래 연천현(漣川縣) 서면(西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기존의 계명리(鷄鳴里)·군영리(軍營里)·영정리(永貞里)를 병합하여 임진강의 서쪽이 되므로 강서리라 하여 왕징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15 광복 직후 3·8선 북쪽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3년 동안의 6·25가 끝난 그 다음 해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 공포에 의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나, 휴전선과 인접한 민통선 지역이 되어 현재 민간인이 살고 있지 않고 출입영농만 가능한 하나의 법정리이다.

숙종임금이 미수허목선생에게 하사한 은거당, 현재는 터만 남아있다.

군영장거리(軍營場巨里, 軍營里)

은거당터 서쪽에 있었던 옛 왕징면의 소재지 마을. 조선 후기 연천현감을 역임했던 신유한(申維翰. 1681~1752)의 ≪靑泉集.四≫에 실려

있는「觀許相國恩居堂園記」에는 "이 마을은 고려 태조 왕건이 한 때 군사를 주둔시켰던 곳으로 이 곳 마을 사람들은 군영이라 부른다"...(원문: 村以高麗太祖駐兵處俗呼軍營)라고 이곳의 유래를 적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연천현의 서면, 행정구역이 개편된 일제 강점기 때에는 왕징면의 행정, 교육, 치안의 중심지었고 연천 · 삭녕 · 장단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모여 들어 장이 형성되었던 곳이다. 그러나, 6 · 25로 폐허가 되어 지금은 이 일대 모두가 농경지로 변해 있다.

6. 강내리(江內里)

본래 연천현(漣川縣) 서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기존의 안월리(安月里) · 소포리(小浦里) · 야전리(野前里)를 병합하여 임진강의 안쪽이 되므로 강내리라 하여 왕징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 이후 3 · 8선 북쪽이 되어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나, 현재 휴전선과 인접한 민통선 지역이 되어 민간인이 살고 있지 않고 출입영농만 가능한 지역이다.

7. 고왕리(高旺里)

본래 장단도호부 강동면(江東面)의 기곡리(基谷里) 지역인데,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의해 강동면이 마전군으로 편입되면서 강신면(江新面)으로 개칭됨과 동시에 고왕산(高旺山)에서 이름을 따 고왕동이 하나의 법정리인 고왕리가 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기석리(基石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연천군 왕징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8 · 15 광복 이후에는 3 · 8선 북쪽이 되어 공산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나, 현재 군사분계선을 포함한 남방한계선의 안에 위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강희백의 묘소

고왕산 (高旺山, 高陽山, 烽火山, 말무덤산, 355m)

고왕리 · 고잔상리 · 고잔하리에 걸쳐 있는 왕징면에서 가장 높은 산. 옛 장단의 지리지에는 "高陽山"으로도 기록되어 있으나, 원래의 의미는 '王' 자 들어가 있는 산이름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이고 단순한 뜻인 '높음' 또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왕산의 경우에는 임진강 서쪽으로 펼쳐져 있는 장단 지역의 구릉지대에 외따로 높이 솟아 있어 예부 터 이 산을 신성하고 거룩한 존재로 숭배했던 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는 산이름이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산 정상에 천자(天子)가 나올 명당자리가 있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투장(偷葬)을 했으나, 그 즉시 심하게 가뭄이 들고 주변 마을에 불상사가 계속 일어나 이 행위를 금기시 하였다 한다.

또한 예전에는 이 산 정상에서 봉화를 올렸다 하여 '봉화산' 이라고도 하였고, 일제 강점기 때에는 이 산의 혈을 끊기 위해 일본인들이 무쇠 말뚝을 묻었다 하여 '말무덤' 산으로도 불리웠던 곳이다.

어렸을 때 이곳으로 소풍을 갔던 제보자들의 증언으로는 평평한 대지를 이루고 있는 산 정상에 큰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8. 기곡리(基谷里)

본래 장단도호부의 강동면(江東面)지역으로, '터골' 또는 '터일' 이라는 골짜기가 있어 기곡리(基谷里)라 하였는데,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강동면이 마전군으로 편입되면서 강신면(江新面)으로 개칭되었고, 기곡리는 기곡(基谷) · 기석(基石) 2개 리로 분할되었다.

그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강신면이 연천군 왕징면으로 편입되면서 기곡리 · 기석리 · 산점리(山店里)를 병합하여 기곡리라 하여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 이후 3 · 8선 북쪽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6 · 25가 끝난 그 다음 해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나, 현재 군사분계선이 중앙에 놓여 있어 남북으로 분리되어 있는 완충지대에 속해 있다.

9. 작동리 (鵲洞里)

본래 마전군 서면의 지역으로, 까치와 닮은 형상의 산이 있으므로 '까치울' 또는 '작동리' 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천군 왕징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과 더불어 3 · 8선 북쪽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 공포에 의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나, 현재 휴전선과 인접한 민통선 지역이 되어 출입영농만 가능한 지역이다.

10. 고잔리(高棧里)

본래 장단도호부 강동면(江東面)의 곶잔리(串棧里)라 하였으나, 조선조 말에 와서 고잔리(高棧里)로 개명하였다.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강동면 전지역이 마전군으로 편입되면서 강신면(江新面)으로 개칭됨과 동시에 고잔리가 상 · 중 · 하 3개 리로 분할되었으며, 1914년 군 · 면 폐합에 따라 연천군 왕징면으로 편입되면서 고잔상 · 하의 2개 리로 다시 개편되었다.

1945년 8 · 15 광복 이후에는 3 · 8선 북쪽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공포에 의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나, 고잔상 · 하 전 지역이 군사분계선을 끼고 있는 완충지대가 되어 지금은 민간인이 살고 있지 않다.

신서면 新西面

신서면은 원래 강원도 철원도호부의 외서면 지역으로 신탄리, 웅기리, 대광리, 신순리, 내산리, 빈연리, 고라동리, 도랑리, 중사리, 공장동리, 성평리, 속전리 등 12개리를 관할하였는데 1895년(고종 32)외서면이 신서면으로 개칭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 폐합에 따라 기존의 12개리를 대광리, 도신리, 내산리, 마전리, 답곡리의 5개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정권이 수복되어 민간인 입주가 허용되었다. 1963년 1월1일 법률 제 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인접지역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철원군 인목면의 검사리, 승양리, 갈현리, 덕산리, 도밀리, 신현리 등 6개리를 병합하여 연천군에 편입되었으나 현재 대광리, 도신리, 내산리 지역에만 민간인이 입주해 있고 마전, 답곡리는 출입 영농지역, 나머지 인목면의 6개리는 군사분계선을 끼고 있는 완충지대 및 이북지역에 속해 있다.

신서면의 동쪽은 포천시 관인면, 남쪽은 연천읍, 서쪽은 중면, 북쪽은 강원도 철원군의 철원읍과 휴전선에 닿아 있다. 여기서는 조사가 가능했던 대광, 도신, 내산, 마전, 답곡리에 대해서만 그 유래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대광리

본래 철원도호부의 외서면 지역으로, 1895년(고종 32) 외서면이 신서면으로 개칭되면서 신서면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기존의 웅기리*신탄리를 병합하여 대광리라 하였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민간인 입주가 허용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인접지역의 행정구역에 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강원도 철원군에서 연천군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2개 행정리, 20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신탄리[新炭里]

새숯막, 신탄리역 주위에 있는 큰 마을. 현재 대광 2리 지역에 해당하며, 경원선의 마지막 역으로 철도가 중단되는 곳이다. 예전부터 고대산의 풍부한 임산 자원을 목재*숯으로 가공하여 생계를 유지했던 마을로, 『여지도서』에도 "新炭"이라 적혀 있으며 철도가 부설된 뒤로는 숯 가공이 더욱 번창했다 한다.

그러나 '새숯막'이라는 지명이 대광리와 철원 사이에 주막거리가 새로 생겼다 하여 '새술막[新酒幕]'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한자로 지명을 옮기는 과정에서 '술'을 '숯[炭]' 자로 잘못 표기하였다는 설도 있다.

신탄리역

역 고드름

역 고드름

역 고드름은 신서면 대광리 고대산 중턱 경원선 옆 폐 터널 내에 있으며 땅에서 고드름이 역으로 솟아올라 무리를 이루고 있다.

폐터널은 경원선 종착역인 신탄리역에서 북쪽으로 약 3.5㎞ 가량 떨어진 고대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년도 · 사용목적 등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규모 및 형태로 보아 일제시대 경원선 복선공사로 터널시공 중 일본 패망으로 인해 중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폐터널 입구에 역고드름이 석순이 자라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터널 안 땅바닥에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자라있다.

이러한 현상은 터널 안 온도차이로 발생하는 물방울들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고드름이 거꾸로 열리는 현상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형성원인은 밝혀진 바 없다. 역 고드름은 매년 12월부터 2월 중순까지 두달 남짓 신기한 형상을 드러내고 있

으며 길이는 50~150㎝, 폭은 5~30㎝에 이른다.

추운날씨 일수록 그 크기가 더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마다 겨울철 명품 볼거리로 각광을 받아온 연천 거꾸로 솟는 고드름 군락지는 해마다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3. 도신리

본래 철원도호부의 외서면 지역인데, 1895년(고종 32) 외서면이 신서면으로 개칭되면서 신서면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기존의 도랑리*신순리*빈연리 등 3개 리를 병합하여 도신리라 하였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어 민간인 입주가 허용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철원군에서 연천군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5개 행정리, 44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4. 내산리

본래 철원도호부의 외서면 지역으로, 험준한 보개산의 안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내산리라 하였으나, 1895년(고종 32) 외서면이 신서면으로 개칭되면서 신서면으로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고 민간인 입주가 허용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수복지구와 동인접지역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철원군에서 연천군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1개 행정리, 3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산리 원심원사

5. 마전리(馬田里)

본래 철원도호부의 외서면 지역인데, 1895년(고종 32) 외서면이 신서면으로 개칭되면서 신서면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기존의 성평리(城坪里)와 속전리(粟田里)를 병합하여 성평리에 속해 있던 갈마동(渴馬洞)의 '마' 자와 조밭골[粟田里]의 '전' 자를 따서 마전리라 하였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며,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철원군에서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마전리 전지역이 휴전선과 인접한 민통선 지역이 되어 현재 출입 영농만 가능한 1개의 법정리 지역이다.

6. 답곡리

본래 철원도호부의 외서면 지역인데, 1895년(고종 32) 외서면이 신서면으로 개칭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기존의 고라동리*중사리*공장동리*성평리의 일부를 병합하고 논골에서 이름을 따와 '답곡리' 라 하였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며,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철원군에서 연천군으로 편입되었다. 현재 휴전선과 인접한 민통선 지역이 되어 출입 영농만 가능한 법정리이다.

윗논골[上畓谷, 畓洞]

잣나무골 남쪽에 있던 마을. 『순천이씨세보』에 의하면, 조선 초 연천읍 현가리 도당골에 은거했던 이양소의 손자 이눌(李訥)이 부친 이극문(李克文)이 세상을 뜨자 이곳에 모시고 묘 아래에 살면서 근처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경작했다고 한다.

그후 마을 사람들이 이눌의 고사에 의해 이곳을 '노은동(老隱洞)' 또는 '논골[畓洞]' 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윗논골*아랫논골*건너말에 이안눌의 후손인 순천 이씨(順天李氏) 40여 호가 집성촌을 이루었다.

중면中面

연천군 2읍 8면의 하나. 이 면은 본래 연천현의 지역으로, 연천 읍내에서 북쪽에 위치하므로 북면(北面)이라하여 수회리(水回里) · 삼곶리(三串里) · 횡산리(橫山里) · 중산리(中山里) · 사동리(沙洞里) · 적거리(赤巨里) · 마거리(馬巨里) 등 7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하수회리(下水回里) · 상삼곶리(上三串里) · 하삼곶리(下三串里) · 중산리 · 횡산리 · 사동리 · 적거리 · 마거리의 8개 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그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천군의 중앙에 위치한다 하여 북면을 중면으로 개칭하여 삼곶 · 횡산 · 중사 · 적거 · 마거 · 합수의 6개 리로 다시 개편, 관할하여 오다 1945년 8 · 15광복 이후 전 지역이 3 · 8선 북쪽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나, 6개 리 전지역이 민통선 북쪽에 위치하여 입주하지 못하고 연천읍에 면사무소를 신설하여 법정 6개 리에 대한 호적업무만 취급하여 오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과거 삭녕면(朔寧面) 지역이었던 도연(陶淵) · 적음(笛音) · 진곡(辰谷) · 어적산(漁積山) · 적동산(積洞山) · 삭녕(朔寧) · 대사(大寺) · 여척(餘尺) · 고마(古馬) · 상마산(上馬山) 등 10개 리가 중면으로 편입되어 16개의 법정리가 되었다.

그 후, 1980년 1월 1일 삼곶리와 1985년 9월 20일에는 횡산리가 차례로 행정리로 승인되어 민간인이 입주하였고, 1992년 7월에는 연천읍에 있던 면사무소가 삼곶리에 새로 이전 준공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19km의 휴전선을 안고 있는 중면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삼곶리와 횡산리는 민간인이 입주하였으나, 합수리 · 적거리 · 마거리 등 3개 리는 출입영농만 가능한 상태이고 그 나머지 지역은 완충지대 및 북한 지역에 속해 있다.

면의 동쪽은 신서면과 연천읍, 남쪽은 군남면과 왕징면, 서쪽은 임진강을 경계로 한 왕징면, 북쪽은 휴전선에 닿아 있다.

1. 삼곶리(三串里)

본래 연천현 북면의 지역으로, 임진강쪽으로 세 개의 큰 산부리가 뻗어나와 있으므 로 '삼고지' 또는 '삼꾸지' 라 하였는데,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상삼곶리(上三串里)와 하삼곶리(下三串里)로 분리하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다시 하나의 법정리인 삼곶리라 하여 중면에 편입되었고, 1945년 8 · 15 광복 이후 3 · 8선 북쪽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나, 민통선 지역이 되어 출입영농만 하여오다 1980년 1월 1일 민간인 입주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1개의 행정리, 1개 반,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 곶(串) : 곶이란 원래 '입(口)' 이란 뜻으로, 땅의 한 끝부분이 어느 한편으로 새의 부리처럼 불쑥 뻗어 나간 곳을 뜻하는 말로 해안이나 큰 강 부근의 지명에 많이 나타난다.

현금성주사 순직위령비(玄金城主事 殉職慰靈碑)

삼곶리 마을에 있는 위령비. 6 · 25의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던 1950년 10월 경, 당시 중면 일대는 미처 북으로 퇴각하지 못한 많은 수의 적 잔여부대가 산속에 숨어 지내며 밤낮으로 부락에 침입하여 식량과 재산을 약탈하는 등의 갖은 만행으로 불안과 긴장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나, 강한 반공정신으로 뭉쳐 주민들 스스로 조직된 자치위원(自治委員)들과 대한청년단원(大韓青年團員)들은 자체 무장을 하여 적들과 수 많은 전투를 하며 치안유지를 하고 있던 중, 그해 11월 20일 자치위원회에서 중면사무소로 행정권이 정식 이양되었고 당시 자치위원회의 일원이었던 현금성씨는 중면 합수리에 거주하면서 중면 서기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던 12월 5일, 합수리 지역에 적 폐잔병 수명이 잠입했다는 정보에 따라 담당지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출동한 현주사는 의심지역을 수색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적 1개 소대 병력과 교전도중 아깝게도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다.

전후 중면면민회가 결성된 그 다음 해인 1987년 8월 16일, 삼곶리 마을회관에서 개최된 제2차 면민회의 석상에서 이 고장 출신 김상희(金相熙)씨로부터 반공전사 현금성위령비 건립의 눈물어린 제의에 의해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그후 356명 면민들의 성금과 현문수 면민회장의 정성어린 노력에 의해 1989

년 4월 5일 현금성주사 위령비 건립의 결실을 맺게 되어 이곳을 지나는 이들에게 통일의 염원과 나라사랑의 교훈을 일깨워 주고 있다.

연천 삼곶리 돌무지무덤

1994년 4월 20일 시도 기념물 제146호로 지정되었다. 임진강변의 발달한 계단식 충적지대에 있는 대형 돌무지무덤(적석총)으로 발굴조사 전에는 '방파제' 또는 '애기무덤' 으로 전해왔다.

삼곶리 돌무지 무덤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땅을 평평하게 정리한 다음 그 위에 한두 겹의 자갈돌을 깔아 무덤터를 마련하였다. 동 · 서 2개의 무덤은 덧붙여지어진 쌍분으로 평면형태가 표주박형에 가깝다. 무덤 북쪽에는 제단 시설로 생각되는 무덤 지역이 있다. 덧널(곽) 안에서는 사람뼈 조각, 쇠로 만든 화살촉, 구슬들이 나왔고 그 주변에서 토기조각과 숫돌들이 발견되었다. 전체적인 무덤의 양식이나 유물로 보아 이 무덤은 백제 초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연천 삼곶리 돌무지무덤은 고대 무덤양식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백제의 영역을 이해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유적이다.

이 유적은 수해를 막기 위한 방파제 또는 애기무덤이라고 전하여 왔으나, 1992~93년에 이루어진 발굴 조사를 통하여 기원후 2~3세기 무렵의 백제시대 돌무지무덤으로 밝혀졌다. 이 무덤은 초기 백제의 무덤 양식 뿐만 아니라 당시 백제의 영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무덤은 임진강 언저리에 발달한 계단식 충적지대에 위치하며, 강가에서 약 500m 쯤 떨어져 있다.

무덤을 만들기 위하여 먼저 땅을 평평하게 정리한 다음, 그 위에 한두 겹으로 자갈돌을 깔아 길이축이 동서 방향으로 놓이도록 길이 28m, 너비 11m의 무덤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무덤터의 중심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2기의 덧널이 1m의 거리를 두며 축조되었다. 무덤의 북쪽에는 제단 시설로 추정되는 묘역을 갖추고 있었다. 덧널의 크기는 길이 2.5~2.7m, 너비 1.4m, 높이 1.1~1.2m이다. 덧널 안에서는 사람

뼈 조각 · 철제 화살촉 · 구슬 등이 나왔고, 덧널 주변에서 토기 조각 · 숫돌 등이 발굴되었다. 이 돌무지무덤의 아랫부분 지층에서 초기 철기시대로 보이는 집자리 1기가 확인된 바 있다.

2. 횡산리(橫山里)

본래 연천현 북면의 지역으로, 이 마을 북쪽에 비끼산이 있어 '비낄 횡(橫)' 자와 '뫼 산(山)' 자를 따서 횡산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중면에 편입되었고 8 · 15 광복 이후 3 · 8선 북쪽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나, 남방한계선과 인접한 민통선 지역이 되어 출입영농만 하여오다, 1985년 9월 20일 군조례 "제1019호"에 의해 행정리로 승인되면서 일부 지역에 민간인이 입주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1개의 행정리, 2개 반,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횡산기(橫山記)

횡산(橫山)은 연천(漣川) 북쪽 강가에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송림(松林)과 사장(沙場)이 아래 위로 널려 있고 남쪽 언덕은 모두 층암 절벽이며, 벌여 있는 산에는 숲이 우거졌으며 앞에는 옛 나루터가 있다.

강 가운데 돌이 많아 배가 돌을 스치며 지나는데, 물살이 세어서 자칫 실수하면 배가 돌에 걸려 건너갈 수 없게 된다. 서쪽으로 장경대(長景臺)의 석벽이 바라보이고 동남쪽이 석저 협구(石渚峽口)인데, 절벽위에 도영암(倒影庵)이라는 절이 있다. 그 법당(法堂)이 강을 굽어보고 있어, 중이 가사를 입고 검은 두건을 쓰고 염주를 굴리며 불경을 외는 것과 도끼를 들고 나무하는 사람, 동이를 들고 물 긷는 사람이며 쌀 씻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모두 그 밑 깊은 못에 비치므로 내려다보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다.

그 아래는 망제여울(望諸灘)이요, 또 그 아래는 장군여울(將軍灘)인데, 장군여울 아래 웅연석벽(熊淵石壁)에서 이상한 석문(石文)을 보았으며, 강가에는 석린(石鱗)과 석묵(石墨)이 나고 오래 사는 사람이 많았다.

옛날에 90살 된 효자 정희열(鄭希說)이 있었는데 부모상을 잘 치러서 3년동안 죽만 먹고 곡하였으며, 나이 90인데도 부모를 애모하는 생각이 조금도 쇠하지 않았다. 종[婢]인 금월(今月)은 일찍이 과부가 되었는데, 재가(再嫁)하지 않고 나이 80여세가 되도록 그 자손들에게 가르치기를, "남을 속이지 말고 남과 다투지 말라!" 하였

는데, 지금까지 1백년 동안에 그 마을의 습속으로 되었으며, 촌 노인들이 옛이야기를 이와 같이 전하고 있다.

병자호란(丙子胡亂) 때의 절부(節婦) 두 사람 중에, 수재(秀才) 권 술(權述)의 아내 정씨(鄭氏)는 강가에 절부정문(節婦旌門)이 있고, 그 한 사람은 잊었다. 미수는 기한다. · 절부정씨(節婦鄭氏)의 절행은 ≪여지도서≫ 연천현 편과 ≪광무읍지≫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실려 있다.

"정씨는 사인(士人: 학식은 있되 벼슬하지 않은 선비)권 술의 처로 병자호란 때 적군을 만나자 벼랑에서 몸을 던져 정조를 지킨 의로운 죽음을 하였는데,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인조 16년(인조. 1638) 이 곳에 정려가 내려졌다."

※ 위 기록은 미수 허목의 ≪記言別集≫ 제7권 "記"에서 옮긴 것이다.

빙애(氷崖)

중군터 북쪽에 있었던 마을. 삼곶리에서 이 마을까지 오는 동안 임진강 옆으로 펼쳐져 있는 길고 높은 절벽인 빙애(氷崖)가 있어 지어진 이름으로, '빙애'와 '안빙애'로 나누어진다. 6 · 25 전에는 남양 홍씨가 20여호 살았던 곳이다.

남양홍씨 팔효문

중면 횡산리의 민통선 지역 안에 위치한 정려문(旌閭門)이다. 지극한 효심과 부모에 대한 봉양을 행한 남양홍씨 1효부, 7효자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정조(正祖)조에 건립되었다고 전해지며, 현재의 것은 한국전쟁 중에 소실되었던 것을 1988년 10월 당시 남양홍씨 문중에서 '팔효문 건립추진 위원회'를 조직하여 건립추진위원회 고문인 홍재안, 홍성종, 홍순창과 추진위원장인 홍우종, 부위원장인 홍덕종, 홍걸종, 홍순겸 및 위원회 총무인 홍순익 등 팔효문 건립추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남양홍씨 종친들이 뜻을 모아 선현의 뜻을 기리고 후세의 귀감으로 삼고자 새로 복원한 것이다.

이들 효행자의 목록은 홍여공(洪汝恭, 1377~1440)의 아내 효부 동래정씨(東萊鄭氏), 효자 홍한경(洪漢卿), 효자 홍림(洪霖), 효자 홍범(洪範, 1605~1693), 효자 홍삼준(洪三俊, 1644~1715), 효자 홍삼석(洪三錫, 1654~1718), 효자 홍하적(洪夏績, 1700~1778), 효자 홍종옥(洪宗沃, 1737~1787)이다.

효부 동래정씨는 시아버지가 심한 등창으로 치료할 방법이 없게 되자 밤낮을 쉬지 않고 종기를 빨아 3일만에 소생시킨 공으로 정려를 받았다. 효부 동래정씨의 묘는 양주군 광적면에서

남양홍씨 팔효문

중면 횡산리 고동골로 홍여공 묘와 합장하여 이전하였다. 효부 동래정씨의 손자인 홍한경은 이조참의를 역임하였으며 아버지가 전염병으로 닭고기를 먹고 싶다 하자, 의원이 닭고기가 병에 크게 해로울 것이라 하므로 감히 올리지 못하였는데, 마침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이를 통탄하게 생각하여 평생 닭고기를 먹지 않고 유언에도 자기 제사에는 닭고기를 쓰지 말라고 했다한다. 묘는 파주군 교하면에 있다.

홍한경의 손자인 홍 림은 이조정랑을 역임했다. 어머니 전주이씨가 병환이 급하여 소생할 길이 없자 손가락을 잘라 어머니 입에 피를 흘려 넣어 마침내 소생시켜 천명을 누리게 하였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을 눈물로 거상하였다. 묘는 파주군 교하면에 있다.

홍림의 손자인 홍 범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어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였다. 병자호란때 어머니가 병들어 세상을 떠나자 거상의 예절에 소홀함이 없었다한다. 묘는 중면 횡산리 고동골에 있다.

홍범의 맏아들 홍삼준은 아버지가 치료 불가능한 큰 종기가 생겨 매우 위독할 때 아우들과 함께 16일 동안 환부를 빨아 회생시켰다. 묘는 중면 횡산리 고동골에 있다.

홍범의 삼남인 홍삼석은 형과 같은 효행으로 예조참의가 추증되었다. 묘는 횡산리 안골에 있다. 홍삼준의 손자 홍하적은 아버지가 급한 병에 걸려 방어를 찾자, 하적이 울며 시냇가에 방황하니 마침 바다에만 나는 방어 한 마리가 얕은 물에서 뛰어 노는 것을 보고 잡아서 올리니 회생하였다. 벼슬은 감역을 역임하였고 묘는 횡산리 동막골에 있다.

홍삼준의 증손 홍종옥은 지극한 효심이 있는 자로 어머니 평산 신씨가 병환이 급하여 앵두를 찾았으나 때는 9월이 되어 앵두를 구할 수 없었다. 종옥이 나무를 향하여 간절히 비니 10여개의 빨간 앵두가 서리 맞은 나뭇가지에 달려 있는 기적이 일어나 어머니가 소생하였다. 효행으로 천거되어 지평이 되었으며 묘는 황산리 안빙애에 있다.

3. 중사리(中沙里)

본래 연천현 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중산리(中山里)와 사동리(沙洞里)를 병합하여 중산과 사동의 이름에서 한자씩 따 중사리라 하여 중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 이후 3 · 8선 북쪽이 되어 공산 치하가 되었다가, 6 · 25가 끝난 그 이듬해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나, 전 지역이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완충 지대가 되어 현재 민간인이 살고 있지 않은 하나의 법정리이다.

밤고개(栗峴)

중사리와 삼곶리 사이에 있는 큰 고개. 전설에 의하면 예전에 부친상을 당한 작은상제(喪制)가 소상(小祥)을 지내기 위해 양주에서 밤 한 말을 사 짊어지고 이 고개를 오르고 있었는데, 그 때 갑자기 심한 돌풍이 불어 머리에 쓰고 있던 방갓(方笠 – 상제가 밖에 나갈 때 쓰는 갓)이 훌렁 벗어지며 옆에 서 있던 큰 나뭇가지에 걸리게 되었다 한다.

당시 상제의 신분에서는 방갓을 써야만 했던 엄한 풍습 때문에 더욱 난처하게 된 이 상제는 할 수 없이 나무에 기어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나무에 올라 방갓이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에 다가가는 순간 실수로 발을 잘못디딘 상제는 이 나무 위에서 떨어져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 뒤로 상제가 죽은 이 고개를 밤고개라 부르게 되었다. 라는 유래를 간직하고 있으나, 땅이름의 원뜻을 캐는 음의 변화 과정으로 본다면 이 고개의 유래는 '밤(栗)' 과는 무관한 아래와 같은 풀이로 나타난다.

먼저 이 고개는 중사리와 삼곶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큰 고개로 주변의 다른 고개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산을 넘어 가는 긴 거리를 가진 '산고개' 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아 산을 뜻하는 옛말인 '받' 이 음이 변하여 '밤' 으로 굳어져 전국적으로 흔히 분포하는 현상으로 본다면 '밤고개' 는 '밤(栗)' 과는 무관한 단순히 '산을 넘는 고개' 라는 원래 뜻이 변형되면서 상제의 슬픈 전설을 낳게 된 고개 이름이다.

태풍전망대

4. 마거리(馬巨里)

본래 연천현 북면의 지역으로, 합수리로 내려가는 마거리개울에 말과 같은 형상의 큰 바위가 있으므로 마거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중면에 편입되었고, 1945년 8 · 15 광복 이후 3 · 8선 북쪽이 되어 공산 치하에 되었다가, 6 · 25 가 끝난 그 다음해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나, 현재 민통선 지역이 되어 민간인이 살고 있지 않은 하나의 법정리이다.

5. 적거리(赤巨里)

본래 연천현 북면의 지역으로, 붉은 홍주석(紅柱石 : 斜方晶系 長柱狀의 硅酸 알루미나의 鑛物)이 많이 나와 적거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중면에 편입되었고 8 · 15 광복 이후 3 · 8선 북쪽이 되어 공산 치하가 되었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나, 전지역이 민통선 북쪽에 놓여 있어 현재 민간인 미입주 상태에 있는 하나의 법정리이다.

6. 합수리(合水里)

본래 연천현 북면의 지역으로, 마거리에서 발원하여 합수리의 중앙을 흐르며 임진강에 합류하는 긴 하천이 크게 휘돌아 곡류(曲流)하므로 수회리(水回里)라 하였는데,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상수회리(上水回里)와 하수회리(下水回里)로 분할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북면의 하수회리와 연천군 동면에 속해 있던 상수회리를 다시 병합하여 합수리라 하여 중면에 편입되었으나, 8 · 15 광복 이후 3 · 8선 북쪽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나, 합수리 전지역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민통선 지역이 되어 현재 출입영농만 가능한 하나의 법정리 지역이다.

풍천임씨 문하부사 임구 신도비 제막식 광경 중면 합수리에 있다.

장남면 長南面

연천군 2읍 8면의 하나이다.

이 면은 본래 장단도호부(長湍都護府)의 장현내면(長縣內面) 지역으로, 판부리(板浮里) · 자작리(自作里) · 고읍리(古邑里) 등 3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4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고남면(古南面)의 원당리(元堂里)와 장서면(長西面)의 관송리(貫松里) · 반정리(伴程里)를 병합하여 장현내면의 "長"자와 고남면의 "南"자를 따서 장남면이라 하여 원당리 · 자작리 · 판부리 · 고랑포리 · 반정리의 5개 리로 개편하여 관할하여오다, 1945년 8 · 15 광복 이후에 자작리 · 판부리의 일부는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뒤에도 장남면 전역이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민간인 통제구역에 속해 있었으나, 1963년 1월 1일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장단군에서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으며, 1965년 4월 30일 "연천군 조례 제111호"에 의하여 원당출장소(元堂出張所)가 설치되어 행정업무를 관할하여오다가, 1989년 4월 1일 "군조례 제226호"에 의거 원당출장소가 장남면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장남면은 원당리 · 자작리 지역에만 민간인 입주가 되어 있고 그 외 반정리 · 고랑포리 · 판부리 지역은 출입영농이 가능한 지역과 군사분계선을 포함하고 있는 완충지대에 놓여 있다. 장남면의 동쪽은 백학면, 남쪽은 파주시 적성면, 서쪽은 파주시 진동면, 북쪽은 휴전선과 접해 있다.

1. 원당리(元堂里)

본래 장단도호부의 고남면(古南面) 지역으로, 조선 초에 옛 장단현을 다스리던 고을 원의 관저(官邸 : 지위가 높은 관리들이 들어가 살도록 만든 관사)인 원당(元堂)이 있었다 하여 원당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장남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 이후에 일부 지역이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6 · 25가 끝난 뒤에도 원당리 전지역이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민간인 통제구역에 속해 있다가 1962년 6월 1일에 민간인 입주가 되었고, 1963년 1월 1일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장단군에서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으며, 1965년 4월 30일 "연천군 조례 제111호"

에 의하여 원당리에 원당출장소(元堂出張所)가 설치되어 행정 업무를 관할하여오다, 1989년 4월 1일 "군조례 제226호"에 의거 원당출장소가 장남면으로 승격되면서 다시 장남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원당리는 3개의 행정리, 11개 반,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는 장남면의 중심 지역이다.

두지나루(斗只渡, 長湍渡, 頭耆津)

원당리와 파주시 적성면 두지리(斗只里) 사이에 있던 임진강 나루. 옛 여러 문헌에는 이곳을 장단나루로 지칭하고 있다.

≪高麗樂府≫에 의하면 고려 태조 왕건이 재위에 있을 때, 임진강과 어우러져 병풍같이 펼쳐진 장단석벽과 주위에 빼어난 경관에 매료되어 여러 차례 이 곳을 찾아 배를 타고 유람하며 이 마을 백성들과 허물 없는 유희(遊戱)를 즐겼는데, 뒤에 이마을 주민들이 태조 왕건의 성덕(聖德)을 칭송하는 노래를 지어 부른 것이 계속 전해 내려와 이 노래를 "장단도곡(長湍渡曲)"이라 불리운다 라는 기록과 ≪高麗史≫에는 공민왕이 이 곳에 와서 기악(伎樂)을 베풀며 노닐던 사실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고려말 우왕 때 왜구의 침입으로, 양광 · 전라 · 경상도 도순찰사로 임명된 이성계가 장단나루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출정하려 할 때 흰무지개가 해를 꿰뚫으니 점술가가 이것은 싸움에 이길 징조이다!. 라고 했다는 장단나루와 관련된 여러 사적을 소개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이곳 장단나루를 배경으로 하여 여러 편의 명시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다.

• 임 춘(林椿)의 시 •

長湍風急浪如山	장단나루 센 강바람에 물결은 산 같이 일어
欲借孤舟上瀨難	배 한척 빌려 타려하나, 여울 오르기가 힘들 것 같구나.
十二時回朝復暮	12시간 차이로 아침 저녁은 돌아 오는데
人間何日少波瀾	인간세 어느 날인들 파란이 적겠는가.....

• 정도전(鄭道傳)의 시 •

秋水澄澄碧似天	가을 물은 맑고 맑아 하늘빛 같이 푸르른데
君王暇日御樓船	왕이 틈을 내어 누선에 올랐도다.
師莫唱長湍曲	사공들아 장단곡 부르지 말아

此是朝鮮第二年　지금은 조선이 개국한지 2년째 해로다.

* 사공들아 장단곡 : 고려 태조 왕건의 덕을 칭송한 노래인 장단도곡(長湍渡曲)을 새 왕조 조선이 건국되었으므로 금(禁)하라는 강한 암시의 내용이다.

• 이 색(李穡)의 시 •

長湍石壁翠屛橫　장단석벽은 푸른 병풍처럼 비꼈는데
花開錦繡明　활짝 핀 철쭉꽃 물결은 비단 수 놓은 듯이 보이네.
借商船順流下　잠시 상선에 올라 강물 따라 내려오니
一時情景難名　한 때의 정경을 이름하기 어렵구나.

• 권 근(權近)의 시 •

牙鐵壁越江回　깎아지른 장단절벽 강을 따라 돌았는데
兩岸春風花正開　양안(兩岸)은 봄바람 속에 꽃이 한창이네.
野外湍山隨地盡　들 밖 장단의 산은 지평선 따라 아득하고
沙中小逕出村來　모래벌 가운데 생긴 호젓한 길은 강촌(江村)에서 나왔네.

舟人截浪牽漁網　사공은 물결을 가르며 그물을 치는데
田父提壺勸酒盃　농부는 술병을 들고 잔을 권하네.
往事悠悠無處問　지난 일 걱정되어도 물을 곳 없고
碑文剝落盡苔　비문은 닳아 없어져 이끼만이 남았구나.

현재 이곳에는 야트막한 콘크리트 다리가 세워져 있다.

황포돛배

삭녕바위(朔寧岩)

재쟁이나루 옆에 있는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큰 바위. 전설에 의하면 예전에 삭녕에 있던 이

바위가 임진강의 큰 홍수로 인하여 이 곳까지 떠내려 왔는데, 이 사실을 안 삭녕군수는 장단군수에게 삭녕의 재산이었던 바위니 세금을 내라하자, 장단군수는 이 바위의 보관료를 달라했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高麗史 五行志≫에 의하면 충목왕 원년(1345)에 '큰 돌이 장단나루를 스스로 건넜다'. - 大石自涉長湍渡 -라는 이적이 실려 있어 그 바위가 삭녕바위로 명칭과 전설이 와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남기고 있다.

6 · 25 이후에는 이 바위를 '고청바위' 라고도 부른다.

호로고루성지(瓠蘆古壘城址. 紫峴城. 財尾山)

국가사적 제467호로 지정된 고구려의 성이다. 장승거리 서쪽, 임진강 옆의 현무암 천연절벽으로 둘러쌓여 있는 강안성(江岸城). 지금까지 이 성의 어원에 대하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임진강에 있는 여울인 '호로탄(瓠蘆灘)' 의 옆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전해 오고 있으나, 실제 그 말의 뿌리는 북방계 언어에 두고 있다.

이 성은 비옥한 임진강 유역에서도 군사 요새로서의 가장 중요한 지리적 입지조건과 천혜의 지형을 갖춘 이유로 인하여 삼국시대부터 백제, 고구려, 신라, 말갈, 거란 등이 이 곳을 세력확장의 거점으로 삼기 위하여 진출하는 과정에서 성의 주인이 여러차례 바뀌었던 크고 작은 전투기록들이 여러 문헌상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위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 볼 때 현재 이 성의 내부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고구려계의 유물에 연관지어 호로고루의 어원을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삼국시대 고구려 땅이름 중에는 지금의 '골' 또는 '고을' 을 뜻하는 말인 '홀' (忽)이 있는데, 이 '홀' 은 '호로' 또는 '호루' 로 쉽게 연철될 수 있고, 뒤 음절 '고루' 는 고구려어에 성(城)을 뜻하는 말인 '구루(溝婁)' 가 이 곳 호로고루의 '고루' 와 비슷한 발음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어의 기준으로라면 호로고루의 뜻은 '성(城)의 고을' 이라는 넓은 의미로 풀이가 가능해 진다.

그러나, 고구려어와 상통되어 왔던 만주어(말갈 · 거란족어)의 최근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성(城)을 뜻하는 말은 만주어에서 '홀' 로 발음되었으며, '성(省)', '강 유역' 을 칭하는 말은 '고로' 로 씌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어, 실제 이 곳까지 진출했던 말갈 · 거란족의 역사적 사실과 입지조건으로 보아 이 성과 여러가지로 부합되는 것은 '강(江) 유역의 성' 이라는 뜻을 가진 만주어의 '홀 고루' 가 연철된 '호로고루' 에 뿌리를 두었을 것이 확실해 진다.

그럼으로, 이 성은 임진강의 '호로여울'과는 무관한 '강 유역의 성' 또는 '강 옆의 성'이라는 뜻의 만주어 '호로고루'에 뿌리를 둔 땅이름일 뿐이지, 소리 그대로를 음차한 한자식 지명인 '瓠蘆古壘'와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전해 오고 있는 이 성의 다른 한자 이름인 '자미성'과 '재미산'은 다름 아닌 성(城)의 우리 고어(古語)인 '잣'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 현재 남북으로 성벽이 산의 형태처럼 남아 있어 오래 전부터 우리 고유어로 '성산(城山)'이라는 뜻인 '잣뫼'로 불리워오던 것이 한자로 지명을 옮겨쓰는 과정에서 '잣뫼성(城山城)'과 같은 뜻으로 음이 변한 '재미산(城山)'을 호사가들로 인하여 지금의 '紫帽城' 또는 '財尾山'으로 표기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다.

호로고루성

주마산(走馬山. 주람산, 저드락산): 원당리에서 가장 높은 산.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이 산의 형국이 등에 짐을 잔뜩 얹은 말이 동쪽으로 달려가는 형상이라 하여 주마산으로 이름 지었다 하며, 원당3리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마을의 재운(財運)이 이 산의 형국 때문에 외부로 흘러나간다 하여 재물을 싣고 달아나려는 말의 기운을 막기 위하여 이 산 동쪽에 있는 조그만 봉우리를 '말뚝봉'이라 명명하여 지기(地氣)를 보호했다 한다.

또한 이 산의 다른 이름인 '저드락산'은 나즈막히 경사진 주마산의 외형에 의하여 '나즈막한 산기슭의 경사진 땅'을 가리키는 우리말 '자드락'에서 따온 이름이다.

2. 자작리(自作里)

본래 장단도호부 장현내면(長縣內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고읍리(古邑里)를 병합하여 장남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 이후에 일부 지역이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뒤에도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민간인 통제구역에 속해 있다가 1963년 1월 1일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장단군에서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고, 1989년 4월 1일 "군조례 제226호"에 의거 원당출장소가 장남면으로 승격되면서 다시 장남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자작리는 6 · 25 이후에 새로 형성된 새말에 마을을 이루고 있는 1개의 행정리, 1개 반,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 自作里 어원에 대하여

자작리의 원뜻은 산의 뜻으로 씌었던 고어의 '잣'과 산골짜기의 안(內)이 된다는 뜻의 '안(內)'과 합하여 '잣안(山內)'되었던 것이 뒤에 단순한 지명의 접미사인 '이'가 덧 붙어 '잣안이'가 되었고, 다시 '잣안이 → 자잔이 → 자작리'로 연철되어 굳어지면서 본래의 '산 안에 있는 마을'의 뜻인 '자작리'와는 전혀 무관한 한자 이름인 '自作里'가 된 곳이다.

3. 판부리(板浮里)

본래 장단도호부 장현내면(長縣內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고읍리(古邑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장남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 이후에 대부분의 지역이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6 · 25가 끝난 뒤에도 군사분계선을 포함하고 있는 완충 지대에 속해 있다가, 1963년 1월 1일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장단군에서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4월 1일 "군조례 제226호"에 의거 원당출장소가 장남면으로 승격되면서 다시 장남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판부리는 일부 지역에만 출입영농이 가능한 적접 지역으로, 민간인이 살고 있지 않은 하나의 법정리이다.

굴앞(窟前洞)

굴등 서쪽에 있던 마을. 굴등에 있는 장사굴의 앞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전설에 의하면 이 곳 장사굴은 아주 옛날 어떤 장사가 뚫었다고 전해 오는 곳으로, 천연석벽으로 된 굴 입구에는 장사가 남겼다는 손자국, 발자국 등이 완연히 남아 있었고, 이 굴에서 불을 때면 고랑포석벽으로 연기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6 · 25 전에는 전주 이씨 덕천군파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헐떡릉(許陵)

굴앞 서쪽 산 너머에 있는 판봉상시사(判奉常侍事) 허 기(許)의 묘로, 음택풍수(陰宅風水)의 전설이 전해 오는 곳이다.

허 기가 세상을 떠나자 양천 허씨 문중에서는 당대 최고의 지관과 함께 이 부근에서 묘자리를 찾아다니게 되었는데 지관이 멀리서 이 산을 바라보니 천하의 명당자리가 되어 산 정상부터 혈(穴)을 찾아 내려왔으나, 하루 종일 이 산을 헤맸어도 그 명혈을 찾지 못하고 해는 이미 서산에

기울어 할 수 없이 궁지에 빠진 이 지관은 줄행랑을 놓기 시작했다 한다.

그러나 그 뒤로는 영문도 모르는 허씨 상제들이 계속 따라오며 지관을 잡으려 하자, 지관은 걸음을 멈추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거리며 궁여지책으로 말하기를, '이 자리가 명당이니 이곳에 묘를 쓰시오!' 라고 자기가 앉은 곳을 일러주었다 한다.

그 후 아무런 사연도 모르고 이곳에 묘를 쓴 허 기 직계의 양천 허씨 문중은 대대로 현달한 지위와 학자가 많이 배출되었는데 그 후 이 묘를 지관의 당혹했던 일화에 따라 '헐떡릉' 이라 이름 지었다 한다.

현재 남방한계선에서 약 50m 안에 있는 이 묘역에는 미수 허목이 지은 비문이 새겨진 묘비와 상석 · 장명등 · 4기의 문무관석 등의 석물이 있다.

4. 고랑포리(高浪浦里)

본래 장단도호부 장서면(長西面)의 관송리(貫松里)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관송리를 고랑포리로 개칭하여 장남면에 편입되었으나, 6 · 25 이후에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민간인 통제구역에 속해 있다가, 1963년 1월 1일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장단군에서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4월 1일 "군조례 제226호"에 의거 원당출장소가 장남면으로 승격되면서 다시 장남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고랑포리 전지역은 휴전선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만 출입영농이 가능한 하나의 법정리 지역이다.

가운데고랑포(中高浪浦)

아랫고랑포 위에 있던 큰 마을. 이 곳은 고랑포 3개 마을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고 6 · 25 전까지 2 · 7일 장이 형성되었던 상권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 마을 동쪽의 임진강 장단석벽 위에는 6 · 25 전까지 장남면사무소와 기타 여러 기관의 건물이 있었으며, 고랑포나루 선창가에는 항상 많은 상선들이 정박하며 성황을 이루었던 명소이다.

또한 이 곳을 중심으로 하여 임진강을 따라 펼쳐지는 주변의 절경을 고호팔경(皐湖八景)이라 하여 고랑포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왔는데 8경은 아래와 같다.

1. 釣臺暮月(조대모월): 임진강가 낚시터 바위 위에 비치는 깊은 밤의 고운 달빛.

2. 芝灘漁火(지탄어화): 자지포(紫芝浦) 여울에서 밤고기를 잡는 어선의 거물거리는 등불.

3. 嵋城初月(미성초월): 자미성(紫嵋城. 호로고루성) 위로 떠오르는 초생달.

4. 掛岩晩霞(괘암만하): 고랑포 동쪽, 고야위(掛岩 : 파주군 적성면 장좌리의 임진강가에 있는 큰 바위)에 비친 저녁 노을.

5. 平沙落雁(평사낙안): 고랑포의 대안(對岸)인 장좌리의 넓은 모래벌에 열을 지어 내려앉는 기러기 떼.

6. 石浦歸帆(석포귀범): 저물녘 반정리의 돌거리에서 고랑포 선창으로 돌아오는 돛단배.

7. 赤壁丹楓(적벽단풍): 장단석벽 좌우로 비단처럼 펼쳐지는 가을단풍의 절경.

8. 羅陵落照(나릉낙조):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릉 위에 비치는 저녁 햇빛.

고랑포나루(高浪渡, 皐浪渡, 선창)

가운데 고랑포리와 윗 고랑포 사이에 있었던 임진강 나루터로, 파주군 적성면 장좌리와 연결되었던 곳이다.

옛 문헌에 "皐浪渡"로도 기록되어 있는 이곳은 6 · 25전까지 임진강에서 가장 번창했던 포구의

고랑포나루(30년대 사진)

하나이며, 고랑포 상권 형성에 큰 역활을 했던 곳이다. 또한 서해안에서 배를 타고 조류를 이용해 이곳까지 올라와 장단의 대표적 특산물이었던 콩(長湍白太), 땔감, 곡물 등을 교역하였고, 교통이 편리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경기 북부지역 농 · 특산물의 집하장 역활을 했던 곳이다.

그러나, 지금의 고랑포나루터에는 6 · 25의 참화로 인하여 예전의 번성했던 자취는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무성하게 우거진 갈대숲만이 옛 나루의 명성을 대신하고 있다.

경순왕릉(敬順王陵)

신라 56대 마지막왕인 경순왕(재위 927~935)의 묘로 국가사적 제244호로 지정된 왕릉이다. 927년 신라를 침공한 후백제군에게 경애왕이 피살되고, 경순왕이 제위에 올랐다. 그의 즉위 배경은 미상인데, 그가 왕위에 오를 당시 경명왕의 자녀들이 미성년자였는지 그가 화백회의의 추대를 받아서 즉위했는가에 대한 여부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는 즉위 초 아버지 효종랑을 신흥대왕(神興大王)으로, 할아버지 실흥(또는 관흥)을 의흥대왕(懿興大王)으로 각각 추봉하였다.

재위 시에는 국력이 쇠퇴하고 특히 여러 차례에 걸친 후백제의 침공과 약탈로 국가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러나 그의 정책은 난폭한 견훤보다 오히려 왕건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931년 왕건의 알현이 있었는데 수십일을 머물면서 왕건은 부하군병들에게 정숙하여 조금도 범법하지 못하게 하니, 왕경의 사녀(士女)들은 전번 견훤이 왔을 때에는 시랑과 범을 만난 것 같았으나, 이번 왕건이 왔을 때에는 부모를 만난 것 같다고 하였다.[왕건 일행이 경주를 방문한 어느 날에는 왕건의 손을 붙잡고 견훤 때문에 살수 없음을 하소연하며 통곡하기도 했다.

그는 태조 왕건에게 자신의 백부 김억렴의 딸을 소개했는데, 그는 고려 태조의 신성왕후가 된다. 고려에 귀순민심이 신흥 고려로 기울어짐을 살피고, 군신회의(群臣會議)를 소집하여 고려에 귀부(歸附)하기로 결정하고, 935년 고려 태조에게 항복했다. 이에 마의태자, 김일, 범공, 이순유 등은 강하게 반대하였다. 일설에는 그가 고려에 귀순을 결심했을 때 어전에서 자살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태조 왕건은 자신의 두 딸인 낙랑공주 왕씨(樂浪公主)와 부인 왕씨를 경순왕에게 시집보냈다. 낙랑공주는 신명순성왕태후 소생이고, 부인 왕씨는 평주 호족 박수경의 딸 성무부인 소생인데, 성무부인의 딸은 딸밖에 낳지 못하여 작위를 받지 못했다. 낙랑공주는 그에게서 대안군 김은열과 신란궁부인 김씨, 그리고 황경에게 출가한 딸을 두었다. 대안군 김은열의 딸은 이허겸에게 시집갔는데, 외손녀사위가 김은부이고 외증손자는 이자연으로 현종과 문종 때의 외척이 된다.

이후 정승공(政承公)에 봉작된 뒤 경주(慶州)를 식읍(食邑)으로 받았으며, 태조로부터 유화궁(柳花宮)을 하사받고 지금의 개성과 가까운 곳에 거주했다. 한편 경주의 사심관(事審官)에 임명됨으로써 고려시대 사심관 제도의 시초가 되었다. 한편 그는 태조 사후 혜종, 정종, 광종을 거치는 동안 일체의 정치적 활동에 개입하지 않음으로

경순왕릉

써 숙청을 모면하고 경종 대에까지 살아남았다.

그의 딸인 헌숙왕후는 경종의 정비가 되었는데, 경종은 특별히 장인을 배려하여 그를 정승공으로 봉하고 식읍과 녹봉을 더해 주었다. 978년 4월 4일에 사망하였다. 당시 신라의 유민들은 신라왕들의 묘가 있는 경주로 운구를 모시고 출발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유민들이 모여들자 경주지역에서의 집단행동을 우려한 고려 조정에서는 운구행렬이 임진강을 건너기 위해 고랑포에 도달했을 때 '왕의 구는 도성에서 100리를 벗어날 수 없다.' 라는 이유를 들며 군사들로 하여금 임진강의 도강을 막았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운구행렬은 절대로 뒤돌아갈 수가 없고 오직 앞으로만 나갈 수 있다는 설 때문에) 이곳 성거산에 모시게 된 것이다. 이후 그의 묘소는 임진왜란 이후 실전되었다가 1747년(영조 23년) 다시 되찾아 정비하게 되었다. 경북 경주 황남동의 숭혜전(崇惠殿), 하동 청암면의 경천묘(敬天廟) 등에 제향되었다.

현재의 경순왕릉비는 영조 23년(1747)에 다시 세웠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1746년 10월14

일 장단에서 경순왕의 지석과 신도비가 나왔음을 아뢰는 동지 김응호의 상소가 있고, 그 후속 조치로 1747년 4월 20일 경순왕의 묘를 수치(修治)한다. 여기서 수치란 고쳐 새롭게 하는 일을 말한다. 그리고 1748년 1월29일에는 고려 왕릉의 예에 준해서 경순왕릉에도 수총군(守塚軍) 5명을 두어 지키게 한다. 이렇게 해서 경순왕릉은 현재의 모습으로 유지 보존될 수 있었다.

1748년(영조 24) 경순왕릉 인근 고랑포 마을 민가에서 후손인 김빈(金)과 김굉 등이 발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74년 이 비는 고랑포 초등학교로 이전되었다가, 1973년 이후 이루어진 경순왕릉 정화에 따라 1987년 현 위치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한다. 비석의 크기는 높이가 132㎝, 폭이 67㎝, 두께가 15-18㎝이다.

무덤의 높이는 약 3m, 지름 7m의 둥글게 흙을 쌓아올린 원형 봉토무덤으로 판석을 이용해 둘레돌을 돌렸다. 고려시대 왕릉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담장인 곡장이 둘려져 있어 고려 왕실에서 왕의 예로서 무덤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왕릉 중 유일하게 경주 지역을 벗어나 경기도에 있다.

5. 반정리(伴程里)

본래 장단도호부의 장서면(長西面)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장남면에 편입되었으며, 6 · 25 이후에는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민간인 통제구역에 놓여 있다가, 1963년 1월 1일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장단군에서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4월 1일 "군조례 제226호"에 의거 원당출장소가 장남면으로 승격되면서 장남면에 편입된 하나의 법정리 지역이다.

현재 반정리 전 지역은 휴전선과 인접한 민간인 통제구역에 속해 있어 출입영농만 가능한 지역이다.

두루봉(烽火峰. 毛女峰. 99.8m)

반정리 남쪽, 파주군 진동면 용산리와 경계에 있는 봉우리. 임진강 옆에 솟아 있는 이 봉우리에 올라서면 사방이 두루 보인다. 하여 두루봉으로 이름 지어 졌으며,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군사들이 주둔하며 봉화를 올렸던 곳으로, 정상에는 약 50m 둘레의 석축이 남아 있고 그 지표에서는 고구려 계통의 적갈색 기와가 수습되어 유적의 성격을 규명해 주고 있다.

1993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실시한 파주군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지표조사 중에 이 봉우리 정상에서 덮개가 있는 청자항아리(태항아리로 추정)를 발견한 곳이기도 하다.

朔寧面 삭녕면

삭녕면은 본래 삭녕군 읍내면(邑內面)의 지역으로, 동변리(東邊里) · 서변리(西邊里) · 여척리(餘尺里) · 하마산리(下馬山里) · 상마산리(上馬山里) · 대사동리(大寺洞里) 등 6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이 축소 폐합되면서 삭녕군 읍내면 · 동면(東面) · 남면(南面) · 서면(西面)은 연천군에, 인목면(寅目面) · 내문면(乃文面) · 마장면(馬場面)은 강원도 철원군에 분리 편입되면서 읍내면을 연천군의 가장 북쪽에 있다 하여 북면(北面)으로 개명함과 동시에 동변리와 서변리를 병합하여 삭녕리(朔寧里), 하마산리를 고마리(古馬里)로, 대사동리를 대사리(大寺里)로 명칭을 변경하여 삭녕 · 대사 · 여척 · 고마 · 상마산의 5개 리를 관할하여 오다,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에 의해 동면의 도연리(陶淵里) · 적음리(笛音里) · 진곡리(辰谷里) · 어적산리(魚積山里) · 적동산리(積洞山里) 등 5개 리를 편입하여 북면을 삭녕면이라 개칭, 10개 리를 관할하였으나,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삭녕면 전지역이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뒤에도 휴전선을 끼고 있는 완충지대 및 북한 지역에 속하였으나,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삭녕면 10개리를 연천군 중면에 편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도연리(陶淵里)

본래 삭녕군 동면(東面)의 도사리(刀寺里) 지역인데, 조선 고종 32년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도사리를 도연리(陶淵里)로 개칭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면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연천군 동면에 속하였으나,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에 의해 동면이 북면과 병합하여 삭녕면으로 개칭되면서 삭녕면 도연리가 되었다.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삭녕면 전지역이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6 · 25가 끝난 뒤에도 군사분계선을 포함하고 있는 완충지대 지역인데,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연천군 중면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의 법정리 지역이다.

벌말(坪村)

양지말 남쪽, 벌판에 있었던 마을. 6 · 25 전에는 한 집이 살던 곳이다. 전설에 의하면 예전에 이 마을에서 장수가 태어났는데 몸에 비늘과 날개가 있어 역적이 될 운이라 하여 죽였다 한다. 도연리에서 이 장수의 탄생설화와 용마로 인한 용마네골, 굴레방고개, 자작고개 등의 관련 지명이 남아 있다.

용마네골

벌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 벌말에서 장수가 태어나자 이 골짜기에서는 그 장수가 탈 용마(龍馬)가 났는데, 그 집안에서 장수를 죽이자 용마는 슬피 울며 북쪽에 있는 굴레방고개에서 굴레를 벗고, 자작고개에 가서 자작 죽었다 한다.

삼계정(三溪亭)

정자말에 있던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에 팔작지붕 형태의 정자. 전설에 의하면 전주 이씨 시중공파 후손들이 이곳에 정착하였을 때 이미 박모(朴某)라는 고관대작의 개인소유인 팔송정(八松亭)이 있었으나, 그 후 전주이씨들의 소유가 되면서 등골 · 덕고개 · 정자말에서 내려오는 세개의 개울이 이 정자 앞에서 뒷내강에 합류한다 하여 편액을 삼계정으로 고쳤다 한다.

6 · 25 전의 삼계정은 삭녕의 우화정과 함께 빼어난 풍광으로 인하여 명성이 널리 퍼져 있었고 주위에 우거진 500년 수령의 느티나무, 참나무, 가닥나무 고목들은 정자의 운치를 더해 주었다 한다. 그러나, 이 정자는 6 · 25 때 아깝게 소실된 것으로 전해 오며 유지 또한 완충지대 안에 놓여 있다.

2. 적음리(笛音里)

본래 삭녕군 동면(東面)의 격음리(隔音里)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면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격음리를 적음리(笛音里)로 개칭하였고,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에 의해 동면이 북면과 병합하여 삭녕면이 되면서 삭녕면 적음리가 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삭녕면 전지역이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3년 동안의 6 · 25가 끝난 뒤에도 군사분계선을 포함하고 있는 북한 지역에 속해 있었으나,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연천군 중면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의 법정리 지역이다.

3. 진곡리(辰谷里)

본래 삭녕군 동면(東面)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면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연천군 동면의 진곡리가 되었으나,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에 의해 동면이 북면과 병합하여 삭녕면이 되면서 삭녕면 적음리가 되었고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삭녕면 전지역이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뒤에도 북한 지역에 속해 있으나,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연천군 중면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의 법정리 지역이다.

장사굴

고지동에서 삭녕의 우화정으로 가는 326번 지방도에 있는 천연석굴. 전설에 의하면 예전에 이 굴에서 장사가 낳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하며, 일제 강점기 때 도로확장공사를 진행하던 중 큰 구멍이 뚫리면서 내부면적 약 30~40평, 높이 150m의 큰 굴이 발견되었는데, 이곳에서 불을 지피면 그 연기가 철원으로 나왔다 한다.

4. 어적산리(魚積山里)

본래 삭녕군 동면의 지역인데, 북쪽에 굽어 흐르는 뒷내강(역곡천)에 유난히 민물고기가 많아 '언치미' 또는 '어적산리' 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면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연천군 동면에 속하였으나,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에 의해 동면이 북면과 병합하여 삭녕면이 되면서 삭녕면 어적산리가 되었으며,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6 · 25가 끝난 뒤에도 군사분계선을 포함하고 있는 북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연천군 중면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의 법정리 지역이다.

5. 적동산리(積洞山里)

본래 삭녕군 동면(東面)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면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연천군 동면에 속하게 되었으나,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에 의해 동면이 북면과 병합하여 삭녕면이 되면서 삭녕면 적동산리가 되었다.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뒤에도 군사분계선 북쪽의 북한 지역인데,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연천군 중면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의 법정리 지역이다.

6. 삭녕리(朔寧里)

본래 삭녕군 읍내면(邑內面)의 동변리(東邊里)와 서변리(西邊里)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읍내면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북면으로 개칭됨과 동시에 동변리와 서변리를 병합하여 삭녕리라 하여 연천군 북면에 편입되었으나,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에 의해 북면과 동면이 병합되어 삭녕면으로 개칭되면서 삭녕면 삭녕리가 되었고,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삭녕면 전 지역이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6 · 25가 끝난 뒤에도 휴전선 북쪽이 되어 북한 지역에 속해 있으나,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연천군 중면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의 법정리 지역이다.

삭녕관아터(朔寧官衙址)

삭녕시가지 북쪽에 있던 조선시대 삭녕군의 관아 터. 조선 세종 23년(1441) 대사리에서 이곳으로 이건(移建)된 뒤에 530여년 동안 삭녕군 7개 면을 관할했던 관청으로, 객사(客舍) · 동헌(東軒, 편액은 詠恩堂) · 아사(衙舍) · 향사당(鄕射堂) 등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삭녕의 옛 지리지에는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 직후에 삭녕군이 연천군과 철원군으로 분리 편입되면서 관아건물은 강제로 철거되었는데, 특히 포도청 건물은 일제의 삭녕신사 건립에 이용되었으며, 그 자리에는 새로 면사무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후로는 식민지정책에 의하여 공공건물과 민가가 들어서면서 아무런 자취도 없이 세월 속에 묻혀버렸다. 지금은 북한 지역이 되어 확인이 어려운 곳이다.

7. 대사리(大寺里)

본래 삭녕군 읍내면의 대사동리(大寺洞里)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삭녕군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읍내면을 북면으로, 대사동리를 대사리로 개칭하였고,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에 의해 동면을 병합하여 삭녕면으로 개칭되면서 삭녕면 대사리가 되었다.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뒤에도 지금까지 북한 지역 위치하고 있으나,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연천군 중면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의 법정리 지역이다.

한절골(大寺洞)

성산 북쪽에 있었던 마을. 삭녕의 옛 문헌에는 이 곳의 한자지명과 연관되는 큰 절(大寺)에 대한 일체의 언급과 소개가 없고 제보자들도 절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으로 보아 '한절'을 한자의 '大寺'로 해석하기에는 의문이 있으나, 좀 더 자세히 주위 땅이름들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은 본래의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땅이름에는 앞 글자에 '한'이 들어간 것이 수 없이 많은데 대개 어떤 명사앞에 붙어서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내고 있으나, 가장 흔한 뜻은 '큰(大)'을 들 수 있고 이 곳 한절골의 앞음절 '한'은 뒤의 명사인 '절'에 좋은 뜻을 보태주고 있으나, 실제 의미는 '절(寺)'과는 무관한 '성(城)'을 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대사리 한절골 앞에는 오래 전에 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삭녕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이 위치한 성산(城山)이 있는데 '성(城)'은 우리 고어로 '잣','자', '재' 등으로 발음되어 왔으므로, 큰 규모의 이 성이 '한 잣(재)'로 불리워 오던 것이 한절로 음이 변하면서 '큰 성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한절골'이 음차되면서 본래 뜻과는 무관한 '大寺洞'이라는 한자지명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곳은 고려~조선 초까지 삭녕군의 관아가 있었던 곳으로, 삭녕의 여러 지리지에는 "고려와 조선 초에 삭녕의 관아가 지금의 동헌에서(삭녕리 관아) 동쪽으로 5리 쯤에 위치하는데 세종 23년(1441)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원래 이 마을에 삭녕군의 관아가 있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6 · 25 전에는 방씨들이 20여호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8. 여척리(餘尺里)

본래 삭녕군 읍내면의 지역으로, '여저리' 또는 '여척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천군 북면에 편입되었고,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에 의해 북면과 동면을 병합하여 삭녕면 여척리가 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고, 6 · 25가 끝난 뒤에도 휴전선 북쪽의 북한 지역에 놓여 있으나,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중면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의 법정리 지역이다.

무정골(武昌洞)

삼밭골 남쪽에 있었던 마을. 6 · 25 전에는 정

선 이씨 30여호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또한 이 마을 입구에 있는 100여평 정도의 넓이가 되는 조그만 동산에 약300년 수령의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부군나무로 받들어지고 있었고, 매년 추수가 끝난 10월이 되면 이 나무에 대동제를 올렸다 한다.

마을 중앙에 사시사철 샘물이 용솟음치는 바가지우물과 한지를 만들던 제지공장으로도 유명했던 곳이다.

9. 고마리(古馬里)

본래 삭녕군 읍내면(邑內面)의 하마산리(下馬山里)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삭녕군에서 연천군 북면에 편입되면서 하마산리를 고마리로 개칭하였으며,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에 의하여 북면이 삭녕면으로 개칭되면서 삭녕면에 속하였으나,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고, 6 · 25가 끝난 뒤에도 휴전선 북쪽의 북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연천군 중면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의 법정리 지역이다.

10. 상마산리(上馬山里)

본래 삭녕군 읍내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삭녕군에서 연천군 북면에 편입되었고,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에 의하여 북면이 삭녕면으로 개칭되면서 삭녕면에 속하였으나,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6 · 25가 끝난 뒤에도 휴전선 북쪽의 북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연천군 중면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의 법정리 지역이다.

팔운이(靑雲洞)

망덕산 서쪽에 있었던 마을. '산' · '머리' 의 뜻으로 씌었던 우리 고어인 '발' 이 음이 변하여 '팔' 이 되었고, 이 마을 주위에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망덕산, 감수봉, 316m 무명고지가 호위하듯 감싸고 있는 골짜기의 안(內)이 되어 '골짜기 안의 마을' 이라는 뜻의 '발안' 이 '팔운이' 로 음이 변하면서 아무런 연관이 없는 한자의 '靑雲洞' 으로 음차된 땅이름으로 보인다. 6 · 25 전에는 약 450년 전에 정착한 연안 김씨들이 40여호 집성촌을 이루었고, 일제 강점기 때에는 한지공장이 성업을 이루었던 마을이다.

西南面 서남면

서남면은 본래 삭녕군(朔寧郡)의 지역으로, 조선시대에는 서면(西面)과 남면(南面)의 두 개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던 곳이다.

서면은 옛 삭녕군 관아에서 서쪽에 위치한다 하여 서면이라 하여 형천리(荊川里) · 가좌동리(加佐洞里) · 냉정리(冷井里) · 솔현리(率賢里) · 석둔리(席屯里) · 장항리(獐項里) · 라외동리(羅外洞里) 등 7개리를 관할해 오다, 조선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가좌동리를 '佳佐洞里'로, 라외동리를 '羅鶴里'로 명칭 변경만 하여 기존의 7개리를 관할했으나, 1914년 4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7개리를 가천(佳川) · 냉정(冷井) · 솔현(率賢) · 석둔(席屯) · 장학(獐鶴)의 5개 리로 축소 폐합하여 남면과 병합, 서남면이 되면서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남면은 옛 삭녕군 관아에서 남쪽에 위치한다 하여 남면이라 하여 탄부리(炭釜里) · 고리동리(古里洞里) · 오장대리(五壯垈里) · 귀존리(貴存里) 등 4개 리를 관할해 오다, 조선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오장대리를 '伍莊垈里'로 명칭만 변경하여 기존의 4개 리를 유지해 오다, 1914년 4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오탄(伍炭) · 고장(古莊) · 귀존(貴存)의 3개 리로 축소 폐합하여 서면과 병합, 서남면이 되면서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서면과 남면이 병합되어 연천군에 편입된 서남면은 가천 · 냉정 · 솔현 · 석둔 · 장학 · 오탄 · 고장 · 귀존 등 8개 리를 관할하여 오다,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속해 있다가 6 · 25가 끝난 뒤에도 서남면 전지역이 휴전선 북쪽에 위치하여 현재까지도 북한 지역에 놓여 있으나,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서남면이 연천군 왕징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1. 귀존리(貴存里)

본래 삭녕군 남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천군 서남면에 편입되었고 1945년 8 · 15광복 이후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뒤에도 휴전선 북쪽에 위치하여 현재 북한 지역에 속해 있으나,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

시조치법"에 의거 연천군 왕징면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의 법정리이다.

6 · 25 전까지는 서남면의 행정 · 치안 ·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다.

2. 가천리(佳川里)

본래 삭녕군 서면의 지역으로,' 가재울' 이라는 마을이 있어 가좌동리(加佐洞里)라 하였는데, 조선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의해 가좌동리를 '佳佐洞里' 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14년 4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가좌동리와 형천리(荊川里)를 병합하여 가좌동리의 "佳"자와 형천리의 "川"자를 따서 가천리라 하여 서남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뒤에도 휴전선 북쪽에 위치하여 현재 북한 지역에 속해 있으나,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연천군 왕징면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의 법정리 지역이다.

능말(陵村)

가재울 동쪽에 있었던 마을. 조선 초 수양대군에 의해 단종의 왕위가 찬탈되는 정사의 어지러움에 회의를 느껴 서울에서 이 곳으로 낙향하여 일생을 마친 창신교위(彰信校尉) 이근생(李根生)의 묘가 있다 하여 능골로 이름지어진 곳이다. 조선 후기에는 궁궐의 내시들이 살았다 하여 '내시촌(內侍村)' 이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전해오며, 6 · 25 전에는 약 20여호가 산촌(散村)을 이루었던 곳이다.

서남면 지역은 이 때 낙향한 이근생의 후손인 전주 이씨들이 크게 번성하여 6 · 25 전까지 대성을 이루었다 한다.

3. 냉정리(冷井里)

본래 삭녕군 서면 지역으로, 찬 우물이 있어 냉정리(冷井里)라 하였는데, 1914년 4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천군 서남면에 편입되었고,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뒤에도 휴전선 북쪽에 위치하여 현재 북한 지역에 속해 있으나,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 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연천군 왕징면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의 법정리 지역이다.

물미치(水峴)

너더리 북쪽, 석둔리로 넘어 가는 긴 고개 이름. 이 고갯마루 부근에 있는 찬 샘에서 많은 양의 물이 솟아 나와 이 부근 일대가 항상 물이 흔

한 곳이 되어 물미치로 이름 지어졌고 냉정리의 유래 또한 이 우물로 인하여 지어졌다 한다. 6 · 25 전에는 이 고개 아래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4. 고장리(古莊里)

본래 삭녕군 남면의 고리동리(古里洞里)지역인데,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인접해 있던 오장대리(伍莊垈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고리동리의 "古"자와 오장대리의 "莊"자를 따서 고장리라 하여 연천군 서남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뒤에도 휴전선 북쪽에 위치하여 현재 북한 지역에 속해 있으나,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 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연천군 왕징면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의 법정리 지역이다.

5. 오탄리(伍炭里)

본래 삭녕군 남면의 오장대리(五壯垈里) 지역인데, 조선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伍莊垈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탄부리(炭釜里)를 병합하여 오장대리의 "伍"자와, 탄부리의 "炭"자를 따서 오탄리라 하여 연천군 서남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뒤에도 휴전선 북쪽에 위치하여 현재 북한 지역에 속해 있으나,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연천군 왕징면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의 법정리 지역이다.

용못

두멍터나루 북쪽, 임진강 옆에 있는 못. 전설에 의하면 이곳에는 이무기가 나온다는 굴이 있다 하며, 물 색깔이 붉은빛을 띠었는데 붕어, 민물게가 많기로 이름났던 곳이다.

6. 장학리(獐鶴里)

본래 삭녕군 서면의 지역으로, '장재울'이라는 마을이 있어 한자로 장항리(獐項里)라 하였는데,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나학리(羅鶴里)를 병합하여 장항리의 "獐"자와 나학리의 "鶴"자를 따서 장학리라 하여 연천군 서남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뒤에도 휴전선 북쪽의 북한 지역에 속해 있으나,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연천군 왕징면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의 법정리이다.

금산(錦山, 金屛山)

삭녕 시가지 남쪽, 임진강 남안(南岸)에 동서로 길게 펼쳐진 평풍 같은 산이름. 가을 단풍이 절경을 이룰 때면 개옻나무를 특징으로 하는 갖가지 활엽수종의 단풍이 곱게 수놓은 비단 병풍처럼 펼쳐져 가경(佳景)을 연출한다 하여 금산으로 이름지어졌다 하며, 삭녕 앞을 흐르는 임진강도 삭녕의 옛 지도에는 '錦江'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옛날에 어떤 장수가 이 부근 전투에서 전사했는데 그 장수가 쓰던 투구가 이 산에 묻혀 있다는 전설이 전해 온다.

7. 솔현리(率賢里)

본래 삭녕군 서면의 지역으로,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천군 서남면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뒤에도 휴전선 북쪽에 위치하여 현재 북한 지역에 속해 있으나,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연천군 왕징면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의 법정리이다.

8. 석둔리(席屯里)

본래 삭녕군 서면의 지역으로, 돗둔이라는 마을이 있어 한자로 옮겨 석둔리라 하였는데,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천군 서남면에 편입되었고, 1945년 8 · 15 광복과 동시에 3 · 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 · 25가 끝난 뒤에도 휴전선 북쪽에 위치하여 현재 북한 지역에 속해 있으나,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연천군 왕징면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의 법정리 지역이다.

우여곡절 끝에 연천문화 17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6호에는 연천의 인물을 주로 다루었으나 새로이 발굴한 인물을 이번 호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대한제국 13도 창의군(사령관: 왕산 허위선생) 연기호부대(의병대장) 소속의 제3분견대장(의병장)심상우 의병장을 새로이 발굴하여 당시의 시대상황과 의병들의 활약상을 문헌과 기록을 발췌하여 이곳에 올렸습니다.

또한 당시의 연천은 우리나라 어느 곳보다도 잠업의 메카였으며 농가 고소득의 근원이었습니다. 바로 가무사리의 홍현상선생이 당시 농업인의 가난한 살림살이를 어떻게든 면하게 하기 위해 잠업의 선진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잠업기술과 잠종기술을 습득하여 당시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누에 생산단지로 호황을 누렸으나 6.25 당시 납북되어가는 바람에 이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편집을 마치고...

또한 홍현상선생의 아들 홍기창박사는 1961년부터 1965년까지 고려대학교의 농과대학장도 지내는 등 평생을 교육계에서 한국 근대 농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연천의 훌륭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연천의 전통 민속놀이를 발굴하여 정리를 하였고 전설과 설화를 통해 본 연천의 지명유래에 관하여 고증과 전언을 통하여 각 읍면별로 정리를 하였으나 아쉬운 점은 고증을 해 줄 분들이 대부분 저세상 사람이 되어 점점 줄어들어 이제는 고증을 듣기가 아주 힘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한 분이라도 더 만나서 생생한 증언을 통해 발굴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저술과정에 미흡한 점이 많으나 넓은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연천문화원 사무국장 **이 준 용**

연천문화 2013년 (통권 제17호)

발 행 일 | 2013년 10월 25일

발 행 처 | 연천문화원(031-834-2350)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현가리 71-1번지

펴 낸 이 | 이경순

기획·사진 | 이준용

편집·인쇄 | 한원그래픽스 (031) 835-3221

연천문화원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현가리 71-1

71-1 hyeonga-ri, yeoncheon-eup, yeoncheon-gun, gyeunggi-do, korea

T. 031)834-2350. 3450 F. 031)834-2015 | http://cafe.daum.net/ycclove